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 사 학 위 논 문

제주설화를 활용한
초등 국어과 통합 지도 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국어교육전공

김 경 애

2013년 8월



석 사 학 위 논 문

제주설화를 활용한
초등 국어과 통합 지도 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국어교육전공

김 경 애

2013년 8월







제주설화를 활용한
초등 국어과 통합 지도 방안 연구

A Study on Integrated Teaching Methods
for Elementary Korean Language
using Jeju Legends

지도교수 이 주 섭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국어교육전공

김 경 애

2013년 5월

김 경 애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전 제 응 인

심사위원 윤 치 부 인

심사위원 이 주 섭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년 6월

목 차

국문 초록	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선행연구 고찰	3
3. 연구 방법 및 제한점	11
II. 이론적 배경	13
1. 국어교육의 통합 필요성	13
2. 아동문학 중심 통합의 의의	30
3. 설화교육의 의의와 제주설화	35
III. 제주설화를 활용한 국어과 통합 지도 방안 설계	45
1. 설화 중심 통합 지도의 원리	45
2. 제주설화의 선정기준	51
3. 제주설화를 활용한 통합 지도 방안 설계	54
IV. 적용 및 결과 분석	72
1. 프로그램의 적용	72
2. 적용 결과 분석	79
V. 결론	92
참고 문헌	94
ABSTRACT	99
부 록	101

표 목 차

<표 1> 교과내 통합	22
<표 2> 통합교육의 유형	24
<표 3> 양소영의 통합교육의 유형	25
<표 4> 신화·전설·민담의 차이점	38
<표 5> 제주 신화와 본풀이	43
<표 6> 아동문학의 갈래	46
<표 7> 설화 구조와 어린이 삶의 구조의 친연성	47
<표 8>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듣기 3학년 성취기준과 학습 목표	59
<표 9>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말하기 3학년 성취기준과 학습 목표	60
<표 10>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읽기 3학년 성취기준과 학습 목표	61
<표 11>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쓰기 3학년 성취기준과 학습 목표	62
<표 12>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문법 3학년 성취기준과 학습 목표	63
<표 13>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문학 3학년 성취기준과 학습 목표	63
<표 14> 통합을 위해 추출된 성취기준	65
<표 15> 통합 지도할 성취기준과 학습 목표	66
<표 16> 제주설화를 활용한 초등국어과 통합 수업모형	69
<표 17> 통합 수업 교수-학습 과정안	72
<표 18> 사전 설문 내용 1	79
<표 19> 사전 설문 내용 2	80
<표 20> 사후 설문 내용 1	81
<표 21> 사후 설문 내용 2	82

그림 목 차

[그림 1] 국어과 통합의 층위	19
[그림 2] 통합에 대한 개념 지도	21
[그림 3] 한국문학에서의 실화의 위치	45
[그림 4] 통합적 국어 수업의 원리	49
[그림 5]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문학’ 영역의 내용체계	55
[그림 6] 2009년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문학’ 영역의 내용체계	56
[그림 7]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한 국어과 교육의 목표	57
[그림 8]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한 국어과 교육의 목표	57
[그림 9] 활동 결과 학습지 1	74
[그림 10] 활동 결과 학습지 2	75
[그림 11] 활동 결과 학습지 3	76
[그림 12] 활동 결과 학습지 4	77
[그림 13] 활동 결과 학습지 5	78
[그림 14] 주요 사건과 인물이 한 일 찾기	84
[그림 15] 손가락 원고지로 표현하기	86
[그림 16] 소개하는 글쓰기	86
[그림 17] 대별왕 소별왕 뒷이야기 꾸미기	87
[그림 18] 새로운 이야기 꾸미기 1	88
[그림 19] 새로운 이야기 꾸미기 2	89
[그림 20] 친구에게 소개하는 글쓰기	89

국 문 초 록

제주설화를 활용한 초등 국어과 통합 지도 방안 연구

김 경 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이 주 섭

초등학교 국어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창의적 국어 능력 향상’이다. 이러한 국어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5차 국어과 교육과정 시행 후 언어 사용 기능 신장을 위해 교과서를 영역 별로 분책하여 가르쳐 왔으나 여러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통합적인 국어교육에 강조점을 두어, 학습자가 언어 상황에서 실제 사용하게 되는 다양한 담화와 글의 종류와 수준을 정해 주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방법의 교수·학습 계획에서 통합 지도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통합 지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언어의 통합적 성격을 살리고자 노력하나 현재의 분권화된 교과서 체재로 인해 수업상황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영역을 구별하고 있다.

아동문학을 중심으로 한 언어 지도의 경우, 학생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사용된 언어가 좀 더 높은 수준의 언어라고 볼 수 있으며, 통합적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황을 구성하기가 쉽다. 문학작품 중에서 우리 고장의 정서와 문화를 배울 수 있고,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 영역을 통합할 수

있는 소재인 제주설화를 활용하여 언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학을 즐기는 평생 독자로 자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연구하고 실행하였다.

제Ⅱ장에서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우선 국어교육에서의 통합의 이론적 배경을 살핀 후 통합 개념과 유형, 필요성과 지도방법을 밝혔다. 그런 후에 아동문학 중심의 통합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설화의 성격과 기능, 교육적 의의와 제주설화의 특징을 살피면서 국어과 통합 지도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아동문학중심의 통합 원리와 제주설화의 선정기준을 정한 후 3학년의 언어 기능 영역별 성취 기준을 분석하여 서로 연관성이 있어 통합 지도하는 것이 효율적인 성취기준을 추출한 후 제주설화를 중심으로 통합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안하였다.

제Ⅳ장에서는 통합 단원을 적용한 후 사전, 사후 설문지 비교, 관련 학습지 분석, 면담일지 분석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영역 간 통합 활동을 실시한 후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설화 속 환경과 인물을 새롭게 설정하여 재구성한 자신과 친구들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며 학습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둘째, 학생들이 짝막한 서사문학인 설화의 구성이나 뒷이야기 꾸며 쓰기, 연꽃기법을 활용한 이야기 다시 쓰기 활동을 해 봄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이끌어 낼 수 있어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은 제주설화를 활용한 통합 지도 프로그램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창의적으로 의미를 재구성하였으며 내면화된 의미를 독창적으로 표현해냈다.

넷째, 통합 지도를 통하여 학생들은 국어에 흥미를 가지게 되고, 설화작품을 읽으면서 쓰기를 하고 쓰기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읽으면서 문학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학생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제주 지역의 설화에 대하여 궁지와 흥미를 갖게 되었으며 설화의 내용 요소와 교훈 모티브를 바르게 파악하였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향토성 짙은 설화를 활용하여 통합 지도함으로써 언어 사용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화를 향유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었다.

주요어 : 통합 지도, 제주설화, 설화교육, 총체적 언어 교육, 수업모형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초등학교 국어교육의 목표는 국어 활동과 국어과 문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국어 활동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이며(교육과학기술부, 2013, p. 15) 궁극적인 목표는 ‘창의적 국어 능력 향상’이다.

이러한 국어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5차 국어과 교육과정 시행 후 언어 사용 기능 신장을 위해 교과서를 영역 별로 분책하여 가르쳐왔으나 효율성의 저하, 분절적 지식화, 국어 교육의 총체성을 모호하게 만드는 등의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김병수, 2010, p. 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체계 속에서 영역 간의 유기적 통합을 강조하였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더 나아가 통합이 국어과 최상위 목표를 성취하는 데 기여를 해야 한다는 목표 중심 통합으로 나아가고 있다.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통합적인 국어교육에 강조점을 두어, 학습자가 언어 상황에서 실제 사용하게 되는 다양한 담화와 글의 종류와 수준을 정해 주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매체 속에서 언어 경험을 중시하고 실제 통합적인 언어활동 상황의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방법의 교수·학습 계획에서 통합 지도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통합 지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언어의 통합적 성격을 살리고자 노력하나 현재의 분권화된 교과서 체제로 인해 수업상황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영역을 구별하고 있다.

그런데, 국어교육에서 길러주고자 하는 국어사용능력은 분리된 영역 안에서가 아니라 영역끼리 상호 작용해야만 온전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 언어 기능은 근본적으로 분리될 수 없고, 실제적인 사용을 통해 증진되기 때문에 언어는 각 영역을 구분하여 지도하는 것을 반대한다.

학습자의 창의적인 언어 사용 목표에 적합하고 다양한 유형의 언어자료를 제시

할 수 있는 통합 지도 방법의 하나로 문학 텍스트를 고려할 수 있다. 신현재 외(2001)는 문학을 중심으로 한 언어 지도의 경우, 학생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사용된 언어가 좀 더 높은 수준의 언어라고 볼 수 있으며, 문학을 중심으로 영역의 통합적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황을 구성하기가 쉽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설화는 구비문학의 중심으로 문자언어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음성언어으로써 전승되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온 이야기문학이다. 설화는 구연되는 문학이기에 말하기·듣기 등의 능력을 키울 수 있고, 기록된 문학으로서의 설화는 읽기·쓰기·문화적 감상력 등의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설화를 활용한 교육은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여 학습자 스스로 설화를 체험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의사소통의 언어적 감수성을 신장시킬 수 있고 상상력과 창의력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데, 개별화 교육과정을 추구하는 의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지역화 할 내용으로 제시한 것을 살펴보면 ‘첫째, 제주지역을 소재로 한 동시, 동화책 읽기를 권장하고, 둘째, 제주어를 사용할 기회를 확대하고, 제주 지방의 설화, 민요, 민담 김만덕의 전기 등 제주의 나눔과 배려 이야기를 소재로 한 교육활동을 전개한다. 셋째, 제주 지역의 책 축제 및 문예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넷째, 토의·토론 학습 활동에 지역 관련 소재를 활용한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2, p. 15)’ 라고 제시하여 우리 지역의 문화를 소재로 하여 제주어 계승 발전 및 제주인의 정체성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도의 교육 현장에서 제주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설화는 그 지역의 풍토성과 상황이나 주민들의 심리에 따라 유사 설화라 할지라도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특히 지리적인 특성으로 독특하게 형성된 제주설화는 현재도 생명력을 지니고 구전되고 있으며 문학적 상상력을 보여주고 내용 또한 풍부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 지역의 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소재 중 하나인 제주설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초등 국어과의 통합 지도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적용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고찰

국어과 수업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학작품 중심으로 읽고, 듣고, 말하고 쓰는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국어과 통합 지도에 관한 연구를 고찰하고, 문학작품 중에서 우리 고장의 문화와 정서가 깃들어 있어 교수-학습 자료로 선정하기에 적당하고 문학작품의 한 갈래인 설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 국어과 통합 지도 관련 연구

1) 통합 지도의 필요성 관련 연구

권익흠(2009)의 연구에 의하면, 1960년대 K. Goodman과 F. Smith에 의해 시작된 총체적 언어 학습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1983년 한국교육개발원이 <통합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를 소개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에 이화자, 이성은, 신현재 등이 중심이 되어 총체적 언어교육을 소개하였다.

이화자(1993)는 Kenneth Goodman(1986)의 논문 “What’s Whole in Whole Language”를 번역하여 소개하면서 각 장마다 역자의 해설을 덧붙임으로써 총체적 언어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여 준다. ‘whole language’를 ‘전체언어’로 번역한 이유를 ‘통합’은 부분에서 전체로 모아드는 느낌을 주는 반면, ‘전체’는 실제로 존재하는 언어의 실체가 단편으로 쪼개지지 않은 전체적인 상태를 묘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전체언어는 실제 사용되어지는 언어이며 전체언어에 기초한 교수법은 어린이들이 자극적이고 흥미 있고, 사회적이며 의미에 기초를 두고, 목적이 있고, 상호작용으로 이끌며, 무엇보다도 재미있는 활동에 참여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우게 된다는 전제에 근거한 언어발달모형이다.

신현재, 이재승(1994)은 총체적 언어교육 운동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면서 통합 언어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하였다. ‘whole language’를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보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적 특성을 ‘개별성·상호 작용성·통합성’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총체적 언어관에 입각하여 언어 기능은 통합적으로 지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언어 기능은 근본적으로 분리될 수 없고, 실제적인 사용을 통해 증진되기 때문에 언어는 기능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다른 교과나 학습 활동과 관련을 맺을 때 효과적으로 신장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성은(1994, 2003, 2005)은 Yetta M. Goodman의 총체적 언어교육에 대한 논문 “Roots of the Whole Language Movement”, Dorothy J. Watson의 논문 “Defining and Describing Whole Language”, Brian Cambourne & Jan Turbil의 논문 “Assessment of Whole Language : Theory into Practice”, K. Goodman의 논문 “Building Whole Language Programs”를 편역하여 소개함으로써 총체적 언어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여 주고, 총체적 언어교육이 현장교사들의 실제적 경험을 통대로 형성된 학문분야이면서 동시에 ‘열린교육’을 위한 운동으로서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중심으로 통합 교육을 서술하고 있다.

신현재 외 5인(2001)도 총체적 언어교육 운동에 대해 소개하면서 통합의 문제를 부각하고 국어과 교육에서 통합이 필요한 이유를 강조하고 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지식의 분권화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 통합 학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황정현(2001)은 교육연극 방법이 총체적 언어교육을 위한 동화교육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하면서 총체적 언어교육과 의사소통 기술을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술, 음성언어의 의사소통 기술, 문자언어의 의사소통 기술로 나누어 소개한다.

양소영(2006)은 영역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관점에서 각 영역별로 연구된 통합 관련 선행 연구들을 언어 사용 영역 내 통합 연구, 언어 사용 영역과 문학 영역의 통합에 관한 연구, 언어 사용 영역과 문법 영역의 통합에 관한 연구, 통합 교재 구성에 대한 연구로 분류하여 정리·분석하였다. 언어는 분리되어 가르쳐질 수 없으며, 영역 지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역 통합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영역 통합적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과 통합적 재구성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어과 통합 교육의 본질과 개념, 방법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재승(2006)은 통합적 국어교육의 개념과 층위 문제로, 교과 간 구별이 없는 통합, 교과 간 통합, 교과 내 통합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다루면서 언어 기능들의 통합적 지도를 국어교육의 통합 지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합적 국어교육의 성격에서는 연계 지도와 통합 지도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살피면서 전체적 교육과 통합교육, 총체적 교육과 통합교육, 주제 중심 접근과 통합교육이란 말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있다.

김상욱(2008)은 2007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을 국어과 활동영역의 통합이라고 소개하면서 6개의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현재의 국어과 학습을 비판하였다. 문학 작품을 바탕으로 두고 다양한 활동을 통합함으로써, 언어교육이 실질적이고, 유의미하며 효과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읽기·쓰기의 통합을 가능케 한 다양한 이론으로, 장르중심의 체계기능론, 총체적인 언어교육, 문학에 바탕을 둔 교육을 소개하고 있다. ‘읽기·쓰기 과정에 따른 통합’과 ‘활동의 성격에 따른 통합’을 상세하게 제시하면서 문학을 중심에 둔 읽기·쓰기통합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황정현(2009)은 인지과학 기반의 지식·정보화 사회인 요즘은 지식간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지식의 통섭(通攝)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식이란 독립된 의미 객체가 아니라, 인식 주체에 의해 상대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1세기 초등국어교육의 방향 중에서 통합 중심의 국어교육을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통합의 의미를 매체, 기능, 내용의 통합뿐만 아니라 언어 사용자의 지적 태도까지 통합하는 의미에서 통합 중심의 국어교육을 하나의 철학적 인식의 차원으로 보고 있다.

이관규(2011)는 통합적 국어교육의 가치와 통합의 유형을 살펴면서 언어 기능 영역들 간의 통합을 1차적 통합, 문법 영역과 언어 기능 영역 간의 통합을 2차적 통합, 문법과 언어기능, 문학의 통합을 3차적 통합으로 명명하고 이들이 통합되는 위치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독서와 문법’ 과목과 2011년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문법 과목의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

김병수(2012)는 현재 국어 수업이 영역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영역에 해당하는 기능을 반복적으로 익히는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활동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국어 수업의 개선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통합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 상호 교섭적인 국어 수업이 되어야 하며 둘째, 각 영역의 목표가 통합된 수업이 되어야 하고, 셋째, 언어의 창조성을 강조하는 국어 수업, 넷째, 학습자의 구체적인 삶과 관련되는 활동 중심이 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언어 사용의 기능을 바탕으로 우리의 국어 문화를 잘 반영해야 한다.

2) 통합적 국어 수업 관련 연구

임미성(2002)은 국어과 교육의 영역 구분과 이에 따라 나누어진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어적 사고력의 신장에 초점을 두고 각 영역을 통합하여 교과서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통합 단원을 위한 기초 조사에서 국어교육의 관점을 정립하고, 국어적 사고 요소의 통합성 원리, 국어 활동의 통합성 원리, 학습 계열에 따른 반복과 심화의 원리, 학습 제제의 공유 원리를 영역 통합적 교과서 단원의 원리로 내세웠다. 나아가 이에 따른 실제까지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통합 단원의 교수-학습 측면이나 평가 측면까지는 다루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박인기, 이수진(2005)은 통합의 국어 교육적 근거로 현실주의 교육 철학을 들었고, 통합 지향의 흐름, 국어과 통합 단원의 개발 원리, 대상에 따른 통합 전략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통합의 대상 요소로는 목표, 경험, 장르, 지식, 기능의 통합을 제시하였다. 통합의 방법으로는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목표 통합, 공간, 상황을 중심으로 하는 경험 통합, 상호텍스트적인 다중 텍스트 제시의 장르 통합, 하이퍼텍스트적인 체제의 지식의 통합, 프로젝트 학습 방식의 활동 통합을 제시하면서 주제중심의 통합 단원의 설계 모형을 단계별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모습은 알 수 없다.

정지영(2006)은 국어과교육이 지향해온 통합의 양상을 교육과정과 중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학습자의 창의적 언어기능 신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 통합적 교과서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역 간 통합, 활동 중심 통합, 학습 목표 중심 통합구성으로 구별하여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6차시에 걸쳐 통합단원을 적용해 수업을 실시하였다.

권익흠(2009)은 읽기와 쓰기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2007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읽기와 쓰기의 통합 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과 중학교 국어교과서의 문제점을 살핀 후 ‘읽기’, ‘읽고 난 후 쓰기’, ‘읽으면서 쓰기’, ‘쓰기’, ‘쓰고 난 후 읽기’, ‘쓰면서 읽기’ 등의 구체적 단원 통합 방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단원을 구성하여 예시로 제시하였으나 구안된 교재를 실제로 적용하는 단계를 거치지 못한 한계점을 갖고 있다.

김효진(2009)은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중학교 2학년 1학기 국어와 생활국어 교과서를 문학 텍스트 중심으로 통합하여 협동 학습 중심으로 지도하였다. 읽기와 문학에 치우친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학 텍

스트 중심의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통합 지도 방안을 구안, 적용하였다. 학생들의 텍스트 회상 능력, 문학에 대한 태도, 언어 사용 기능 영역에 대한 태도를 T검증과 다양한 반응 검사지로 비교한 결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실험집단에서 나타난 유의미한 변화가 문학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통합 지도로 인한 것인지, 협동 학습 기법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다.

천경록(2009)은 읽기와 쓰기의 통합 지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초등 국어 교과서에서 읽기와 쓰기의 통합 단원을 개발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통합 단원의 개발 근거로 총체적 언어교육이론과 국어과 교육과정을 두고 통합 단원의 학습 목표는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 나타난 '실제, 기능, 지식, 맥락' 등과 같은 범주를 중심으로 선정할 수 있으나, '실제'와 '기능'을 중심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현실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병수(2010)는 초등학교 국어과 수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분석한 결과, 영역별 목표의 중시, 기능의 반복과 수업의 비효율성, 모국어 지도와 언어생활의 괴리 등의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개선방향으로 목표 통합의 지향, 내용 확충과 수업의 연속적 진행, 구체적인 활동 중심의 수업, 언어 기능과 문화의 통합을 제시하였다. 또한 읽기 중심으로 말하기, 듣기, 쓰기를 통합하는 국어 수업 모형을 구안, 적용하여 수업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박연순(2010)은 그림책을 활용한 통합 교재화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국어과 통합 교재 구성의 원리를 구안하였다. 이를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그림책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1학년 1개 반에 적용한 결과, 다양한 매체를 통합하여 그림책을 들려주고 타 교과와 통합된 다양한 활동으로 학습을 진행하므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학습 집중력을 높여 학습 목표 달성을 수월하게 해 준다고 하였다.

오경숙(2010)은 초등학교 국어과 교과서의 문학 단원이 문학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언어 사용 영역을 통합하는 단원 구성을 제안하였다.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성취기준을 분석하여 황선민의 <나쁜 어린이표>를 중심으로 말하기, 읽기, 쓰기를 통합하여 지도할 수 있는 14차시의 한 단원을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정혜실(2011)은 초등 2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영역 간, 타 교과와의 간학문적 통

합, 교과 외 범학문적 통합 방법을 제시하고 2학년 2학기를 대상으로 실제 수업 연구를 진행하였다.

박순숙(2011)은 아동문학 중심의 초등국어과 통합 지도를 위해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 3학년을 대상으로 통합 단원을 선정하고, 기존에 연구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도입, 소통하기, 통합 활동, 정리의 단계를 거치는 통합 지도를 위한 수업 모형을 정리하였다. 〈가방 들어 주는 아이〉를 중심으로 국어과의 6개 영역을 통합하여 지도하는 예를 제시하였으나 실제로 적용해보지 않은 한계가 있다.

나. 설화의 교육적 활용 관련

1) 설화교육에 대한 연구

설화교육에 관한 연구는 처음으로 설화교육의 토대를 잡았다고 할 수 있는 최운식(1980)의 연구를 시작으로 문학교육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구 활동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희주, 2003, p. 4).

첫째, 교과서에 수록된 설화 제재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교육적 활용 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기창(1992)은 구비문학 교육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고 구비문학 교육의 사적 고찰에 대한 연구는 전혀 없다고 전제하면서, 개화기부터 제5차 교육과정기까지 초·중·고 교과서에 수록된 구비문학 체계를 바탕으로 구비문학 교육의 사적 전개를 통시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는 특히 손동인(1984)의 〈한국전래동화 연구〉의 연구 결과에 대해 소개하면서 전래동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돕고, 동화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하였다. 사적 고찰을 통하여 구비문학이 국어과 교육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으며, 각 급 학교의 국어과 교과서에 실린 구비문학체계가 어떤 성격이나 의미,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수용되었는가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국어과 교육에서 설화교육의 중요성과 위상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주고, 설화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서상현(2006)은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설화 양상을 교육과정기별 특성과 관련지어 검토하고 제7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분석함으로써 올바른 설화 교육의 방향을 찾는 기반으로 삼아 설화 시 쓰기를 통한 중학교 설화 교육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박신영(2008)은 제1차 교육과정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설화 제재를 추출하고, 그 수록 양상을 검토하여 기존의 연구들을 재검토하고 설화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전수지(2008)는 설화교육이 아동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청소년기 학습자에게 설화 교육의 경험이 양적, 질적으로 부족하다고 전제하고, 무속신화인 <바리공주> 속 시·공간에 나타난 크로노토프를 분석함으로써 일상적 삶의 시·공간이 서사적 시·공간으로 변형되는 과정을 통해 상호 소통과 삶의 체험으로서 설화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길현주(2012)는 교육현장에서 설화의 구술성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야기 전달하기-구연하기-구술연행 채록하기’ 과정을 통해 이야기 판 체험을 통한 설화 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야기판 체험을 통한 교육 방안은 가장 충실하게 ‘구술성’에 입각한 교육 방안이면서도, 자신들이 직접 체험한 활동에 비추어 구술문화의 특징을 실증할 수 있는 적합한 교육임을 확인했으나 그 대상이 소수 인원으로 이루어지고, 전후 비교 분석이 명확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둘째, 설화의 교수-학습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한 연구들로 교과서에 수록된 설화 제재에 교육적 이론을 적용한 설화 수업 모형을 제시한 연구들이다.

김서영(2003)은 제7차 교육과정 7, 8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는 설화 작품과 교과서 밖의 작품을 선정하여, 창의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을 확립한 후에 실제 적용을 하였다.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으로 살펴 보기 위해 한국판 TTCT(언어)검사와 반응 검사 설문지를 검사 도구로 삼았다.

문해란(2005)은 제7차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설화를 중심으로 작품에 대한 이해, 교육적 가치, 교수-학습의 실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설화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설화 문학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하고 적용하였다.

고정연(2006)은 현재 교육 현장에서 각각의 영역들은 서로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언어 기능과 문학 영역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언어와 문학을 통합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구연문학인 설화문학의 효용성과 통합적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그 실제의 예를 보여준다.

김미라(2007)는 “설화는 재미있기는 하지만 단조롭고 현실성이 없으며, 글을 쓴다는 것은 어렵고 힘들다”는 학생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교과 수록 설화를

대상으로 읽기와 쓰기를 통합한 지도 방안을 구안하여 단계적으로 수업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고 있다. 설화를 대상으로 한 통합적 연구가 많지 않고, 설화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이 연구는 읽기·쓰기 통합 지도를 통하여 국어에 흥미를 가지고 문학적 감수성과 창의력 신장 등 학습자의 정의적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추재훈(2013)은 설화를 모티프로 한 시가 가지는 다양한 효과에 비해 교육적 제재로 적극 활용되고 있지 않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설화모티프 시 교육 방법을 '감상-이해-분석-창작'의 과정 아래 두고, 학습자 자신의 '소재체험하기'라는 내면화 과정을 통한 다양한 소재를 체험하고 상상력을 발현하는 기회로서의 교육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 제주설화에 대한 연구

설화연구의 수집 역사와 현황을 소개한 최운식(1991)의 <한국설화연구>를 살펴보면, 1950, 60년대부터 이기형, 이봉준, 장주근, 진성기, 현길언, 현용준 등에 의해 제주의 전설과 무속, 신화 등에 대하여 수집하여 정리하거나 설화 속에 담긴 제주 선인들의 사상 등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졌다.

진성기(2001: 1959 초판)는 제주 지역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채록하여 무속적 신화, 지연적 전설, 토속적 민담, 역사적 설화 등으로 구별하여 기록하였다.

현길언(1981)은 인물 전설을 중심으로 설화에 나타난 제주인의 정신을 탐구하기 위해 제주도 설화를 당신과 장수설화로 구별하여 소개하였다. 그는 제주설화는 제주민의 삶과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섬 콤플렉스에 대한 해방의지, 피해 의식과 배타 의식, 현실주의적 생활관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밝혔다.

김영돈, 현용준, 현길언(1985), 현용준(1986), 문화재연구소(1990), 김영돈(1993), 현용준, 현승환(1996) 등의 연구에서는 신화에서부터 자연전설, 역사전설, 민담 등을 통해 제주 선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과 삶의 양상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제주설화를 실제 교육에 활용해보고자 하는 노력은 타 지역의 설화를 활용한 교육의 연구 성과에 비하면 매우 드문 편인데 대표적인 것은 고희주(2003)와 박희순(2003)의 연구이다.

박희순(2003)은 제7차 교육과정 문학 영역 중 설화 관련 내용을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로 나누어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설화의 교재화 조건과 원리

를 밝힌 후 제주설화의 교재화 작품 선정 기준을 마련한 후 대상 작품을 선정하여 교육연극 방법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학년별 제주설화 교수-학습 모형, 설화별 활동 프로그램과 수행평가 도구를 개발하여 향후 관련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고희주(2003)는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의 설화 수용 양상을 파악하여 설화교육의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제주설화의 내용 체계를 살펴본 후, 이를 이용한 설화의 교수-학습 모형을 작성하고 학습 자료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에 적합한 수준별 학습과정에 부합하는 제주설화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에 의하면, 국어 수업 관련 통합 지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1980년대부터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여러 교수와 교사들의 연구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주장되고 있다. 국어 교과서의 통합 단원 개발 관련 연구와 아동문학 중심의 영역 간 통합 지도에 대한 연구들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 본 연구와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또한 설화를 활용하여 국어 언어 기능을 향상시키려는 연구들도 많았고 최근에 들어서는 설화를 중심으로 통합 지도를 꾀하는 연구들도 등장한다. 하지만 지역의 특색과 향토성 짙은 문화를 품은 제주설화를 활용한 국어과의 통합 지도 방법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주설화를 중심으로 국어과의 통합 지도 방안에 대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및 제한점

가.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국어과 수업 현장에서 교과서의 분책으로 인해 언어 기능 교육 영역이 분절적, 탈맥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역 간 통합 지도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문학작품 중에서 우리 고장의 정서와 문화를 배울 수 있고,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 영역을 통합할 수 있는 소재인 제주설화를 활용하여 언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학을 즐기는 평생 독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하고 실행하였다.

제Ⅱ장에서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우선 국어교육에서의 통합의 이론적 배경을 살핀 후, 통합 개념과 유형, 필요성과 지도방법을 밝혔다. 그런 후에 아동문학 중심의 통합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설화의 성격과 기능, 교육적 의의와 제주설화의 특징을 살피면서 국어과 통합 지도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아동문학중심의 통합 원리와 제주설화의 선정기준을 정한 후 3학년의 언어 기능 영역별 성취 기준을 분석하여 서로 연관성이 있어 통합 지도하는 것이 효율적인 성취기준을 추출한 후 제주설화를 중심으로 통합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안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제주설화 3편을 활용하여 총 20차시에 걸쳐 통합 지도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사전, 사후 설문지 비교, 관련 학습지 분석, 면담일지 분석 등을 통해 결과를 해석하였다.

나. 연구 제한점

본 연구는 초등 국어과 통합 지도 방안 연구이지만 실제 프로그램은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자신이 선택하는 동아리부서 형식으로 운영되는 창의적재량활동 시간에 운영함으로써 파일럿 연구의 성격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어과 통합 텍스트를 제주설화라는 특정 지역의 소재로 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다른 학년, 다른 지역과 국어 영역 전반에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음을 밝힌다.

II. 이론적 배경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어 관련 통합 지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이해언어, 표현언어, 음성언어, 문자언어 등 언어 기능간의 다양한 통합 지도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설화를 중심으로 통합 지도 방안을 연구하는 경우도 있어 본고에서는 제주설화를 중심으로 통합 지도를 하면 효율적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1절에서는 국어교육의 통합 필요성과 지도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2절에서는 아동문학 중심의 통합의 필요성과 통합의 의의를 살펴본 후, 3절에서는 설화교육의 성격, 제주설화의 특징을 살펴면서 통합 지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국어교육의 통합 필요성

가. 국어교육에서의 통합의 이론적 토대

국어교육에서 통합 지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는 학습자중심 교육, 구성주의, 총체적 언어교육, 생태학적 교육관 등이 있는데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두 통합의 정신을 내포하고 있다.

1) 학습자중심 교육

교수-학습 과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은 행동주의 심리학과 인지학습이론이 있다. 행동주의 교수-학습이론에서는 교사가 수업을 주도하여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학습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학습자들은 외부의 환경적 자극에 반응하는 수동적인 학습자이다. 반면에 인지학습이론은 학습자들이 능동적인 경험을 통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지식을 구성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학습은 직접적인 참여와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합언어 교육가들은 모든 것은 실제 행하고 반성하는(reflecting) 와중에서 학습된다는 J. Dewey의 진보적 교육관과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에 적극적인 참여자라는 Piaget의 학습관을 지지한다. 그래서 학습자는 수동적인 객체가 아니라 알아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이화자, 1993, p. 54).

학습은 학습자 외부의 환경자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내적 상태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한다. 즉, 학습은 외부의 지식을 학습자가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의해 결정되어진다는 구성주의 교육관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데 모두 학습자중심의 교육의 근간이 되고 있다(김병수, 2006, p. 17).

학습자중심의 수업은 학습자가 학습의 주도권을 갖고,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문제들에 대해 학습자가 직접 의문을 가지고 스스로 충분히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습자의 능동적인 활동과 주체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과제가 학습자들에게 의미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배경지식이나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제적인 언어 사용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언어를 많이 사용하게 해야 한다.

2) 총체적 언어교육(Whole Language¹⁾)

이성은(1994, 2005)의 연구에 의하면, 총체적 언어교육은 모든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삶을 위한 의미 구성뿐만 아니라 주위 환경과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삶의 전체 과정을 다룬다. 16세기 교육학자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²⁾에서 기원하는데, 80년대 중반에 구미를 중심으로 교사들 자신들의 현장 경험에서 자발적으로 기존의 기능 중심의 획일화된 언어교육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되었다.

총체적 언어교육은 언어 경험적 접근, 아동 중심의 교육이론, 통합교육과정 이론들을 보완하면서 보다 학생들 각자의 관점을 존중하기 위한 운동으로(신헌재, 이재승, 1994, p. 19),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를 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아동들이 삶의 현장과 생활 체험 속에서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J. Dewey, Piaget, Vygotsky³⁾의 사상들이 총체적 언어교육에 영향을 끼쳤고,

- 1) “whole language”에 대하여 이재승은 “통합 언어”, 이화자는 “전체 언어”, 김경자는 “총체 언어”, 이성은은 “총체적 언어”로 번역하였는데 가장 폭넓게 소개한 것은 이성은의 “총체적 언어”이다(신헌재, 이재승, 1994. p. 13).
- 2) 아동들은 자신들의 삶을 경험함으로써 학습하며, 그들과 친밀한 것들에 안내되고, 학습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물들을 조작함으로써, 그리고 학습한 것을 아동이 자연스런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발견할 수 있다(이성은, 2005, p. 103).

M.A.K. Halliday(1975)는 학습자가 언어를 사용하는 동시에 언어를 학습한다는 이론을 확립함으로써 총체적 언어 운동의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이성은, 2005, pp. 106-107).

K. Goodman(1986)은 총체적 언어 접근법을 체계화하는 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에 의하면 총체적 언어교육은 진정한 의미에서 보면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아동들이 실제 생활과 관련하여 읽고 쓰기를 배우도록 하는 의미에서 ‘풀뿌리(grass-root)’ 운동이라 불렸다. 총체적 언어교육에 대한 개념을 언어에 관한 관점, 학습에 관한 관점을 함께 묶어 하나의 방향으로 보면서 총체적 언어의 교수-학습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이성은, 2005, pp. 352-353).

첫째, 학교에서의 읽기와 쓰기 프로그램은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기초해서 만들어져야 하고 학습자의 내부에 내재한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어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습자가 자연적으로 해 왔던 총체적 학습의 연장선상에서 읽고 쓰는 능력을 발달시켜야 한다.

둘째, 읽고 쓰는 능력은 전체에서 부분으로, 모호한 것에서 정확한 것으로, 세련되지 못한 것에서 세련된 것으로, 구체적이고 상황적 맥락이 분명한 것에서 보다 추상적인 것으로, 친숙한 것에서 친숙하지 않은 것으로 발달해 간다.

셋째, 표현(쓰기) 전략과 이해(읽기) 전략은 기능적이면서도 의미 있고 적절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발달된다.

넷째,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은 개인적인 필요와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 개발된다.

다섯째, 학습자는 교사가 계획해서 제공하는 풍부한 언어 환경에서 지식과 지식의 구조 및 학습 전략을 구성하는 주체가 된다.

여섯째, 교사는 학습자의 읽기와 쓰기 전략이 발달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지원하고, 학습자는 의미의 소통에 초점을 맞춘다.

일곱째, 읽기와 쓰기를 잘하려면, 모험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여덟째, 학습 동기는 학습자 내부에서 일어난다.

아홉째, 학습자나 교사는 읽거나 쓰기를 하면서 스스로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나?”라고 질문을 한다.

열째, 가르치기 위한 교재는 의미 있고 적절한 총체적인 텍스트이어야 한다.

-
- 3) · 존 듀이-반성적 사고와 학습자를 교육과정 개발 과정의 핵심으로 보고, 언어와 다른 교과와의 통합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였다.
- 피아제-아동은 학습에 있어 능동적 역할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읽고 쓰기를 배운다.
 - 비고츠키-개별 학습자의 학습과 사회적 맥락의 영향력 간의 관계를 탐구함으로써 총체적 언어교육의 연구자에게 도움을 주었다.

D. Watson은 총체적 언어교육을 학생들이 자연적인 상황에서 읽기와 쓰기, 말하기, 듣기를 학습하는 것과 관련된 하나의 신념과 교수 책략과 경험을 뒷받침하기 위해 붙인 하나의 명칭으로 보았고, 수년이 지난 후 이 개념을 확대하여 총체 언어 학습자와 학습, 교사와 교수, 언어 및 교육과정에 관한 신념을 바탕으로 한 '교육에 관한 하나의 관점'으로 정의하였다. 반면에 Weaver는 간접적 정의로 총체 언어의 옹호자들이 대체로 언어와 아동의 경험을 토대로 한 읽기와 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하였다. Newman은 총체적 언어는 단지 언어 교육과정만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관한 일련의 신념으로 정의하였다(신현재 외, 1994, pp. 29-30).

총체적 언어교육의 학습이론을 살펴보면, 언어학습은 전체적이고 실재하는 것이며 상관이 있을 때, 의미가 통하며 기능적일 때, 사용맥락에서 이루어질 때, 학습자가 사용하기로 선택할 때 쉽다. 언어는 학생들이 진정한 발화와 읽고 쓰기의 맥락에서 동시에 언어를 통해서 언어에 관해서 배울 때 언어를 배운다. 한마디로 언어발달은 전체적인(holistic) 사회적, 개인적 성취이다(이화자, 1993, p. 48).

이와 같이 총체적 언어는 언어와 학습 및 학습자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과 일련의 신념을 바탕으로,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상황에서 통합되어 이루어지는 자연적인 언어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을 강조하는 총체적 언어교육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신현재 외(1994)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언어 기능은 통합적으로 지도될 필요가 있다. 언어의 각 기능은 서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며 실제의 언어생활에서는 이들 기능들이 통합되어 이루어진다. 언어의 기본적인 성질을 살리려면 통합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단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국어교과의 도구 교과적인 성격을 살리려면 타 교과에서도 부분적으로 언어 기능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언어 학습은 실제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언어는 내용의 집합이 아니라 상징체계이기 때문에 교육의 목적을 위한 언어 기능 교과는 언어의 실제성과 유용성에 초점을 둔 활동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의미 있는 활동이 되려면 학습자의 필요, 흥미, 욕구 및 능력에 맞아야 한다.

넷째, 국어교육의 초점을 언어 자체에 둘 것이 아니라 의미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언어는 다른 사람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미를 나타내며, 서로 간의 의

미를 함께 나누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라는 언어의 의미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3) 생태학적 학습이론

국어과 생태학적 관점은 생태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생태주의는 인간 중심의 세계관에 의해 진행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에 대한 반성으로 생물학의 한 갈래인 생태학에서 출발하였다(박미정, 2008, p. 11).

생태학(ecology)⁴⁾이란 개인이나 유기체가 경험하고 있는 혹은 개인과 직접·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는 환경적 상황을 의미하고, 활동적이며 성장하는 인간이 환경과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인간 발달의 생태학을 생각하였다. 생태계에서 각 개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환경과 서로 영향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학습자도 주변 사회 환경과의 영향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국어과 학습 활동도 실제의 자연스런 언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태학적 학습이론에서는 국어교육 자체를 학습자 삶의 과정이라 보고, 학습자의 실제 언어사용 생태에 부합하는 언어교육을 주장한다. 언어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사회와 문화적인 영향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언어 사용도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와 문화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 즉, 학생들의 언어 사용 능력도 실제 언어생활 속에서 학습되어야 향상된다. 따라서 교육 내용을 단순히 개인의 언어 사용 맥락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국어로 상호작용하는 맥락 속에서 찾아야 하고, 학습 활동도 단순히 한정된 교실 세계에서만이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실제 맥락 속에서 찾아야 한다(신현재 외, 2005, p. 5).

따라서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국어과 교육은 학습자가 각 영역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실제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황⁵⁾ 안에서 언어를

-
- 4) '개체 발생은 계통 발생을 되풀이한다.'는 유명한 명제를 만든 독일의 생물학자이면서 철학자인 에른스트 헤켈이 1869년에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cology는 그리스어 oekologia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 'oeko'는 '집'을 뜻하는 것으로 '생명체가 거주하여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유현옥, 2004, p. 26).
 - 5) 실제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황이란, '통합적인 상황'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수업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학습자를 둘러싼 세계, 즉 가정생활, 학교생활, 교실 밖 실제 활동 등과의 유지적인 관련이 이루어지는 여건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상

사용함으로써 언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수업에서의 통합적 지도를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나. 국어교육에서의 통합의 개념과 유형

1) 통합의 개념과 층위

앞에서 살펴본 학습자중심 교육, 총체적 언어교육, 생태학적 교육관 등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두 통합의 정신을 내포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1980년대에 언어교육을 통합적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관심이 부각되었고, 이재승(2006)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이후 관심이 커지면서 이제 통합적 교육은 이전의 분리교육을 대체하면서 하나의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다.

‘통합(統合)’의 개념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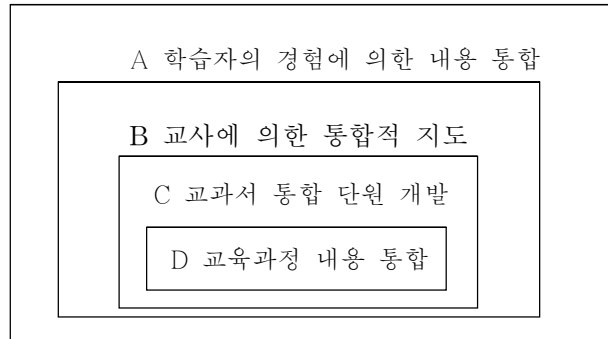
- ① 둘 이상의 조직이나 기구 따위를 하나로 합침.
- ② 〈심리〉 인격의 구성 요소가 조화로운 구조를 이루는 일.
- ③ 〈언어〉 소쉬르 언어학에서, 언어 요소가 발화될 때 일정한 순서로 배열되는 일.
- ④ 〈교육〉 아동 및 학생의 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학습을 종합하고 통일함.

이 정의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경험을 종합하고 통일한다는 것이다. ‘새롭게 하다’는 의미의 라틴어 ‘integrare’에서 나온 ‘통합(integration)’의 의미와 일맥상통하다고 하겠다. 반면에 Harris & Hodges(1989)에 의하면 통합이란 분리된 여러 부분이나 특성 등을 하나의 통일되고 기능적인 총체로 묶는 것이라 하여 통일의 개념보다 분리가 아닌 ‘포함’으로 개념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병수, 2010, p. 18).

한국철학사상연구회에서는 통합의 개념을 “① 통합의 대상이 되는 요소나 부분들이 존재하며 ② 요소나 부분들의 통합으로 새로운 전체성이 반드시 나타나야 하며 ③ 요소나 부분들을 결합하는 원리가 존재한다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임철성, 2011, p. 26).

언어활동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또 그럴 때에 언어 학습이 자연스럽게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정지영, 2006, p.14).

통합 구성의 단계와 연관이 되는 통합의 층위를 살펴보면, 천경록(2009)은 국어과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의 층위를 [그림 1]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그림 1] 국어과 통합의 층위

주. 출처 “읽기와 쓰기의 통합 단위 개발 방향” 천경록 저, 2009, **한국초등국어교육**, 39집, p. 540.

A 단계는 학습자의 경험에 의해 내용을 통합하는 층위이다. 학습자는 유기체로서 어떤 내용이 어떤 순서로 제시되든 각각 그 내용을 통합하여 자기 것으로 재조직한다. 통합의 효과나 통합의 역할이 모두 학습자에게 몫이라 학습자에 따라 통합의 효과가 차이가 난다.

B 단계는 교사가 수업에서 통합하는 방안인데, 교육과정이나 교과서가 통합되어 있지 않더라도 각자의 교육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통합 지도할 수 있다. 그러나 단원을 재구성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고, 재구성 과정에서 교육 내용과 학습 과제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단원명이 동일하여 교사가 교과서를 재구성하여 통합 지도할 수 있게 하였다.

C 단계는 교과서 수준에서 통합 단원을 개발하는 방안으로, 교과서에 체계적으로 개발된 통합 단원이 있다면 통합 지도는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7차 교과서는 통합 단원은 개발되지 않고 교과서별 활동의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조하여 각 교과서별로 동일한 대단원을 배우도록 하였다. 이는 현장에서는 활동의 연계성보다는 유사 활동의 반복으로 지루함을 느끼게 한다.

D 단계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수준에서 통합하여 교육 내용을 개발하는 방안으로, 교육과정 내용이 통합되면 그에 따라 개발되는 교과서도 통합되어 개발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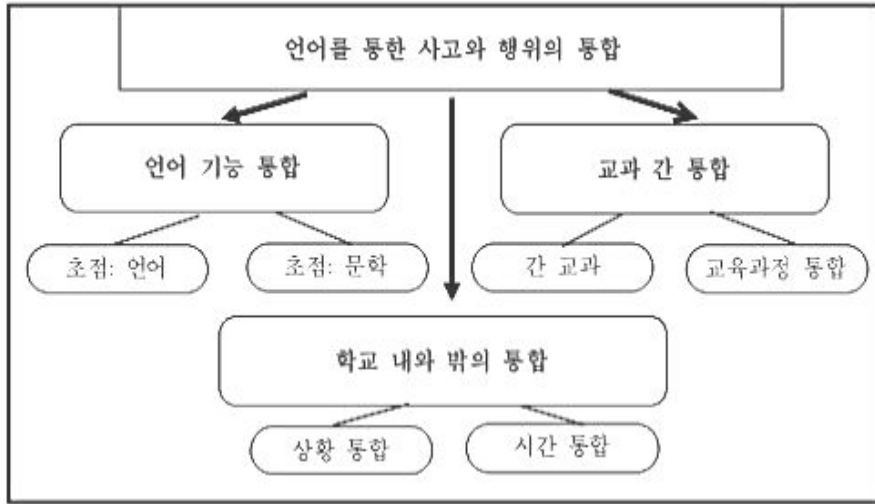
고, 교수-학습도 통합적으로 지도될 수 있다.

그러나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내용 영역은 통합되어 있지 않고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개정 교육과정에서 내용 선정 범주인 지식과 기능, 맥락을 규정하고 통어하는 범주로 ‘실제’ 범주를 설정함으로써 지식, 기능, 맥락을 통합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 내용 체계는 분석적으로 접근하였지만 학습자의 언어 경험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2) 통합교육의 유형

국어과에서 논의되는 통합교육은 어느 영역에서 논의되느냐,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이나, 그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수준, 강조하는 관점이 어떠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총체적 언어교육에서는 교과 간의 통합과 함께 교과 내의 통합을 강조하는데, 그레브렉(Gravelek et. al., 2000)은 교과 간 통합과 교과 내 통합의 개념을 [그림 2]와 같이 설정하면서 국어과 내의 언어 기능 간 통합과 교과 간 통합의 경우에도 주된 축을 이루는 것은 언어임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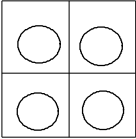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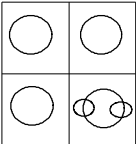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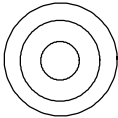
[그림 2] 통합에 대한 개념 지도

주. 출처 “통합적 국어교육의 개념과 성격” 이재승 저, 2006, **한국초등국어교육**, 31집, p. 182.

언어영역의 통합은 언어에 초점을 두는 언어 중심의 통합과 문학작품에 중심을 두는 문학에 바탕을 둔 통합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통합은 학제적인 내용의 통합과 교과 통합으로 구분된다. 학제적인 내용의 통합은 주제에 바탕을 두고 통합할 수도, 문제 해결에 중심에 두고 통합할 수도 있으며, 언어의 역할은 기능적일 뿐, 언어 자체의 탐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다. 반면 교과의 통합은 특정 교과와 국어과의 통합으로 언어활동이 중심에 놓이는 통합이다. 학교 안팎의 통합은 학교의 경험과 생활 세계의 경험을 통합하는 맥락의 통합과 시대를 통합하여 과거와 현재를 통합하는 시간의 통합이 있다.

통합의 유형으로 잘 알려진 Fogarty(1991)는 통합의 유형을 ‘단일 교과 내의 유형, 여러 교과 간의 연계를 통한 유형, 학습자 내부 및 학습자 간의 연계를 통한 유형’으로 나누고, 이 중 단일 교과 내의 유형을 <표 1>과 같이 분절형, 연결형, 동심원형으로 다시 구분하고 있다.

<표 1> 교과 내 통합 유형

유형	개념	장점	단점
분절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인 모형으로 영역을 고유하며 개별적인 것으로 본다. · 학습자에 의한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영역의 순수성이 사라지지 않고, 각 영역에 대해 명확하고도 확고한 구분을 할 수 있음 · 영역 전문가들은 전문 영역에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쉽게 구분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슷한 개념을 연관시키거나 통합하는 일이 학습자에게 맡겨져 있음 · 중복되는 개념, 기술, 태도가 학습자에게 밝혀져 있지 않고 학습한 것을 새로운 상황에 전이시키는 일의 일어지지 않음 · 학습자에게 과중한 학습량이 부과됨
연결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영역들이 여전히 분리되어 있지만 각 영역 안에서 주제 간, 기술 간, 차시 간, 학기 간 통합이 이루어진다. · 영역 내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핵심 개념이 내면화 되어 오랫동안 발전할 수 있어서 학습전이가 쉽게 일어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영역을 가로지르는 개념에 대해서는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음
동심원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가 사회적 기능, 사고 기능, 특정 내용과 관련된 기능 등 여러 개의 기능을 동시에 기른다. · 학습 목표 중심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학습이 풍부해지고 강화됨 · 많은 정보를 제한된 시간에 가르쳐야 하는 현대에 적합한 모형 · 다른 교사와 협의 없이 개별 교사가 계획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가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할 수 없게 되어 혼란을 줌

주. 출처 “국어과 교육과정의 현실과 지향” 임철성 저, 2011, 국어교과교육연구, 제18호, pp. 26-27. 재구성

이영덕(1983; 임철성, 2011, p27에서 재인용)은 통합 대상에 따른 유형을 ① 지식 내용과 지적 과정의 통합, ② 지식과 정의적 특성의 통합, ③ 지식과 행위의 통합, ④ 교과(지식) 간의 통합으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첫 번째, 지식 내용과 지적 과정의 통합은 각 교과에서 중시하는 ‘기본 개념과 원리를 정련된 탐구과정을 통해 학습하게 하고, 다시 그것을 지적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에 적용하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두 번째, 지식과 정의적 특성의 통합에 대해서는 ‘정의적 특성과 분리된 지식의 획득은 메마른 것일 뿐만 아니라 인간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보장할 수 없는 기계적인 것이 되고 말 것’이라고 단언한다.(…)

세 번째, 지식과 행위의 통합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당연히 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실천하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네 번째, 교과 간의 통합이란 앞의 세 가지의 통합, 즉 지식 내용과 지적 과정의 통합, 지식과 정의적 특성의 통합, 지식과 행위의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과의 조직 원리로 교과간의 통합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이러한 교과 간의 통합에는 소극적 통합과 적극적 통합의 두 가지가 있다. 소극적 통합이란 각 교과에서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서로 연결 지어 가르치는 방법이며, 적극적 통합이란 교과간의 구분 벽을 아예 허물고 학습자나 사회의 주요 문제를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학습 내용, 교과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김효진(2009), 박순숙(2011), 오경숙(2010) 등의 연구에 의하면, 신현재, 이재승(1997)은 통합교육의 유형을 크게 국어과 외적 통합과 국어과 내적 통합으로 나누어 <표 2>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표 2> 통합교육의 유형

유형	종류와 방법		
국어과 외 과적 통합	경험중심 의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통합 · 현실적으로 힘들고 효과에 대한 확신도 부족함 	
	교과간의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체제를 전제로 몇 개의 교과 통합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등 · 언어 사용 능력을 증진하는데 어려움 있음 	
국어과 내 과적 통합	언어 기 능 간 의 통합	부수형 통합 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역 간 통합 · 국어과 교육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분야 · 공유하는 부분이 많고, 서로 보완적이고, 실제 언어 사용 과정에서는 이들 언어 기능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구 체적인 상황 속에서 언어교육을 해야 하고, 수업의 경제성 면에서 통합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음
		목적형 통합 ⁸⁾	
	언어 기 능 내의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역 내 통합 · 철자나 어휘, 맞춤법 등 언어의 단위가 따로 지도되는 것이 아니 고 읽기나 쓰기의 특정 활동을 하는 과정 내에서 통합적으로 지도되 어야 함. · 언어의 작은 단위보다는 큰 단위를 가르쳐야 하고 상황과 관련지 어 가르쳐야 함 	

양소영(2006)은 통합교육의 유형을 ‘언어 기능 간 통합’, ‘활동 중심 통합’, ‘주제 중
심 통합’, ‘아동문학 중심 통합⁹⁾’으로 <표 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6) 이재승, 2006, pp. 176-177

7) 어느 한 기능이 우선이 되고 나머지 다른 기능은 주 기능의 보조나 심화를 돕는 역
할(김효진, 2009, p. 14)

8) 어느 기능이 우선이라 할 수 없이 읽기·쓰기가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는 활동(김효진,
2009, p. 14)

9) 이재승(2006)은 주제 중심의 통합이나 활동 중심의 통합은 언어 기능 통합적 국어교
육과 기본적으로 층위가 다른 것이며, 통합교육을 위한 주된 접근 방식으로 구별한
다. 그리고 주제나 활동 중심의 통합을 통해 언어 기능 간 통합 지도를 하고자 할 때
에 주의할 점으로 첫째, 활동 자체가 중요한 학습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둘째, 주제나
활동 중심으로 묶여진 학습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맺으며 상승효과를 일으
키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며 셋째, 주제나 활동 중심으로 묶다보면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학습 요소들이 무시되거나 소홀히 다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
장한다(이재승, 2006, pp. 187-188).

<표 3> 양소영의 통합교육의 유형

유형	개념
언어 기능 간 통합	교육과정에 명시된 언어 사용 기능의 내용 요소간의 관련성을 근거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통합적 교수-학습 모형 구안
활동 중심 통합	듣기·말하기·읽기·쓰기가 의미 있는 상황에서 실제적인 활동을 통해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면서 함께 지도되는 것
주제 중심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한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습 경험들을 선정, 조직하고, 학생 주도의 활동을 유도하며 전인적 발달을 꾀함 문학 텍스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매체 자료의 활용을 강조하며 다른 매체로 변용하는 활동으로 나타남
아 동 문 학 중심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텍스트(장르) 통합 : 상호텍스트성에 의해 복수텍스트를 교수-학습의 자료로 다루는 통합 방식 매체 통합 : 인터넷 매체, 영상 매체, 방송 매체 등을 언어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문학 텍스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매체로 접근하는 방식

이관규(2011, pp. 95-99)는 통합을 '분절되어 있는 둘 이상의 요소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크게 과목 간의 통합, 영역 간의 통합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과목 간의 통합은 다른 교과와의 통합으로, 범교과적 읽기나 쓰기처럼 도구교과로서의 성격이 나타난다. 영역 간 통합은 언어 사용 기능과 국어 지식, 문학과와의 통합과 관련된다. 그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같은 언어 기능 영역들 간의 통합을 1차적 통합 유형이라고 명명하여 영역 간의 통합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2차적으로는 이들 언어 기능 영역들과 문법 영역 간의 통합을 의미하고, 문법, 언어 기능, 문학을 통합하는 것을 3차적 통합 유형으로 구별하였다.

국어 교과서의 통합 구성 원리 측면에서 정지영(2006)은 '영역 간 통합 구성', '활동 중심 통합 구성', '학습 목표 중심 통합 구성'으로 제시한다. '영역 간 통합 구성'이란 국어 교과서의 모든 대단원을 구성할 때에는 가능한 국어교육의 6개 영역을 모두 포함하도록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활동 중심 통합 구성'은 언어 능력이 실생활과 관련하여 다양하고 실제적인 목적을 갖고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활동을 통하여 길러지기 때문에 국어교육은 의미 있는 학습자 중심의 언어활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 목표 중심 통합 구성'은 대단원에서 이루어지

는 활동은 그 유기적 구조를 파악하여 단원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학습 목표와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과서의 활동들은 유기적 구조를 따져 단원별로 하나의 단원 활동으로 통합이 되어야 하며, 단위 활동은 반드시 그 단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대단원의 학습 목표와 통합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에 명시된 언어 사용 기능의 내용 요소간의 관련성을 근거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통합인 '언어 기능 간 통합'과 듣기·말하기·읽기·쓰기가 의미 있는 상황에서 실제적인 활동을 통해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면서 함께 지도되는 '활동 중심 통합'을 아우르는 '활동 중심 영역 통합'의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다. 국어교육에서의 통합 지도의 필요성과 지도방법

1) 국어교육에서의 통합 지도의 필요성

근본적으로 언어 기능은 상호 관련을 맺으며 서로가 서로를 보완한다. 따라서 언어 기능은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는 상황을 통해 학생들의 언어사용 능력을 길러야 한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국어는 인위적으로 구분해 놓은 철자, 단어, 문장 등을 다 안다고 해서 국어를 잘 안다고 말할 수 없다.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데 사용되는 국어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양상을 이룬다.

국어과 교육이 국어사용 영역이나 기능을 분리하여 교육하는 것을 비효과적이라고 여기고 언어의 학습은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총체적 언어 학습에서도 국어과의 각 영역들을 구분하여 따로 지도할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을 함께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관점에서는 국어과 각 영역의 교육 내용들이 언어 사용 활동 속에서 함께 학습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각 영역을 구분하여 지도하는 것을 반대한다.

현대적 의미의 통합적 국어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시기는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그리고 학술지 논문에서 통합적 지도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기 시작한 1980년대나 1990년대 이후이다(이재승, 2006, pp. 188-189).

통합이 국어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평가 등을 구안할 때 중요하고 고려해야 할 원리로 자리 잡게 되면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인 7차 국어과 교육과정해설서(2001)에서도 “언어활동은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존재되지 않고 많은 부분에서 공

통점을 지니고 있으면서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효과적”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국어 활동의 총체성을 고려하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의 학습 요소를 통합하여 지도하기 위한 탐구 중심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도록 한다.”라고 제시하면서 실제와 내용 요소간의 관련성, 내용 요소 간의 통합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1, p. 15), 이에 따른 통합의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능 영역의 통합 원리로 언어의 표현과 이해 활동에 따른 통합과 음성 언어와 문자언어에 따른 통합의 두 가지 통합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문법이나 문법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과 통합하여 문법이나 문학에 관련된 담화 또는 글과 문학 작품을 읽거나 듣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셋째, 동일 영역 내 내용 요소의 통합 지도, 매체 관련 내용 요소의 영역 간 통합 지도를 제시한다.

넷째, 통합 지도 자료 개발에서는 주체를 중심으로 한 통합, 생활을 중심으로 한 통합,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통합, 다양한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통합을 제시하고 있다.

2013학년 1, 2학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통합 지도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2, pp. 14-15).

첫째, 학습 목표는 학년군별, 영역별 성취 기준과 국어 자료의 예를 고려하여 설정하되,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관되도록 한다.

둘째, 학습 내용은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각 영역별 특성을 살려 학습 목표 달성에 적합하게 선정하되, 영역 간 내용의 횡적 연계성, 학년군별 내용의 종적 연계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다.

셋째, 영역 간, 영역 내 내용 요소 중,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적합한 요소를 통합하여 지도한다.

넷째, 매체 관련 내용 요소를 지도할 때에는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과의 통합을 고려하여 지도한다.

그러나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도 7차 교육과정처럼 영역별로 나누어 분석적으로 지도하여 개별 영역의 전문적 신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실제 생활에서는 각각의 언어 자질들이 서로 상호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언어 사용으로 자동 전이되지 않는다는 점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언어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영역별 분책되어 있어 따로 지도할 수밖에 없어 언어의 총체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통합 국어교육을 위해서는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및 문학, 문법 등 영역별 내용을 모두 포함한 지도 방안이 필요하다.

신현재, 이재승(1994), 신현재 외(2001), 임미성(2002), 김미라(2007), 박순숙(2011) 등은 국어과 교육에서 통합 지도가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우리 인간은 통합을 지향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아동들이나 미숙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직 미분화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통합적으로 학습할 때 내용을 보다 쉽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둘째, 실제적인 언어사용 과정에서는 언어 기능들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셋째, 언어 기능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특정한 기능에 집중해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관련하여 가르침으로써 특정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넷째, 언어는 근본적으로 상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통합을 기해야 한다. 언어 학습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포지적 상황, 인지적 상황, 사회적 상황이 있는데(Busching, 1983; 신현재, 이재승, 1997, p. 31에서 재인용) 이들 세 측면은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다른 상황들이 긴밀히 관련을 맺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언어 학습은 다른 교과나 학습 활동과 관련지를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증진된다. 모든 교과는 언어를 기반으로 이루지기 때문에 다른 교과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양한 실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보다 언어사용 능력을 증진할 수 있다.

여섯째, 중복되는 부분을 통합함으로써 학습 양을 줄여 보다 적은 노력과 시간으로 학습자들의 언어사용 능력을 효과적으로 증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언어는 분절적이고 비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통합적이고 연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언어를 다루는 국어교육에서는 언어

를 나누어 가르치는 것보다 전체로서 가르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국어교육의 통합 지도 방법

국어과에서 주로 논의되는 통합은 국어과 내적 통합에 대한 것인데 신현재, 이재승(1997)은 통합의 방법을 순서적 방법과 동시적 방법으로 명명하고 자세한 방법을 제시하였고(박순숙, 2011, pp. 50-53에서 재인용), 김병수(2010)는 이재승의 특성 중심의 통합 지도 중 ‘교육내용 중심의 통합’, ‘학습자의 언어 사용 중심 통합’, ‘언어활동 중심의 통합’을 소개하고 있다.

가) 순서적 방법

순서적 방법은 두 가지 언어 기능이 같은 비중으로 다뤄지기 보다는 어느 한 기능에 다른 기능을 부수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재승(1997)은 요약하기, 평가하기, 심화 활동하기, 다른 장르로 바꾸기, 관련 내용 읽기, 질문 만들기 등의 활동이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하였다.

보조를 위한 통합, 심화를 위한 통합, 초인지적 능력을 기르기 위한 통합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보조를 위한 통합은 읽기 활동을 위한 보조로써 쓰기를 하거나 쓰기를 위한 보조로써 읽기를 하는 것이다. 어떤 글을 읽고 난 후에 내용을 글로 요약해 보는 활동은 글로 써 봄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명료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쓰기 능력도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심화를 위한 통합은 읽기를 한 후에 심화활동으로 쓰기를 하는 경우, 쓰기활동은 한 후에 읽기를 통해 심화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초인지적 능력을 기르기 위한 통합은 어떤 글을 읽거나 글을 쓰는데 필요한 자기 점검, 자기 평가, 자기 조정 능력을 기르기 위해 읽기와 쓰기를 통합적으로 지도하는 것이다.

나) 동시적 방법

언어 기능들이 동시에 함께 지도되는 방식으로 주제학습, 창조적 활동, 쓰기 워크숍 등이 이들 범주에 속한다.

주제학습은 어떤 주제를 정해 놓고 이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는 과정에서 언

어 기능을 동시에 기르고자 하는 활동이다. 창조적 활동은 글을 읽고 나서 이를 드라마나 미술 활동, 음악 활동 등 창조적인 활동과 관련지어 지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창조적인 활동과 언어활동을 적절히 관련지으면 학생들은 보다 흥미롭게 학습 활동에 임하게 되고 평소에는 접하지 못한 언어를 접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쓰기 워크숍은 소집단이 모여 쓰기 전체 과정에 대해 협의하면서 한 편의 글을 완성해 나가는 활동이다. 주제를 정하는 것에서부터 실제로 글을 쓰는 과정에서, 초고를 완성한 후에 서로 청중으로 봉사하면서까지 서로의 글쓰기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활동이다. 쓰기 워크숍은 협동학습의 일종으로 쓰기 활동뿐만 아니라 읽기, 말하기, 듣기 활동까지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다) 특성 중심의 통합 지도 방법

첫째, 교육내용 중심의 통합은 교육해야 할 학습 내용의 공통성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각각의 언어 사용 능력을 기르는 데 상승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비교적 구성하기가 쉽다. 하지만 연결 지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둘째, 학습자의 언어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으로, 말하기와 듣기, 읽기와 쓰기가 동시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통합이 이루어진다.

셋째, 언어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은 언어를 지식 자체보다는 활동을 전제로 하고 연계된 기능이 통합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흥미를 높일 수 있고, 기능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활동 자체에 매몰되어 활동은 왕성하나 각각의 기능이 제대로 길러지지 못할 염려가 있다.

2. 아동문학 중심의 통합의 의의

가. 아동문학의 가치와 초등학생 중학년기의 독서 선호 경향

1) 아동문학¹⁰⁾의 가치

10) 성인문학과 대비되는 아동문학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세 가지 관점이 있다. 첫째, 독

아동문학은 ‘어린이를 위해 동심의 세계를 그린 문학(선주원, 2013, p. 13)’으로 문학이라는 보편성을 지니는 동시에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수성을 함께 지닌다. 아동문학은 그 향유 주체인 어린이들의 삶과 욕망, 인지적·정서적 발달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는 문학이다. 신현재 외(2007)의 연구를 중심으로 아동문학의 가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언어 능력 발달

아동문학작품은 작가들이 풍부한 어휘와 능숙한 문장력으로, 탁월한 지성과 감성을 가지고 짜놓은 예술작품이다. 아동문학은 어린이들이 실제 생활 경험을 통해 배운 말보다 다양한 어휘를 접하게 되고 직접 경험하지 못한 추상적인 것들일지라도 그 기본적인 의미를 추론해내는 능력을 터득하게 해준다. 더 나아가 문학은 어린이들에게 설득력 있는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도 길러주며, 비유적인 언어에 대해서는 사물들 간의 외적 유사성을 통해 해석하는 능력과 표현 기법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아동문학은 언어로 된 예술이기 때문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능력을 통합적으로 신장시키는 효과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나) 인지 능력 발달

Piaget의 인지발달 단계(11)에 의하면, 아동문학의 주 독자들은 전조작적 사고기에서 구체적 조작기와 형식적 조작 전기까지 그 범주로 삼을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아동문학은 어린이의 즉물적인 단순한 사고를 논리적 사고로 키워내며, 문학작품에 형상화된 형이상학적인 여러 개념과 이상들을 수용·이해하고 적용해감으로써 인지 능력을 초보적인 형식적 조작기로까지 진일보시킬 수 있다.

특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어린이에게 자기와 다

자 대상을 어린이에게 두었다는 대상 중심의 관점, 둘째, 성인 작가가 동심 구현을 위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썼다는 목적 중심의 관점, 셋째, 아동문학도 원래 문학 고유의 보편성과 가치를 지녔다는 본질 중심의 관점이다(선주원, 2013, pp. 12-13).

11) Piaget에 따르면 어린이들의 인지발달은 다음과 같은 4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선주원, 2013, p. 34).

- ① 감각 운동(Sensorimotor): 0-2세
- ② 전조작기(Preoperation): 2-7세
- ③ 구체적 조작기(concrete operation): 7-11세
- ④ 형식적인 조작기(Fomal operation): 11/12세 이상

른 세계를 형상화하여 펼쳐 보이고, 또 다른 삶을 사는 주인공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제한된 경험 세계에 갇힌 어린이의 사고활동을 활성화시켜줄 수 있다. 설화는 어린이들에게 환상적인 세계를 경험시켜 줄 수 있는 훌륭한 소재가 된다.

다) 감성 지능 수준 발달

어린이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접함으로써 자기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고 그와 유사한 경험을 겪는 주인공과 동일시하여 자신의 상황을 분석할 수 있고, 이야기의 전개 과정의 반복 효과와 인과관계의 긴밀한 짜임으로부터 묘미를 맛보게 된다. 게다가 갈등 해소의 전개과정에서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이 되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희로애락을 느끼면서 주인공의 행동이 적절하고 타당한 것인가를 판단하게 된다. 이처럼 아동작품을 통해 감성 지능의 수준을 높여 보다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라) 사회성·도덕성 발달

어린이들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의 모습을 보면서 보다 폭넓은 사회의 모습을 배우고 살아가는 도리를 터득하게 된다. 여러 가지 가치관을 지닌 등장인물들을 보면서 대부분 선에 속한 주인공에 동일시되어 삶의 바른 가치관과 도덕적 기준을 터득하는 데 도움을 얻게 된다.

아동문학교육은 어린이들이 아동문학을 듣거나 읽음으로써 시작된다. 문학작품을 매개로 하여 작가와 독자인 어린이가 역동적인 소통을 함으로써, 어린이들이 문학작품에 대한 이해와 삶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여 자아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선주원, 2013, p. 37).

이와 같이 아동문학이 국어과의 목표인 언어 사용 기능 신장, 문학 영역의 목표인 아름다운 정서와 풍부한 상상력 고양, 삶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 판단력 기르기 등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아동문학 중심의 통합교육이 필요하다.

2) 중학년기 어린이의 독서 선호 경향

어린이의 읽기 흥미와 독서 선호도에 있어 가장 뚜렷한 변화를 보이는 요인은 연령인데 Carol Lynch & Carl M. Tomlinsion(1999; 신현재 외, 2007, p. 40에서

재인용)에 의하면 중학년기(만7-9세)는 대체로 풍부한 문학 경험의 이로움을 맛본, 비교적 유창하고 능동적인 독자들이라고 한다. 이 시기에는 비교적 단순한 플롯과 문체를 지닌 책들이 선호의 대상이 되고, 마음에 드는 책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경향과 새로운 유형의 이야기를 즐겨 감상하려는 경향이 있고 모험이야기를 좋아한다.

신현재 외(2007, p. 43)에서는 동화를 좋아하는 시기를 초등학교 학령기 기준으로 우화기(만4-7세), 동화기(만 7-9세), 소설기(만9-12세)로 구분하였는데, 동화기 시기에는 자기중심적 심성에서 조금씩 벗어나 설화 의한 현실의 재구성을 즐기게 되는 단계이다. 또한 동화 세계에서 자기생활의 단순한 재확인에 그치지 않고 타인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현실을 배우기를 좋아하는 시기라서 자기생활의 공간을 확대하면서, 차츰 새로운 것을 자기 주도적으로 대하며 스스로 가치 적용도 해보는 힘을 길러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중학년기의 어린이들은 현실을 바탕으로 한 판타지적 요소를 지닌 내용을 좋아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자신의 행동에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인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판타지적 요소가 풍부한 설화를 활용한 아동문학 중심의 통합 수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나. 아동문학 중심 통합 언어 교육의 의의

김상욱(2008)은 언어활동을 중심에 둔 교육적인 영역의 통합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그레브렉(Gravelek et. al., 2000)의 국어과 내의 언어 기능 간의 통합을 소개하고 있다. 언어 기능간의 통합을 언어 중심의 통합과 문학에 바탕을 둔 통합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중 문학에 바탕을 둔 통합을 논의하면서 그 의의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문학작품은 학교 교육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가상의 언어자료가 아닌 실질적인 언어자료이며, 고립된 질문이 아닌 삶의 의미로 충만한 질문과 대답으로 가득 차 있고 여타의 폭 넓은 교육과정으로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을 풍부하게 가진 언어자료이다. 통합이 실질적이고, 의미 있으며, 효율적인 교육을 지향한다면, 문학작품이 이들 세 가지 요건을 고루 갖추었기에 문학에 바탕을 둔 통합은 통합의 중심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따라서 아동문학도 문학의 한 분류이기 때문에 이러

한 문학 중심의 통합과 의미가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아동문학 중심의 통합의 이론적 근거는 문학에 바탕을 둔 교육을 들 수 있다. 문학에 바탕을 둔 교육은 교육을 보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동시에 인간의 발달을 보는 관점과 결합되어 총체적 언어교육과 교차하면서 진전되어 왔다. Au & Raphael(1998)은 문학을 통한 교육의 목적이 “학습자들을 문학과와의 만남을 통해 문학을 향유하고 배우는 능력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Purves(1993)는 문학이야말로 ‘중요한 문화적 표현이며, 학습자들에게 자신의 문화와 자신을 둘러싼 문화들을 이해시키는’ 가장 적합한 문화적 실체임을 밝히고 있어 문학을 통해 학습자들은 언어 속에서 자아와 타자를 향한 문화적 훈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김상욱, 2008, p.475).

문학을 통한 교육은 교과서를 거부하고 현실 속에 존재하는 텍스트, 곧 문학작품을 활용한다. 문학작품을 중심에 두고 읽기와 쓰기를 통합하고, 언어활동 영역 전반을 통합하며, 교과를 통합하고 학교와 사회를 통합하며, 학습자의 학습과 삶을 통합하는 것이다.

황정현(2001)은 문학은 언어라는 매체를 통하여 삶의 본질을 인식하게 하는 통로를 마련하고 삶을 변화시키고 감정이입을 통해 대리 경험의 세계를 전개함으로써 자신과 타인 혹은 세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발견하고 정서를 함양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학을 올바르게 교육하는 것은 문학작품을 단순히 언어교육 자료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작품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언어 기능, 상상력, 창조성, 인성 교육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그는 총체적 언어교육을 위한 중요한 텍스트로 동화를 들고 있는데, 동화는 잠재된 상상력을 끌어내어 다양한 반응을 하게 하는 중요한 텍스트이며, 동시에 다양한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매체, 즉 시각적, 청각적, 몸짓 언어 등이 내재되어 있어 총체적 언어교육을 위한 좋은 자료이다.(2001, pp. 42-43). 동화교육에 사용될 수 있는 매체의 활용은 비언어적 활동과 언어적 활동, 소리표현 활동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활동은 통합적으로 운영될 때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수진(2007)도 문학작품은 통합 교재를 조직하는 가장 적합한 텍스트로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동시에 총체적으로 학습하는 통합 교재의 기본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한다고 하였다. 또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들을 상호텍스트적으로 끌어오는 구심점으로도 유용하다(오경숙, 2010, p.18).

우리의 언어생활은 총체적 성격을 띠며 국어는 언어의 하나로서 국어생활 역시 총체적 성격을 띤다.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일련의 외현적 일상 국어생활은 본질적으로라기보다는 통합적인 양상으로 이루어진다. 문학도 예술적 언어를 사용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언어는 어떤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활동과 관련지을 때 학습자에게 더욱 의미 있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다. 언어 학습을 의미 있는 활동과 관련지으면 학생들은 재미있어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서사문학의 한 분야인 설화는 조상의 문화를 체득할 수 있고 도덕적인 교훈성을 갖는 이야기로, 학습자들 스스로 구연할 수 있어 언어 사용 기능 신장에 도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설화는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 초등학교 어린이를 위한 문학 교재로서의 알맞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통합 지도의 중요한 텍스트로 사용하고자 한다.

3. 설화교육의 의의와 제주설화

가. 설화의 이해와 가치

설화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이야기되고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일반 민중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면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로, 줄거리 중심으로 되어 있고 사건이 단순·명쾌하고 작품의 정경이나 작중인물의 성격에 대한 묘사가 거의 없다.

설화는 개인의 창작물이 아니라 민족적 집단의 공동생활 속에서 공동심의회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문자 기술 이전의 구비문학으로, 그 속에는 민족의 역사, 신앙, 관습, 세계관 및 꿈과 낭만, 웃음과 재치, 생활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나 역경을 이겨내는 슬기와 용기 등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박신영, 2008, p. 11).

장덕순, 조동일, 서대석, 조희웅(1971)의 연구에 참고로 하여 설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화는 문자 그대로 '이야기'를 말하지만 일정한 구조를 가진 꾸며 낸 이

야기이기 때문에 일상 신변잡기나 역사적 사실, 현재적 사실을 말로 전한다고 해서 이들을 설화의 범주에 넣지는 않는다.

둘째, 설화는 구전된다는 데 있다. 설화의 구전은 일정한 몸짓이나 창곡(唱曲)과는 관계없이 보통의 말로써 이루어지며 이야기의 구조에 힘입어 전승된다. 그렇기 때문에 설화는 구전에 적합하게 단순하면서도 잘 짜인 구조를 지니며, 표현 역시 복잡하지 않다. 이 점이 구조와 표현에 있어서 복잡성과 특수성을 갖는 소설과는 다른 점이다.

셋째, 설화는 율격을 가지지 않고 보통의 말로써 구연되기 때문에 산문적 속성을 지니는데, 규칙적인 율격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서사민요·서사무가·판소리 등과 같은 율문서사(律文敍事) 장르들과 구분된다.

넷째, 설화는 이야기를 하고 들을 분위기가 조성되면 언제든지 구연될 수 있는데, 이 점에서 어느 일정한 기회에 구연하는 노동요·무가·가면극과 다르다.

다섯째, 설화는 반드시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서 화자가 청자를 대면하여 청자의 반응을 의식하면서 구연된다.

한 민족 사이에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의 총칭인 설화는 크게 신화·전설·민담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²⁾

신화(神話, myth)는 ‘신에 관한 이야기’ 또는 ‘영웅의 이야기’로, 인간을 초월한 저 높은 곳의 힘이나 섭리, 또는 신성을 내재한 인간의 이야기이다. 민족 사이에 전승되는 신적 존재와 그 활동에 관한 이야기로서, 이에는 우주의 생성과 종말에 관한 우주신화와 천지·일월·성신에 관한 천체신화 및 건국신화와 시조신화 등이 있다. 서술 방법에 따라 신의 상태·동작·성질 등을 설명하는 설명적 신화와 신의 기원·유래 등을 추설(推說)하는 추원적(推原的) 신화로 나눌 수 있다. 신화는 ‘일체화’ 즉 ‘동화 체험’을 지향하여 ‘나 이상의 나’로서의 신령한 주인공에 자신을 합치시키는 과정에서 자아의 한계를 넘어서 삶의 승격과 완전성을 실현하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신화는 공동체적 질서가 살아 있던, 자아와 세계가 동질적인 시대의 산물로 최초의 서사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전설(傳說, legend)은 ‘세속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로, 믿기 힘든 기이한 내용을

12) 신화, 전설, 민담의 차이점에 대하여 최운식(1991, pp. 17-21)과 신현재 외 2인(2007, pp. 162-163)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하여 기술하였다.

담고 있다. 신격(神格)을 주체로 할 필요가 없고, 인간과 그 행위를 주체로 하는 이야기인데 증거물과 결부되어 실제 있었던 것처럼 전해진다. 전설은 신화시대에서 자아와 세계의 동질성을 보장해주는 공동체적 유대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자아와 세계 사이에 이질적인 대립이 생기면서 발생되었다. 지역적 전설, 전국적으로 널리 퍼진 전설, 역사적 인물에 관한 전설로 대별되는데 인물 전설이 흥미 위주로 재편되면 민담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민담(民譚, folktale)은 ‘재미나게 꾸며진 상상의 이야기’로, 신화의 신성성과 위엄성 및 전설의 신빙성과 역사성이 희박하고, 흥미 위주로 된 일종의 옛 이야기이다. 민담은 전설과 달리 개인적 이야기 측면이 강하고, 주인공은 신화적 능력을 타고난 자가 아니며, 자기에게 닥친 난관을 신화적 능력으로 극복하지 않고 일상적 인간의 지혜와 우연한 행운으로 극복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차이점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¹³⁾

13) 장덕순 외(1971), 고희주(2003)와 문해란(2005)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하여 기술하였다.

<표 4> 신화·전설·민담의 차이점

구분	신화	전설	민담
전승자의 태도	· 진실하고 신성하다고 믿음 · 단군신화	· 진실하다고 믿음 ·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함	· 신성하거나 진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먹을 적에……”
시간과 장소	· 아득한 옛날 · 태초에 일어난 일 · 신성장소(단군신화의 태백산·아사달)	·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 “숙종대왕 시절 서울 남산골에……”	· 뚜렷한 시간과 장소가 없는 것이 보통
증거물	· 매우 포괄적(천지, 국가 등)	· 특정의 개별적 증거물(자연물, 인공적인 것, 인물 등)	· 널리 존재할 수 있는 현상(수숫대가 빨강다든가, 수탉이 하늘을 보고 운다는 것 등)
주인공 및 그 행위	· 보통사람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신성한 자 · 그의 행위: 신이 지닌 능력의 발휘	· 구체적·역사적 인물 · 그의 행위: 인간과 인간 또는 인간과 사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예기치 않던 관계	· 일상적인 인간 · 그의 행위: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것
전승의 범위	· 민족적인 범위 · 민족의 고대사, 실제적인 혹은 가상적인 역사와 관련, 민족적 융합을 위해서 신성성이 작용	· 증거물의 성격상 대체로 지역적인 범위	· 어느 지역이나 민족으로 한정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분포 · 개인적
기능	· 전승집단의 신앙 · 집단 단결의 핵심적 역할	· 지역 주민들의 유대감 형성, 애향심 고취	· 흥미 본위의 사교적 교환물, 문학적

이와 같이 설화는 신화, 전설, 민담의 세 가지로 분류하지만 뚜렷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우며 서로 넘나들기도 하고 상호 전환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세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설화라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설화는 인간 생활의 모범적 모델을 고정시켜 주는 기능을 하며, 풍속을 고정시키고 의미 있는 인간 활동을 위한 행위의 모범을 설정하고, 어떤 제도에 위협과 중요성을 부여하는 규범적인 힘을 기르는데 도움을 준다. 그리하여 바람직한 행위

를 유도하고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규제하여 사회를 자연스럽게 통제하는 구실을 하게 된다(고희주, 2003, pp. 9-10).

설화의 가치를 신현재 외(2007)의 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화는 사람의 입말을 통해 구비 전승되어 오던 문학 작품으로 전승자들의 재화와 각색을 통해 재구성되어온 집단적 창작품으로서 가치가 있다.

둘째, 설화는 말로 표현된 것이므로 청자와 독자는 이를 통해 언어능력을 기를 수 있다. 특히 이야기하는 사람이 구연을 통해 청자에게 들려주고 다시 청자가 이야기꾼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승자들의 구연 능력 신장에 중요한 몫을 한다.

셋째, 설화 속에는 어린이들에게 삶의 부정적 본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어 인간의 내면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준다. 뿐만 아니라 설화를 통해 무의식적 내용을 환상으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 억압에 대처하여 어린이 스스로 발견하지 못한 상상력을 불러일으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넷째, 미묘하고 암시적인 방식으로 도덕적 행위의 이로움을 알려 도덕 교육에 도움이 된다.

다섯째, 조상들이 겪어 온 삶의 다양한 체험, 사상, 감정, 지혜, 용기, 가치관이 설화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설화를 통해 한국인다운 삶의 방식을 배우고 한국적 정서와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다.

이야기의 교재이면서 시적인 산문문학인 설화는 동시에 조상의 문화를 체득할 수 있고 도덕적인 교훈성을 갖는 이야기로, 어린이들 스스로 구연할 수 있어 언어 사용 기능 신장에 도움을 준다.

나. 설화교육의 의의와 제주설화

1) 설화교육의 의의

설화는 옛이야기이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어린이들과 어른들에게 여전히 생명력을 지닌 이야기로 들려지고 읽혀지기 때문에 현재진행형이다(신현재 외, 2007, p. 185). 또한 설화는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어린이를 위한 문학 교재로서의 알맞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어 매 교육과정기에서 교재화하여 교과서에 수록되고 있다(문해란, 2005, p. 5). 이러한 설화교육의 의의를 박신영

(2008), 전수지(2008)와 이선영(2010)의 연구를 토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¹⁴⁾

첫째, 설화교육은 창작의 개방성으로 인해 문학적 상상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실제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경험담에서부터 허구적 내용을 가미한 초현실적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설화의 세계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서사적 말하기를 총체적으로 아우르고 있다. 말을 통해 전승되는 유동적인 과정에서 실제로 들은 대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연자가 자기대로 보태기도 하고 고쳐 넣기도 하면서 무의식으로 이루어지든 의식적으로 시도되든 창작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있게 된다. 언제든지 원하는 방향으로 창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작품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가치관을 가지고 작품을 감상, 비판할 수 있다. 학습자는 설화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상상을 할 수 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비현실적 공간을 배경으로 하거나, 동물을 의인화하여 인간 세계를 풍자하는 설화의 내용 자체는 학습자가 상상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상상력을 자극한다.

둘째, 설화는 구전됨으로써 그 존재를 유지해 가는 과정에서 언어 사용 능력과 상호 의사소통 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 설화는 음성언어로 구현되기 때문에 언어 사용 능력과 필연적인 관계를 가진다. 누구나 화자나 청자가 되어 말하고 들을 수 있으나 반면 상대가 없는 일방적 상황에서는 구연이 불가능하다는 상호 소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이야기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화자와 청자의 인간관계를 보다 깊게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구연의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학습자는 자연스럽게 말하고 듣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설화의 이야기 구조를 통해 서사구조를 체득할 수 있다. 설화는 구전됨으로써 그 존재를 유지해 가는데, 설화의 구전은 보통의 말로써 이루어지며 이야기의 구조에 힘입어 전승된다. 그렇기 때문에 설화는 오래 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유형화하여 구전에 적합하게 단순하면서도 잘 짜인 구조를 지니며, 표현 역시 복잡하지 않다. 이러한 구조가 기억, 구연, 재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장치로 학습자는 설화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서사구조를 체득할 수 있게 된다.

14) 박신영(2008, pp. 11-21), 전수지(2008, pp. 9-13), 이선영(2010, pp. 16-20)의 연구를 재구성하여 기술하였다.

자연스럽게 습득한 서사구조는 다른 문학작품을 이해하거나 논리적 사고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설화 문학은 구전으로 인해 언어 사용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고 구연자의 개성을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어 창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제주설화의 성격과 의의

우선 제주신화는 어느 신화에도 비길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삶과 친밀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리스와 중국 신화가 우주와 인간 역사의 운행 질서를 주된 테마로 하는 거대담론적인 설화라면, 제주신화는 소박한 민초들의 애환을 그린다는 점에 서보다 인간적인 정감이 느껴지는 설화이다. 제주 신들은 대체로 보통 사람과 별로 다름이 없는 소박한 인생을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야야 차세의 직능신이나 마물의 당신으로서의 신격이 주어진다(양영수, 2011, p. 1).

특히 여성성의 회복이라는 면에서 볼 때 제주신화에는, 대부분의 신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남성지배-여성순종이라는 익숙한 질서에 대한 위반과 전복의 행위들이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제주의 신화에는 많은 여신들이 중요한 직능을 가지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존재한다. 총맹부인은 남편신과 함께 천지를 창조한 여신이며 자청비는 농경생활을 시작하게 한 농경신이다. 가문장아기는 가난한데다 여자라는 약자의 운명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행운과 부를 일구었고 벽랑국 세 처자는 오곡과 가축을 가지고와 탐라국을 개국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설문대할망은 제주도를 만들고 육지까지 다리를 놓으려 한 창조적인 여신이었으며 영등할망은 한 해의 바다살림을 풍요롭게 해주는 바다의 신이었다.

이처럼 제주신화에는 남녀, 더 나아가 인간평등의 모습들이 신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어, 인간존중이나 자유와 공정함에 대한 추구하고 실천이 제주라는 사회 집단 내에 오래도록 내재되어온 역사적인 정신성임을 확인받을 수 있기도 하다(김정숙, 2012.1.3.).

제주도처럼 공간적으로 고립된 섬 지역인 경우, 그런 자연환경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독특한 문화, 신화를 형성하게 되면서 형상적 표현이나 이미지의 성취에서는 빈약하지만 삶의 제반조건에서 만들어낸 구조의 일관성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오

히려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지리적, 역사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제주설화는 본토와 공통된 것을 가지면서도 제주 특유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제주설화의 성격을 신화, 전설, 민담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현용준, 현승환, 1996, pp. 9-11).

첫째, 제주신화에는 문헌신화로 삼성신화, 구전신화로 본풀이¹⁵⁾라고 하는 무속신화가 있다. 삼성신화는 세 신인을 양을나, 고을나, 부을라 순으로 기술한 고려사(高麗史) 계통과 고을나, 양을나, 부을나 순으로 기록한 영주지 계통으로 나눌 수 있다. 본풀이는 심방[巫堂]¹⁶⁾이 굿을 할 때 제상(祭床) 앞에 앉아서 의례의 한 형식으로 노래하는 신의 내력담이다. 이들 신화들은 어느 것이나 주인공의 출생·성장·고행·결연 등 파란만장한 삶을 그려 나가고 끝에 가서 신으로서의 직능을 차지한다.

이러한 본풀이를 현용준, 현승환(1996)과 박희순(2003)의 연구를 참고로 구분하여 보면 <표 5>와 같다.

15) 본풀이는 ‘본(本)’과 ‘풀이’의 복합명사로, 본은 ‘근본, 본래, 본초, 본원’ 등의 뜻으로 신의 내력을 의미하고, ‘풀이’는 풀다[解]의 전성명사로서 ‘해설, 해석, 설명’이라는 뜻으로(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0, p. 53), 신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니 신화이다(김정숙, 김정숙의 제주신화 11, 2012, 제주의 소리).

16) 한국 본토에서는 무격(巫覡)을 무당, 만신, 박수, 당골, 무녀 등 지역과 성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제주도에서는 심방이라 통칭한다(현용준, 1986, p. 40).

<표 5> 제주 신화와 본풀이

신화구분	본풀이 구분	특징	전래 동화
개벽신화	천지왕 본풀이	대표적인 천지창조 신화 제주도 큰곳의 서막인 초감제의 맨 앞에 열리는 굿거리	대별왕 소별왕
	초공본풀이	무조신(巫祖神)의 내력담	
일반신화	이공본풀이	서천꽃밭 맑은 꽃감관의 내력담	·일반적인 자연 현상이나 인문 사상, 인간의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열 두 신의 이야기
	삼공본풀이	재앙과 복을 주는 신의 내력담	·전도 공통적인 내용
	삼승할망 본풀이	아기의 무병장수와 자식을 점지해 주는 신의 내력담	
	미누라본풀이	마마신의 내력담	
	세경본풀이	농경 목축의 신 내력담	자청비와 문도령
	차사본풀이	저승 차사(差使)의 내력담	
	맹감본풀이 (스만이본풀이)	맹감(冥官) ¹⁷⁾ 을 청하여 모시고 한 해 동안의 무사 안녕과 생업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	
	지장본풀이	기구한 운명을 극복하고 불공을 드러 새의 몸으로 탄생한 지장신의 내력담	
	문전본풀이	문신과 조왕신의 내력담	
	철성본풀이	집안의 부와 곡식을 수호해 주는 사신(蛇神) 철성의 내력담	
	당신화	당본풀이	·마을수호신인 당신(堂神)의 내력담 ·마을마다 다름
조상신화	조상신본풀이	·한 집안의 수호신에 관한 이야기 ·각 집안마다 다름	
시조신화	삼성신화	·10여 개 문헌에 전해짐 ·삼성혈, 삼사석, 혼인지, 황루알 등 증거물 존재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
	설문대할망	·천지창조신화, 거녀설화, 거인설화	설문대할망

주. 출처 교육연극 방법을 통한 제주설화의 교재화 방안 연구(p. 57) 박희순. 2003. 재구성 둘째, 제주의 전설은 자연전설·역사전설·신앙전설이 골고루 풍부하게 전승되고

17) 맹감은 명관(冥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명관(冥官)은 지옥에서 중생의 죄를 재판하는 관리를 이른다(한국민속대백과사전-한국민속신앙사전-무속신앙-무속제의).

있다. 자연전설에는 동굴·암석·연못에 대한 전설에 특이한 것이 많고, 역사전설에는 관원·이인(異人)·장사·여걸 등에 대한 전설에 특이한 것이 발견된다.

셋째, 제주의 민담은 제주의 자연적 환경, 역사적 배경, 생활양식 등과 어우러져 탄생된 것들이므로 본토의 것들과 비교할 때 변이형의 모습을 갖는다.

이러한 제주설화에는 제주인의 생활상과 세계관이 반영되기 때문에 제주설화의 학습은 설화교육의 의의를 포함하여 제주인의 독특한 삶의 지혜를 계승·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제주설화를 학습 자료로 이용한다면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유발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제주설화를 활용한 국어과 통합 지도 방안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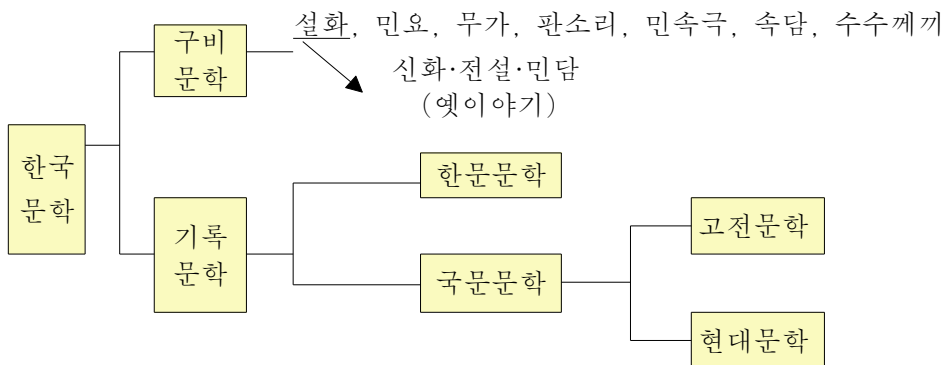
제주설화 중심의 통합 지도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아동문학과 제주설화의 관계를 먼저 살펴본 후에 아동문학 중심의 통합 지도의 원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 선정기준에 따라 학습 자료로 사용할 제주설화에 대해 분석하고, 초등 국어과 교육 목표와 해당 학년의 영역 별 성취 기준,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서 통합 지도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설화 중심의 통합 지도 원리

가. 아동문학과 제주설화

아동문학은 그 향유 주체인 어린이들의 삶과 욕망, 인지적·정서적 발달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는 문학이다.

줄거리 중심으로 사건이 단순·명쾌한 말로 전달, 전승되는 구비문학으로서의 설화가 한국문학에서 위치는 [그림 3]과 같고, 아동문학의 갈래로서 위치는 <표 6>과 같다.



[그림 3] 한국문학에서의 설화의 위치

주. 출처 아동문학과 교육 (p. 161) 신헌재 외 2인 저. 2007. 서울: 박이정

<표 6> 아동문학의 갈래

구분	종류
서정문학	동요(전래동요, 창작동요), 동시(자유동시, 산문동시), 동시조(3장동시조, 사설 동시조)
서사문학	옛이야기(설화), 그림동화, 환상동화, 인물이야기, 역사동화, 청소년소설
극문학	아동극(무언극, 독백극, 촌극, 가극), 어린이 시나리오, 어린이 드라마 대본

주. 출처 교육과정개정에 따른 아동문학교육론(p. 21) 선주원 저. 2013. 서울: 박이정

구비문학으로서의 설화는, 과거에 의하여 현재를 설명하고, 현재에 의하여 미래를 설명하여 어느 개인이나 집단은 단절된 시기에 고립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길게 연결된 하나의 고리라는 연대 의식과 유대감을 갖게 된다(고희주, 2003, p. 10). 설화는 원래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른들을 위한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들 가운데 일부가 어린이들의 흥미와 관심사에 부합하는 것들이 있었다. 요즘은 어린이를 위한 설화를 옛이야기¹⁸⁾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문학에 한 분야를 차지하는 설화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까닭을 살펴보면

첫째, 어린이 자신이 영위하는 삶의 구조가 <표 7>과 같이 설화의 구조와 친근하다.

18) 신헌재, 권혁준, 곽준옥(2007)은 신화, 전설, 민담을 모두 이르는 말로 옛이야기로 정의하고 있다.

<표 7> 설화 구조와 어린이의 삶의 구조의 친연성

설화의 구조	어린이의 삶의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을 통해 인물을 형상화 한다. · 인물과 배경의 개별적 속성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사건을 이야기거리로 삼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는 사건을 통해서 인물과 배경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 출생과 함께 어린이가 제일 먼저 마주치는 것은 사건이다. 끊임없는 사건의 경험을 통해 인물도 알아차리고 배경도 눈여겨보게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인간 행위의 한 유형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 배경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전형적 인물이 이끌어가는 유형적 사건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들이 경험하는 사건은 어떤 방식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 사건이다 · 어린이들이 삶에서 겪는 각각의 사건은 한정된 몇 가지 유형으로 전개된다.

주. 출처 **아동문학과 교육**(p. 187) 신현재 외 2인 저. 2007. 서울: 박이정

둘째, 오늘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설화는 전승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 중에서도 정수라고 할 만한 것만 가려 뽑은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것이다(신현재 외, 2007, pp. 187-188).

본 연구에서 통합교육의 방안으로 제주설화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 자율화의 기본 취지를 살펴보면 단위 학교가 역점을 두는 특색 있는 교육 활동을 위한 수업 시수 확보가 용이하도록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창의적 교육 활동이 가능한 교과는 창의적 재량활동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09, p. 38).

둘째, 2011 제주교육과정지침을 보면, 국어의 교육 중점 중 ‘사) 제주도에 전해 오는 이야기와 노래 이해 및 감사 태도 기르기’로 정한 후 ‘다. 운영방법 : 마) 전해 오는 제주도의 문화 자료를 많이 활용하도록 하며, 국어 순화 또는 토박이 우리말을 찾아 익히고 계승시키려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라고 하여 제주지역의 문화소재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1, pp. 14-15)

또한 2012 제주도교육과정 운영지침(p. 15)에도

5. 국어

라. 지역화 할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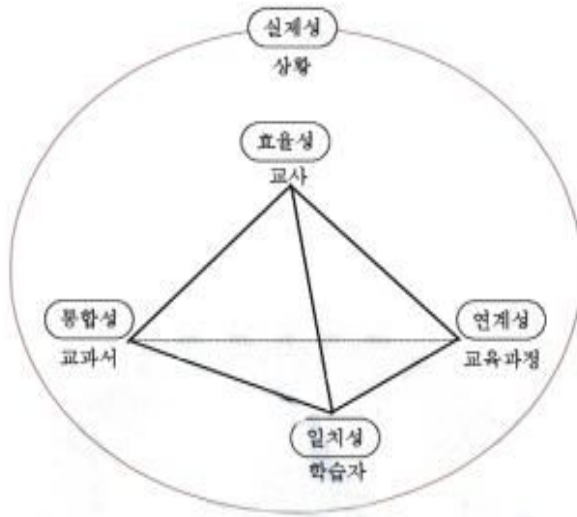
- 1) 제주지역을 소재로 한 동시, 동화책 읽기를 권장한다.
- 2) 제주어를 사용할 기회를 확대하고, 제주 지방의 설화, 민요, 민담 김만덕의 전기 등 제주의 나눔과 배려 이야기를 소재로 한 교육활동을 전개한다.

라고 제시하여 제주설화를 활용한 통합 지도 방안 구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셋째, 설화는 문자언어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음성언어로써 전승되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온 구연되는 문학이기에 말하기·듣기 등의 능력을 키울 수 있고, 기록된 문학으로서의 설화는 읽기·쓰기·문화적 감상력 등의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설화에 대한 교육은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여 학습자 스스로 설화를 체험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의사소통의 언어적 감수성을 신장시킬 수 있고 상상력과 창의력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설화 중에서 우리 고장의 정서와 문화가 전승되어 온 제주설화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독특하게 형성되어 왔고 현재도 생명력을 지니고 구전되고 있으며 문학적 상상력을 보여주고 내용 또한 풍부하여 학습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나. 설화 중심의 통합 지도 원리

김병수(2010)는 통합적 국어 수업을 이루는 구성 요인으로 교육과정, 교과서, 교사, 학습자, 상황 등 다섯 가지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통합적 국어 수업의 원리를 내용과 목표의 연계 원리, 학습 목표 통합의 원리, 효율성 강화의 원리, 학습과 경험 일치의 원리, 실제성 강화의 원리 등 다섯 가지로 설정하였는데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고,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4] 통합적 국어 수업의 원리

주. 출처 **초등학교 국어과 통합적 수업 방안 연구**. (p. 107) 김병수 저.
2010. 한국교원대학교

1) 내용과 목표의 연계 원리

국어과 교육과정은 영역별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국어과의 영역을 통합한 수업을 설계하고자 할 때는 영역별로 유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가르쳐야 한다. 또한 영역의 통합을 의도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별 교과서에 제시된 목표에 대한 통합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2) 학습 목표 통합의 원리

통합적 국어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의 단원 학습 목표의 통합을 통해 통합적 국어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언어 사용 활동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원적 통합'과 '이원적 통합'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일원적 통합은 국어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언어활동이 유사할 때, 또는 동일한 활동 내용 요소를 통합하여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기능이 비슷하거나 동일하기 때문에 언어활동을 통합하여 교수-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예를 들면, 동일한 이해 활동인 읽기와 듣기를 통합하여 가르치거나, 동일한 표현 활동인 말하기와 쓰기를 통합하여 가르치는 경우를 말한다. 일원적 통합은 서로 유사한

활동을 통합하여 다루기 때문에 학습의 효과나 시간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원적 통합은 두 가지 이상의 학습 목표가 선후 관계를 가지면서 활동을 할 때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선과 후는 발생에 시간차가 있어 활동이 시작하여 일단락되기까지 일련의 시간적 순서로 간추려 내는 것이 가능하다. 활동은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고, 번갈아 할 수도 있다. 각각이 어느 정도 학습이 되면 양자-다자-의 공통점을 인식시킴으로써, 전이 효과가 일어나게 하여 활동의 성격을 확실히 학습하도록 하는 방향의 통합이 가능한 수업이다. 이 통합은 이해와 표현이 통합되는 것으로 두 가지 영역이 나란히 연결되어 학습되는 방식으로 통합할 수 있다. 음성언어로서 듣기, 말하기가 통합될 수 있으며, 문자언어로서 읽기, 쓰기가 통합될 수 있다.

3) 효율성 강화의 원리

교사의 국어관이나 국어 교육관은 수업 전반에 걸쳐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통합적 국어 수업은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수업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이해와 표현 영역을 따로 지도하기보다 통합하여 지도하면 학습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 글을 이해하는 읽기와 생각을 표현하는 쓰기 교육을 통합하면 표현과 이해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언어 기능들은 각각의 기능을 홀로 적용했을 때보다 연결을 하여 지도할 때 상승효과를 일으켜 학습의 효과가 높아질 것이다.

통합적 국어 수업을 통하여 효율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사는 통합적 국어 수업을 진행하는 조절자의 역할과 학생들이 그 테두리 안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언어를 경험할 수 있는 풍부한 기회를 제공하고, 영역을 통합시켜 학생들이 의미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4) 학습과 경험 일치의 원리

학생들은 학습을 통해 의미를 만들어낸다. 의미 있고 기능적이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의 발전을 이룬다. 언어를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은 읽고, 듣고, 쓰고, 말하는 모든 실제 의미 있는 상황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활동들은 삶과 관련 있는 것이어야 한다(이경화,

2006, 재인용). 국어 수업은 학생들의 삶과 언어 학습 경험이 일치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언어활동은 삶과 연관되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통합 수업이 의의를 갖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경험과 학습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하고, 학습자의 경험과 학습 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해야 한다.

통합적 국어 수업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구체적인 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수업의 내용이나 방법이 학생들의 경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그래서 학습자의 삶 속의 경험과 학습 활동을 통합하여야 한다.

4) 실제성 강화의 원리

의미 있는 학습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의 상호교섭을 통해 일어난다. 따라서 학생 개인들에게 얽혀 있는 개별적인 삶의 맥락을 국어 수업의 장으로 끌어 들여올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삶과 연관시켜 자기와 소통을 하기도 하고 다른 학생들과 소통을 하기도 한다.

언어의 사용은 결국 삶에서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국어 수업의 상황은 실제성을 띠어야 한다. 언어활동의 실체는 언어의 사회적 맥락에 바탕을 둔다. 그리고 실제 삶에 대한 의사소통 감각을 익힐 수 있는 문제 해결의 상황을 중시한다. 따라서 통합적 국어 수업은 실제 생활에 바탕을 둔 의사소통의 속성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2. 제주설화의 선정기준

가. 설화의 선정 기준 선행 연구 고찰

신현재 외(2007)는 설화는 마땅히 보존해야 하나 지키기만 할 것이 아니라 알맞은 손질도 필요한데, 이어받기 위해 지켜야 할 요소와 경계해야 할 요소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우선 설화에서 지키고 살려야 할 요소로는 민중성 이어받기, 교훈성 이어받기, 초현실성 이어받기, 형식미 이어받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둘째, 경계해야 할 요소로는 경직된 충효와 공경, 정절과 복종 같은 전통 이념과 옛이야기에 뿌리 깊이

자리 잡은 성차별 의식을 들고 있다.

최운식, 김기창(1988)은 좋은 옛이야기의 요건으로, 첫째, 우리 조상들의 생활의 멋과 지혜, 꿈과 소망, 웃음과 재치, 해학과 풍자가 잘 드러나는 것, 둘째, 어려움을 극복하는 의지와 용기를 이야기한 것, 셋째, 효도와 우애, 신의, 협동 등을 이야기한 것으로 제시하였다(최운식, 김기창, 1988, pp. 73-74).

석용원(1980)은 좋은 전래동화의 기준으로 첫째, 어린이 발달 단계에 맞는 것, 둘째, 어린이의 눈으로 본 진실이 정형화되고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는 것, 셋째, 자연과 사회, 역사와 인간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얻게 되고 현실을 보는 눈이 넓고 깊게 되는 것, 넷째, 어린이에게 생생한 영상을 그리게 하고 창조력을 넓혀 주는 것, 다섯째, 휴머니즘과 비판 정신이 두드러진 것, 여섯째, 올바른 것은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은 올바르다는 사실을 감동을 통해 포착시킬 수 있는 것, 일곱째, 우리의 말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을 제시하였다(박희순, 2003, p. 54).

박희순(2003)은 제주설화 교재화의 작품선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 첫째, 구비문학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 속에서 대표성이 드러난 작품
- 둘째, 문학성이 있는 작품
- 셋째, 어린이들의 발달 수준과 정서에 부합되며 교육성이 내재된 작품
- 넷째, 제주인의 생활, 사상, 감정 등의 정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작품
- 다섯째, 사회적 관념으로 볼 때 거부감이 느끼지 않는 작품
- 여섯째, 종교 집단이나 특정 이익집단으로 하여금 문제를 제기 받지 않는 작품

선행 연구와 현재 출판되어 있는 제주설화 이야기책을 참고로 다음과 같이 제주설화 기준을 정하고 선정하였다.

- 첫째, 창조력을 길러주며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
- 둘째, 제주인의 사상, 생활, 감정 등의 정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대표성이 있는 작품
- 셋째, 어린이들의 발달 수준과 정서에 부합되며 양성평등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작품

나. 대상 작품 선정과 분석

연구자의 선정 기준과 현재 출판되어 있는 제주설화 이야기책을 참고로 제주설화를 선정하였다.

제주신화에는 백주또, 가문장아기, 강림의큰부인, 자청비 등 많은 여신들이 등장하는데 제주여성들이 가지는 부지런함, 자율적인 능력, 독립성, 용감성, 객관성, 자신의 내부에 심어 놓은 인간적인 선에 대한 강고한 원칙, 희망과 절망 등이 나타나 있다. 그래서 삼공본풀이인 <가문장아기>, 세경본풀이인 <자청비>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천지창조 신화로서 그 대표성이 인정되는 천지왕본풀이를 이야기로 꾸민 <대별왕 소별왕>을 선정하였다.

1) <대별왕 소별왕>¹⁹⁾

<천지왕본풀이>는 천지창조 신화로서 그 대표성이 인정되는 신화이다. 다양한 전래 동화집에 수록이 되어 이미 많은 국민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어린이들에게 바르고 진실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신화이다(박희순, 2003, p. 57).

2) <가문장아기>²⁰⁾

<삼공본풀이>는 비교적 일찍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는데, 이와 유사한 내용의 민담이 전국에 걸쳐 전승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삼국유사(三國遺事)』의 무왕설화, 즉 서동과 선화공주의 이야기가 <삼공본풀이>의 이야기와 유사한 점이 많고, 또한 고구려 온달 전승의 서사구조도 <삼공본풀이>의 그것과 유사하며, 나아가 <심청전>에도 유사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삼공본풀이>는 그와 유사한 내용들이 신화·전설·민담·판소리·고소설 등 여러 장르에 걸쳐 있는 셈이다(이수자, 한국민속대백과사전)민속신앙)무속신앙)무속신화).

가문장아기는 운명의 여신이다.

가문장아기는 ‘가난’과 ‘여성’이라는 이중의 결핍된 존재로 태어나지만, 자신에게 운명처럼 주어진 ‘가난’과 ‘여성’이라는, 천부적이고 사회적인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경제력과 독립의 성취를 위해 노력한다.

가문장아기는 “난 부모님 덕에도 먹고 살지만 내 운명으로도 먹고 산다”고 부모에게 이야기했다가 쫓겨난다. 그녀는 부모의 생각을 거역하고 그들의 생각에 반하

19) 대강의 줄거리는 <부록 2>에 수록하였다.

20) 가문장아기의 줄거리는 <부록 3>에 수록했다.

는 행동을 하지만, 그런 그녀의 행동은 기존의 관례적인 효 관념에 반하는 것뿐이지 불효는 아니었다. 부자가 된 그녀는 거지잔치를 벌여 부모님에게만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가난한 부모,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효, 창조적인 효를 실천한다(김정숙, 김정숙의 제주신화, 2012.3.28.).

3) <자청비>²¹⁾

자청비는 사랑과 미와 농경의 신이다.

<세경본풀이>는 우리 민족문화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우선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 오곡종자, 열두시만국, 메밀씨를 가져다 준 농경기원신 및 목축신의 내력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민족도 농경기원신화 혹은 목축신에 대한 신화가 있음을 알게 해 준다(이수자, 한국민속대백과사전)민속신앙)무속신앙)무속신화).

자청비라는 여성영웅은 현대적인 여성 원형으로서의 연구와 걸작으로서의 문학성을 인정받는 좋은 작품이지만 간혹 노골적인 성적 표현 장면이 있어 이 부분은 어린이들의 정서상 변형하여 지도해야 한다.

3. 제주설화를 활용한 통합 지도 방안 설계

가. 초등학교 국어과의 교육 목표의 이해

1)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다섯 가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첫째,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성격은 큰 틀에서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어교육에 대한 평가와 요구를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또한 내용 체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영역별, 학교 급별 학습의 지향점 및 강조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어사용과 문법 및 문학의 조화를 강조한다.

21) 자청비 이야기는 <부록 4>에 수록했다.

둘째, 교육 목표를 전문 목표와 구체적 하위목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체제는 7차 교육과정과 같이 유지하고, 사회 변화에 따른 국어사용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목표 진술을 학습자 중심으로 진술함으로써 교사·학생·학부모간의 정확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가능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셋째, 내용면을 살펴보면, '실제'를 강조하기 위하여 내용 체계의 가장 위쪽에 배치하고 내용의 본질인 지식과 기능을 가운데에 두고 맥락이 토대를 이루도록 [그림 5]와 같이 배치하였다. 이것은 국어생활의 실재를 강조하고, 맥락의 역할을 고려한 체계이다.

작품의 수용과 생산의 실제	
· -시(시가), 소설(이야기), -극(연극, 영화, 드라마), -수필·비평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의 본질과 속성 · 문학의 양식과 갈래 · 한국 문학의 역사 	수용과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이해 · 감상과 비평 · 작품의 창조적 재구성 · 작품 창작
맥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생산의 주체 · 사회·문화적 맥락 · 문학사적 맥락 	

[그림 5]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문학' 영역의 내용 체계

주. 출처 **초등학교 국어 3-1 교사용 지도서**(p. 19) 교육과학기술부, 2012.

서울: (주) 미래엔.

넷째, 방법 향에서 자지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을 위한 의미 있는 국어 학습경험을 강조하였고, 국어활동의 총체성과 통합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통합성을 강조하여 영역 간, 내용 요소 간 통합 원리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내용 체계에 따라 평가 목표 및 방법을 보완하였다. 국어 교육의 본질에 적합한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영역별 특성을 반영한 선택적 활용과 평가 결과 보고 체계의 다양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그림 6]과 같이 '실제'를 상위 범주에 놓

고, ‘지식’, ‘수용과 생산’, ‘태도’를 하위 범주로 설정하였고, ‘다양한 매체와 문학’은 문학작품이 인쇄 텍스트만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존재하는 양상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갈래의 문학 -시(시가), 소설(이야기), 극, 수필, 비평 · 다양한 매체와 문학 		
지식	수용과 생산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의 본질과 속성 · 문학의 갈래 · 문학 작품의 맥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이해와 해석 · 작품 감상 · 작품 비평과 소통 · 작품 창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의 가치와 중요성 · 문학에 대한 흥미 · 문학의 생활화

[그림 6] 2009년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문학’ 영역의 내용 체계

주.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p. 14)

제주특별자치도, 2013. 제주: 온누리디앤피.

7차 교육과정부터는 ‘창작 교육’이 도입되었고,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문학 영역 내용 체계는 ‘작품의 수용과 생산의 실제’, ‘지식’, ‘수용과 생산’, ‘맥락’으로 이루어졌는데 ‘수용과 생산’의 하위 항목에 ‘작품 창작’을 명시함으로써 창작 교육을 공식화하고 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수용과 생산’ 하위 항목에 ‘작품 창작’을 명시함으로써 창작 교육을 강조한다. 학습 독자의 적극적이고 개별적인 작품 수용과 반응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문학교육은 각자의 의미 구성 과정을 중시하게 되었다. 학습 독자의 온전한 수용과 감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창작을 포함하는 통합적 이해여야 한다는 결론과 함께 창작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였다. 이처럼 문학의 ‘수용과 생산’ 범주는 이해와 표현 활동을 아우르는 범주이며, 문학을 매개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2) 국어과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한 국어과 교육 목표의 전문 목표는 ‘학생의 국어 생활에 필요한 기초 국어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 기르기’로, 하위 목표에서는

‘국어 생활의 문제 인식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 능력 배양 및 말과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다양한 경험 기르기’로 규정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 7]과 같다.

국어 활동과 국어과 문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국어 활동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가)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 사용 상황에 활용하면서 자신의 언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한다.
- 나) 담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담화와 글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생산한다.
- 다)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발전과 미래 지향의 국어 문화를 창조한다.

[그림 7]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한 국어과 교육의 목표

주. 출처 **초등학교 국어 3-1 교사용 지도서** (p. 15) 교육과학기술부.

2012. 서울: (주) 미래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과 교육의 목표는 [그림 8]과 같다.

국어 활동과 국어과 문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국어 활동의 맥락을 고려하여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문화를 누리면서 국어의 창의적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가)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힌다.
- 나) 다양한 유형의 담화와 글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생산한다.
- 다) 국어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어 생활을 능동적으로 하는 태도를 기른다.

[그림 8]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한 국어과 교육의 목표

주.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p. 12)

제주특별자치도. 2013. 제주: 온누리디앤피.

2007년,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과 교육 목표는 7차 교육과정처럼 ‘창의적

국어 능력 향상'이다. 이 목표 성취에 필요한 인지적 요소와 정의적 요소를 반영하여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여 제시하고, 하위 교육 목표는 학습자 중심의 목표 진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통합 지도 내용 설정

1) 활동 중심 영역 통합의 원리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에 명시된 언어 사용 기능의 내용 요소간의 관련성을 근거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통합인 '언어 기능 간 통합'과 듣기·말하기·읽기·쓰기가 의미 있는 상황에서 실제적인 활동을 통해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면서 함께 지도되는 '활동 중심 통합'을 아우르는 '활동 중심 영역 통합'의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언어 사용의 실제와 언어활동의 맥락을 중시하는 것이 교육과정 개정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므로 영역 간 통합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우리 언어생활이나 국어과 학습 시간에서 각 언어 기능들이 말하기나 듣기, 읽기, 쓰기처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시간마다 통합적으로 쓰이거나 지도되는 것처럼, 문학이나 문법 역시 말하거나 듣기, 읽기, 쓰기 각 과정에 통합적으로 지도되어지고 있는 영역이다. 특히 문학작품을 구체적으로 지도하다 보면 문학작품을 읽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수용하는 과정 속에서 국어과의 전 영역이 복합적으로 지도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 기능은 통합적으로 지도했을 때 더욱 효과적이며 서로의 언어 기능들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

실화교육을 통해 내용을 듣고, 문자나 그림을 읽고, 느낀 점이나 인상 깊은 장면을 말하고, 글자 속에 들어 있는 문법을 배우고, 문학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국어과 영역 전반을 통합하여 지도할 수 있다. 활동 중심 영역 통합은 연극하기(드라마), 인터뷰하기, 모의광고, 토론, 역할극, 인형극, 무언극, 녹음, 퀴즈대회, 시장놀이, 등장인물과 대화하기, 편지쓰기 등이 해당된다(양소영, 2006, p. 29).

2) 3학년 국어과 성취기준과 학습 목표

국어과의 영역을 통합한 수업을 설계하고자 할 때는 영역별로 유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가르쳐야 하고 영역의 통합을 의도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별 교과서에

제시된 목표에 대한 통합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3학년 국어과 성취기준과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표 8>~<표 13>과 같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가) 듣기

<표 8>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듣기 3학년 성취기준과 학습 목표

언어사용의 목적	성취기준	내용요소의 예	교과서의 단원 학습 목표
정보 전달	· 안내하는 말을 듣고 중요한 내용을 정리한다.	· 알고 싶은 내용에 주의하면서 듣기 ·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메모하기	· 3-1-2-[듣말쓰]: 안내하는 말을 잘 듣고 중요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 3-2-2-[듣말쓰]: 안내하는 말을 듣고 전할 때에 중요한 내용을 적으면서 들을 수 있다.
설득 (논술 특화단원)	· 훈화를 듣고 이야기에 담겨 있는 교훈을 파악한다.	· 이야기의 내용에서 교훈 추리하기 · 교훈의 내용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 훈화가 필요한 상황 이해하기	· 3-2-6-[듣말쓰]: 훈화를 듣고 이야기에 담겨 있는 교훈을 파악한다.
사회적 상호 작용	· 전화 대화를 하면서 상대의 말을 예의 바르게 듣는다.	· 전화 대화의 특성 이해하기 ·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듣기 · 상대에 대해 예의를 갖추어 응대하기	· 3-1-4-[듣말쓰]: 전화로 대화할 때의 특징과 방법을 알고, 올바른 예절을 익혀 전화로 대화할 수 있다.
정서 표현	· 애니메이션을 보고 반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이해한다.	· 애니메이션을 특성 이해하기 · 느낌을 표현하는 말과 행동 찾기 · 말의 빠르기, 높낮이, 강약 인식하기 · 인물의 인상적인 몸짓 비교하기	· 3-1-7-[듣말쓰]: 등장인물의 표정, 몸짓, 말투에 주의하며 만화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 · 3-2-7-[듣말쓰]: 인물의 특성에 주의하며 이야기를 바꾸어 보고, 새롭게 꾸민 이야기를 연극으로 표현할 수 있다.

나) 말하기

<표 9>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말하기 3학년 성취기준과 학습 목표

언어사용의 목적	성취기준	내용요소의 예	교과서의 단원 학습 목표
정보 전달	· 정확하고 알기 쉽게 안내하는 말을 한다.	· 안내할 내용 조사하기 · 조사한 내용 정리하기 · 안내할 내용의 정확성 판단하기 · 듣는 이가 알기 쉽게 말하기	· 3-1-2-[듣말쓰]: 안내하는 말을 잘 듣고 듣는 이가 알기 쉽게 안내할 수 있다. · 3-2-2-[듣말쓰]: 정확하고 알기 쉽게 안내하는 말을 할 수 있다.
설득 (논술 특화단원)	· 이야기나 속담을 활용하여 주장하는 말을 한다.	· 주장하고 싶은 내용 선정하기 · 관련된 이야기, 속담조사하기 · 이야기나 속담을 활용하여 주장하기	· 3-2-6-[듣말쓰]: 이야기나 속담을 활용하여 주장하는 말을 할 수 있다.
사회적 상호 작용	· 전화 예절을 지키면서 대화를 한다.	· 전화 대화의 특성 이해하기 · 전화 대화 시 지켜야 할 예절 알기 · 상황에 따라 예절을 지키면서 전화로 대화하기	· 3-1-4-[듣말쓰]: 전화로 대화할 때의 특징과 방법을 알고, 올바른 예절을 익혀 전화로 대화할 수 있다.
정서 표현	· 겪은 일이나 들은 이야기를 인과 관계가 잘 드러나도록 말한다.	· 겪은 일이나 들은 이야기 떠올리기 ·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 내용 정리하기 · 인과 관계가 잘 드러나게 말하기	· 3-2-3-[듣말쓰]: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일의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이야기의 내용을 간추릴 수 있다.

다) 읽기

<표 10>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읽기 3학년 성취기준과 학습 목표

언어사용의 목적	성취기준	내용요소의 예	교과서의 단원 학습 목표
정보 전달, 설득	· 설명하는 글을 읽고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 문단의 개념 이해하기 ·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별하기 · 설명의 내용 파악하기	· 3-1-2-[읽기]: 문단의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별하며 설명하는 글을 읽을 수 있다. · 3-1-3-[읽기]: 글쓴이의 의견과 그 까닭을 알아보고 글을 읽을 수 있다. · 3-2-2-[읽기]: 국어사전에서 낱말의 뜻을 찾아가며 글을 읽을 수 있다.
정보 전달	· 설명서를 읽고 제시된 절차와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 설명서의 표현 특성 이해하기 · 설명서의 정보를 정리하기 · 정확한 설명의 중요성 깨닫기	· 3-1-5-[읽기]: 설명서에 나타난 일의 순서를 파악할 수 있다. · 3-2-4-[읽기]: 설명서를 읽고, 글에 나타난 일의 차례나 방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사회적 상호 작용	· 독서 감상문을 읽고 책의 내용과 책에 대한 감상을 구별한다.	· 감상문의 특성 이해하기 · 책의 내용과 책에 대한 감상 구별하기 · 여러 독서 감상문을 함께 읽고 비교하기	· 3-1-4-[읽기]: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을 알아보고 독서 감상문을 읽을 수 있다. · 3-1-8-[읽기]: 문학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알아보고 독서 감상문을 읽을 수 있다. · 3-2-6-[읽기]: 글에서 의견과 까닭을 구별할 수 있다.
정서 표현	·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보고 인물의 성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안다.	· 인물의 성격을 표현하는 방식 이해하기 ·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 찾기 · 인물의 성격이 시각적으로 표현된 부분을 찾아 언어로 바꾸어 표현하기	· 3-2-7-[읽기]: 인물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살펴보고 만화를 읽을 수 있다.

라) 쓰기

<표 11>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쓰기 3학년 성취기준과 학습 목표

언어사용의 목적	성취기준	내용요소의 예	교과서의 단원 학습 목표
정보 전달	· 일의 절차, 방법 등을 설명하는 글을 쓴다.	· 절차, 방법 등을 설명하는 글의 구조 이해하기 · 자신이 잘 아는 일의 절차나 방법 떠올리기 · 읽는 이가 이해하기 쉽게 절차, 방법을 정리하기 · 설명할 내용을 문단이 갖춰야 할 요건에 맞게 표현하기	· 3-1-5-[듣말쓰]: 일의 절차, 방법 등을 설명하는 글을 일의 절차, 방법 등을 설명하는 글을 쓸 수 있다. · 3-2-2-[듣말쓰]: 글과 그림을 활용하여 안내문이나 설명서를 만들 수 있다. · 3-2-4-[듣말쓰]: 문단의 짜임에 맞게 설명하는 글을 쓸 수 있다.
설득	· 어떤 사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 잘 드러나게 글을 쓴다.	·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 · 사실과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중심으로 쓸 내용 정리하기 ·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 읽는 이의 의견 고려하기	· 3-1-6-[듣말쓰]: 사실과 의견이 잘 드러나게 글을 쓸 수 있다. · 3-2-5-[듣말쓰]: 알맞은 문장을 사용하여 내 의견이 잘 드러나게 글을 쓸 수 있다.
사회적 상호 작용	· 알맞은 낱말을 사용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쓴다.	·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글의 특성 이해하기 · 있었던 일에 대한 자신의 마음 등을 중심으로 내용 정리하기 · 읽는 이와 내용을 고려하여 알맞은 낱말 선택하기	· 3-1-3-[듣말쓰]: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글을 잘 쓰는 방법을 알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수 있다.
정서 표현	·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글을 쓴다.	· 감상문의 특성 이해하기 · 자신의 경험과 글의 내용을 관련짓기 · 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 정리하기 · 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는 태도 가지기	· 3-1-1-[듣말쓰]: 시나 이야기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 3-2-1-[듣말쓰]: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글을 쓸 수 있다.

마) 문법

<표 12>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문법 3학년 성취기준과 학습 목표

언어사용의 목적	성취기준	내용요소의 예	교과서의 단원 학습 목표
정보 전달	· 국어사전에서 낱말 찾는 방법을 안다.	· 국어 품사의 기초 개념 이해하기 · 용언의 기본형 알기 · 국어사전 찾는 방법 알기 · 국어사전의 효용성과 가치 이해하기	· 3-2-2-[읽기]: 국어사전에서 낱말의 뜻을 찾아 가며 글을 읽을 수 있다.
사회적 상호 작용	· 소리가 동일한 낱말들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현상을 분석한다.	· 동음이의어와 다의어 개념 이해하기 ·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사용 양상 관찰하기 · 동음이의어와 다의어를 활용하여 문장 만들기	· 3-1-8-[듣말쓰]: 소리가 같은 낱말이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살펴보고, 상황에 알맞게 구별할 수 있다. · 3-2-4-[듣말쓰]: 하나의 낱말이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 적절하게 말할 수 있다.
	· 의도에 따라 여러 종류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 의도에 따라 문장의 종류가 달라짐을 이해하기 ·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 감탄문 등 종류가 다른 문장들을 찾아 분류하기 · 표현 의도에 맞게 문장의 종류를 달리하여 표현하기	· 3-1-8-[듣말쓰]: 문장 부호에 주의하며 전하려는 내용이 잘 드러나게 문장을 쓸 수 있다. · 3-2-5-[듣말쓰]: 알맞은 문장을 사용하여 내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글을 쓸 수 있다. · 3-2-5-[읽기]: 글을 읽고 여러 가지 문장이 표현하고자 하는 뜻을 알 수 있다.

바) 문학

<표 13>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문학 3학년 성취기준과 학습 목표

언어사용의 목적	성취기준	내용요소의 예	교과서의 단원 학습 목표
정서 표현	· 문학 작품을 읽고 느낀 점을 말이나 글로 표현한다.	· 작품을 읽은 느낌 떠올리기 · 작품의 전체적인 느낌 정리하기 ·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	· 3-1-1-[듣말쓰]: 시나 이야기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글이나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 3-1-7-[듣말쓰]: 등장인물의 표정과 몸짓을 살펴며 만화 영화를 보고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다.

<표 13>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8-[읽기]: 문학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알아보며 독서 감상문을 읽을 수 있다. · 3-2-1-[듣말쓰]: 내 생각이나 느낌이 잘 나타나도록 독서감상문을 쓸 수 있다. · 3-2-1-[읽기]: 문학작품을 읽고 인물의 성격에 맞는 이야기를 꾸밀 수 있다. · 3-2-3-[읽기]: 이야기에 대한 여러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비교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작품에는 일상의 세계와 비슷한 상상의 세계가 담겨 있음을 이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의 세계와 상상의 세계 이해하기 · 작품 속의 세계는 글쓴이가 꾸며낸 세계임을 이해하기 · 또래의 인물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읽고 자신의 일상과 비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1-[읽기]: 시나 이야기에 나타난 세계를 상상하고 우리가 사는 세계와 비교할 수 있다. · 3-2-5-[듣말쓰]: 알맞은 문장을 사용하여 내 의견이 잘 드러나게 글을 쓸 수 있다.
설득, 정서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여 내용을 간추린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야기의 전개 과정 파악하기 ·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 정리하기 · 간추린 내용 발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6-[읽기]: 이야기를 읽고 깨달은 점을 말할 수 있다. · 3-1-7-[읽기]: 일이 일어나는 차례에 따라 이야기를 간추릴 수 있다. · 3-2-3-[듣말쓰]: 일의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이야기의 내용을 간추릴 수 있다. · 3-2-3-[읽기]: 이야기에 대한 여러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비교할 수 있다.
정서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작품 속의 인물의 특성을 살려 새로운 이야기를 꾸민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속 인물의 특성 이해하기 · 인물의 특성과 사건의 관계 파악하기 · 인물의 특성을 살려 다른 이야기로 꾸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7-[듣말쓰]: 인물의 특성에 주의하며 이야기를 바꾸어 보고, 새롭게 꾸민 이야기를 연극으로 표현할 수 있다 · 3-2-1-[읽기]: 문학작품을 읽고 인물의 성격에 맞는 이야기를 꾸밀 수 있다.

3) 통합을 위한 성취기준 추출

3학년 국어과 성취기준과 단원 학습 목표를 살펴보고 이중 유사성 및 연관성을

근거로 통합 지도할 수 있는 각 영역의 성취기준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4> 통합을 위해 추출된 성취기준

영역	언어사용의 목적	성취기준	내용요소의 예	교과서의 단원 학습 목표
듣기	정서 표현	· 애니메이션을 보고 반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이해한다.	· 느낌을 표현하는 말과 행동 찾기 · 말의 빠르기, 높낮이, 강약 인식하기 · 인물의 인상적인 몸짓 비교하기	· 3-1-7-[듣말쓰]: 등장인물의 표정, 몸짓, 말투에 주의하며 만화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 · 3-2-7-[듣말쓰]: 인물의 특성에 주의하며 이야기를 바꾸어 보고, 새롭게 꾸민 이야기를 연극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말하기	정서 표현	· 겪은 일이나 들은 이야기를 인과 관계가 잘 드러나도록 말한다.	· 겪은 일이나 들은 이야기 떠올리기 ·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 내용 정리하기 · 인과 관계가 잘 드러나게 말하기	· 3-2-3-[듣말쓰]: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일의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이야기의 내용을 간추릴 수 있다.
읽기	정서 표현	·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보고 인물의 성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안다.	·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 찾기 · 인물의 성격이 시각적으로 표현된 부분을 찾아 언어로 바꾸어 표현하기	· 3-2-7-[읽기]: 인물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살펴보고 만화를 읽을 수 있다.
쓰기	정서 표현	·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글을 쓴다.	· 자신의 경험과 글의 내용을 관련짓기 · 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 정리하기 · 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는 태도 가지기	· 3-1-1-[듣말쓰]: 시나 이야기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 3-2-1-[듣말쓰]: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글을 쓸 수 있다.
문법	사회적 상호작용	· 의도에 따라 여러 종류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 의도에 따라 문장의 종류가 달라짐을 이해하기 ·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 감탄문 등 종류가 다른 문장들을 찾아 분류하기 · 표현 의도에 맞게 문장의 종류를 달리하여 표현하기	· 3-1-8-[듣말쓰]: 문장 부호에 주의하며 전하려는 내용이 잘 드러나게 문장을 쓸 수 있다. · 3-2-5-[듣말쓰]: 알맞은 문장을 사용하여 내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글을 쓸 수 있다. · 3-2-5-[읽기]: 글을 읽고 여러 가지 문장이 표현하고자 하는 뜻을 알 수 있다.

<표 14> 계속

문학	설득, 정서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여 내용을 간추린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야기의 전개 과정 파악하기 ·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 정리하기 · 간추린 내용 발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6-[읽기]: 이야기를 읽고 깨달은 점을 말할 수 있다. · 3-1-7-[읽기]: 일이 일어나는 차례에 따라 이야기를 간추릴 수 있다. · 3-2-3-[듣말쓰]: 일의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이야기의 내용을 간추릴 수 있다. · 3-2-3-[읽기]: 이야기에 대한 여러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비교할 수 있다.
	정서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작품 속의 인물의 특성을 살려 새로운 이야기를 꾸민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속 인물의 특성 이해하기 · 인물의 특성과 사건의 관계 파악하기 · 인물의 특성을 살려 다른 이야기로 꾸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7-[듣말쓰]: 인물의 특성에 주의하며 이야기를 바꾸어 보고, 새롭게 꾸민 이야기를 연극으로 표현할 수 있다 · 3-2-1-[읽기]: 문학작품을 읽고 인물의 성격에 맞는 이야기를 꾸밀 수 있다.

4) 통합 지도 성취기준과 학습 목표 선정

유사성 및 연관성을 근거로 추출된 각 영역의 성취기준을 참고로 제주설화를 활용하여 통합 지도할 성취기준과 학습 목표를 <표 15>와 같이 정하고 이때에 사용할 제주설화 작품을 선정하였다. 이 때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성취기준과 학습 목표를 변형한 경우도 있음을 밝힌다.

<표 15> 통합 지도할 성취기준과 학습 목표

영역	성취기준	내용요소의 예	학습 목표	비고
듣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니메이션을 보고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이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언어적 표현 인식하기 · 인물의 인상적인 몸짓 비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장인물의 표정, 몸짓, 말투에 주의하며 애니메이션을 감상할 수 있다. 	가문장아기

<표 15> 계속

말하기	· 겪은 일이나 들은 이야기를 인과 관계가 잘 드러나도록 말한다.	· 인과 관계가 잘 드러나게 말하기	· 일의 원인과 결과를 생가하며 이야기의 내용을 간추릴 수 있다.	자청비
읽기	· 문학작품을 읽고 인물의 성격을 표현하는 방식을 안다.	·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 찾기 · 인물의 성격이 표현된 부분을 찾기	· 인물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살펴보고 제주설화를 읽을 수 있다.	성취기준 일부 수정 자청비, 대별왕 소별왕
쓰기	·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글을 쓴다.	· 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는 태도 가지기	·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글을 쓸 수 있다.	자청비, 대별왕 소별왕
문법	· 의도에 따라 여러 종류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 표현 의도에 맞게 문장의 종류를 달리하여 표현하기	· 알맞은 문장을 사용하여 내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글을 쓸 수 있다.	자청비, 대별왕 소별왕
문학	·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여 내용을 간추린다.	·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 정리하기	· 문학작품을 읽고 일이 일어난 차례에 따라 이야기를 간추릴 수 있다.	가문장아기
	· 문학작품 속의 인물의 특성을 살려 새로운 이야기를 꾸민다.	· 인물의 특성을 살려 다른 이야기로 꾸미기	· 문학작품을 읽고 인물의 특성에 주의하며 이야기를 새롭게 꾸밀 수 있다.	목표 일부 수정, 가문장아기, 자청비, 대별왕 소별왕

다. 제주설화를 활용한 통합 수업모형 설계

효과적으로 통합 지도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하여 문해란(2005)의 설화의 교수

-학습모형²²⁾, 김병수(2010)의 통합적 국어 수업 모형²³⁾과 박순숙(2011)의 아동문학 중심 초등국어과 통합 지도 모형²⁴⁾을 참고로 하여 통합 수업모형의 단계를 도입 → 준비 → 통합 활동 → 정리 단계로 설정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표 16>과 같다.

22) 설화의 교수-학습 모형(문해란, 2005, p. 15)

단계	주요 활동 내용	학습(교류)유형
1단계	· 학습분위기 조성 -주의 집중 및 학습 분위기 조성, -설화 텍스트에 대한 동기 유발 -설화에 관련된 배경 지식의 활성화, -학습 목표 제시	교사⇔학생
2단계	· 표현(학습)을 위한 준비 -설화 텍스트 읽기, -설화 텍스트에 대한 총체적 반응 형성 -표현(학습)활동 안내하기	텍스트⇔학생 교사⇔학생
3단계	· 표현(학습)활동 -설화 텍스트 다시 읽기, -표현(학습)활동하기 -표현 활동 결과 발표하기	학생⇔학생
4단계	· 평가 및 내면화 -자기화로서의 글쓰기, -상호 텍스트서 확대	교사⇔학생 학생⇔학생 텍스트⇔학생

23) 준비하기→영역 활동하기→영역 통합하기→확장하기→정리하기(김병수, 2010, p. 125)

24) 아동문학 중심 초등국어과 통합 지도 모형(박순숙, 2011, p. 100)

단계	활동 내용	활동전략	비고
도입	· 감성교류	-문학작품에 대한 예상하기 -자신의 경험 이야기 나누기	
소통하기	· 문학작품 읽기 · 토론	-대강의 내용 이야기하기 -느낀 점, 궁금한 점 이야기하기 -어떤 내용에 대한 의견 주고받기	
통합활동	· 학습 목표 성취 활동	-각 언어 기능별 학습 목표 성취하기	
정리	· 저널쓰기	-문학작품에 대한 느낌 쓰기 -작품 내용에 대한 나의 의견 쓰기 -서평, 추천하는 글쓰기	

<표 16> 제주설화를 활용한 초등국어과 통합 수업모형

단계	활동 내용	활동 전략	차시	비고
도입	· 감성교류 · 자아 존중감 키우기	-관계형성하기 -자아 존중감 키우기	4	뇌구조학습지, 자아 존중감 학습지
준비	· 배경지식 확인 · 동기유발	-배경지식 확인하기 -제주설화 소개하기 -통합 수업 소개하기	2	여러 가지 제 주설화
통합 활동	· 학습 목표 성취 활동 · 확장하기	-영역 별 학습 목표 인지하기 -작품 듣기, 돌려 읽기, 활동하기 -새로운 이야기 꾸미기 -친구에게 추천하는 글쓰기	13	관련 활동 학 습지 제주설화
정리	· 다른 작품과 비교 하기 · 공유하기	-멀티미디어 작품과 책 내용 비교하기 -온라인상에서 독서 관련 활동하기	1	플래시동화 독서종합지원 시스템

1) 도입 단계

도입단계는 학습자와 교사, 학습자와 학습자가 상호 감성을 교류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이다. 3학년 6개의 반에서 각 4-5명 정도 모여 ‘이야기세상’이라는 반에서 학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알고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통합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기의 생각을 주저하지 않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형성하기 위하여 우선 총 4차시에 걸쳐 자아 존중감을 키우는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기의 장점 찾기,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소중한 이유 찾기,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동화 감상하기 등을 통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과 자신감을 찾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창의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새로운 생각 지지하고 독려하기, 말하기 전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주기, 수업 전에 학생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간단한 율동이나 노래를 할 수 있다.

2) 준비 단계

이 활동에서는 통합 수업을 준비하는 단계로 배경지식 확인하기, 동기유발하기로 수업의 과정이 진행되며, 교사가 수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학생들

과 공유하는 시간이다. 제주설화를 활용한 통합 지도 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설문지로 기초조사를 하고, 기존에 알고 있는 제주설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등장인물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제주설화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기, 제주설화 관련 책 소개하기 등을 거쳐 통합 수업의 개념, 통합 수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3) 통합 활동 단계

이 단계에는 교사가 구안한 통합 지도 방안에 따라 추출된 학습 목표를 달성해 가는 활동이다. 통합 활동은 한 차시에 여러 언어 기능, 즉 말하기나 듣기, 또는 읽기, 쓰기 등이 통합되어 지도될 수 있고, 차시마다 각각 지도될 수도 있다. 교사는 이 단계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의 방향과 지침,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분명하게 학습 목표를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책을 읽고 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여 나누는 활동 방법 중 소통하기가 있다. 소통하기는 학생들의 책 내용 이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고,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책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여러 가지 생각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책 내용에 대한 생각을 소통하는 방법에는 대화와 쓰기 활동이 있는데, 대화를 활용한 소통하기에는 ‘토론하기’, 쓰기를 활용한 소통하기는 ‘저널쓰기’이다(박순숙, 2011, p. 97). 본 연구에서는 ‘토론하기’의 활동 전략 중에서 책 내용 이야기하기, 내 생각 발표하기 등을 활용하고, ‘저널쓰기’ 활동 전략 중에서는 추천하는 글쓰기 방법을 활용한다.

영역 별 학습 목표 인지하기, 작품 듣고 감상하기, 돌려 읽기, 펜터마임으로 표현하기, 역할극하기, 줄거리 파악하기, 등장인물 파악하기 등의 활동을 거쳐 확장하는 단계로 창의적인 생각 키우기를 위하여 연꽃기법²⁵⁾을 활용하여 새로운 이야기 꾸미기, 친구와 담임선생님께 추천하는 글쓰기 등 통합 관련 활동을 전개한다.

25) 연꽃기법은 연꽃모양으로 아이디어를 발상해 나가는 사고기법으로 아이디어나 문제 해결의 대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얻기 위하여 활용된다. 주로 기존의 기술이나 제품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나 미래 시나리오를 가상으로 만들어내려고 할 때 적용된다. 일본의 클로버 경영 리서치의 마쓰무라 야쓰오소장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MY기법이라고도 한다. 마인드맵의 자유로움과 스토리 보드의 구조가 결합된 이 기법은 미래의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유용하다(선주원, 2013).

4) 정리 단계

정리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공부한 제주설화를 다른 형태의 작품과 비교하는 활동과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이다. 글로 된 설화 이외 멀티미디어형태의 이야기와 비교하면서 설화의 특징인 창작의 개방성을 확인해본다. 말을 통해 전승되는 유동적인 과정에서 화자에 따라 실제로 들은 대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연자가 자기 나름 보태기도 하고 고쳐 넣기도 하면서 새롭게 창작되어 지는 부분을 느끼면서 누구나가 창작자가 될 수 있고 새로운 이야기를 창작하려는 의지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공유하기 활동은 학생들의 삶과 연관시켜 자기와 타자가 상호 소통하는 단계이다. 자기의 생각을 온라인 사이트에 탑재하고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함으로써 학생들은 삶과 연관시켜 자기와 소통하기도 하고 다른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다.

IV. 적용 및 결과 분석

1. 프로그램의 적용

제주시 A초등학교 3학년 6개 반 중 강점교육을 위한 동아리부 참가학생 26명을 대상으로 2013년 3월 19일부터 5월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2시간씩 총 20차시에 걸쳐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진행은 관계형성 프로그램을 2일간 총 4차시, 제주설화를 활용한 통합수업 프로그램 적용으로 <가문장아기>로 4일간 총 8차시, <자칭비>는 2일간 총 4차시 그리고 <대별왕 소별왕>으로는 2일간 총 3차시를 적용하였고 정리 단계로 1시간을 운영하였다.

가. 통합 수업 교수-학습 과정안

통합 수업 모형을 구안하고 제주설화를 활용한 구체적인 통합 수업 과정은 <표 17>의 교수-학습 과정안과 같다.

<표 17> 통합 수업 교수-학습 과정안

학년	3학년 1학기		수업자	김경애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설화를 듣거나 읽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하여 봄시다. 			
단계	학습내용	교 수 · 학 습 활 동		자료(▶), 유의점(▷)
도입	감성교류 자아 존중감 키우기	○관계형성하기 -교사 소개 및 이야기세상 활동 내용 소개하기 -새로운 친구 인터뷰하면서 친구 알아가기 -서로 소통하기(다양한 손유희 놀이) -자신의 관심 분야, 잘하는 것, 좋아하는 책 소개하기 ○자아 존중감 키우기 -'강아지똥' 노래 부르면서 자아 존중감 키우기 -소중한 존재감 인식하기 -'너는 특별하단다' 듣고 나의 생각 말하기, 만화로 표현하기		▶뇌구조학습지, 자아존중감 학습지 2, 플래시동화, 인터넷자료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을 사전에 운영한다.

나. 활동 결과

책 내용 알기

책이름	가문장아기	3학년	2반	이름	
글쓴이	제주살화	날짜	4월 22일	자기평가	○ ○ △

▶ 들려주는 이야기를 잘 듣고 생각그림으로 나타내주세요.

책 속에 있는 길, 외오면 나의 길

1. 책 내용 확인하기 <가문장아기>

등장 인물과 한 일 알아보기

책이름	가문장아기	3학년 4반	
글쓴이	제주살화	읽은 날	자기평가 ○ ○ △

▶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성격에 어울리게 얼굴을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는지 써 보세요.

<p>♥ 등장인물 이름 : 문장아기</p> <p>한 일: 은 그릇에 밥을 먹은 아기</p>	<p>♥ 등장인물 이름 : 늑장아기</p> <p>한 일: 늑장 그릇에 밥을 먹은 아기</p>
<p>♥ 등장인물 이름 : 가문장아기</p> <p>한 일: 강은 그릇에 밥을 먹은 아기</p>	<p>♥ 등장인물 이름 : 셋째 아들</p> <p>한 일: 붕사 잘 지어먹은 아들</p>

2. 등장인물 캐릭터 꾸미기 <가문장아기>

[그림 9] 활동 결과 학습지 1



책 내용을 움직임활동으로 표현하기



책이름	가문장아기	3학년			
글쓴이	계주실환	흰은 날	4월18일 화요일	자기평가	◎ ○ △

◆ 등장인물이 한 일을 팬터마임으로 표현해 봅시다. ◆
 (팬터마임? → 어떤 장면을 말로 하지 않고 몸 동작으로 표현하는 활동)

1. <가문장아기>의 장면에서 몸동작으로 표현하기 좋은 장면 찾기

① 누가 등장하나요? 원숭이, 낮방아기, 가문장아기

② 어떤 장면인가요? 3리대개 모두 함께 소꿉놀이를 하는 장면

2. 내가 표현하고 싶은 장면 팬터마임으로 표현하기

① 팬터마임으로 표현하고 싶은 동작을 자세하게 표현해보세요. (얼굴 표정, 손 동작, 몸의 표현 모습 등)

몸짓 = 소꿉놀이를 할듯, 손으로 소꿉을 빙글리며 돌리듯, 피크 피크는 게으름을 표정한다.

② 짝과 같이 내가 선택한 장면을 얼굴조각으로 표현해보세요.

※ 짝이 표현한 장면은? 소꿉놀이 장면

※ 잘된 장면은? 그것이 표현하다.

3. 움직임활동으로 표현하기 1 <가문장아기>



움직임활동으로 표현하기 2 <가문장아기>

[그림 10] 활동 결과 학습지 2

새로운 이야기 꾸미기

3학년 이름 [redacted]

◆ 지금까지 공부했던 제주설화 '가은장아기, 자청비, 대별왕소별왕' 중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이야기와 관련된 낱말을 8가지 빈칸에 씁니다. 내가 쓴 낱말을 이용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씁니다.

사천골밭	화생말	마고 할미
정수남	내가 선택한 제주설화 (자청비)	하인
부엉이	문도령	오동사기

내가 꾸민 이야기 제목: 사천골밭을 지키는 정수남과 부엉이

옛날에 사천골밭을 지키는 정수남과 부엉이가 있었는데, 정수남과 부엉이는 엄청 친한 친구였어. 그러던 어느 날 마고 할미라는 문둥 할머니가 나타났어. 그 할머니는 사천골밭을 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사천골밭을 지키는 정수남과 부엉이를 잡으려고 하었어. 그래서 사천골밭으로 갔지. 그런데 정수남과 부엉이 두 사람이 마고 할미를 보자 마고 할미가 말하기를 나는 사천골밭을 차지 하러는 마고 할미대할만 사천골밭을 지키는 너나 둘을 처리해 주지. 그래서 부엉이가 화가 나서 마고 할미를 공격했지. 그러더니 마고 할미가 자청비 부엉이를 잡으려고 했더니 정수남은 마고 할미를 죽였지. 정수남은 부엉이를 살리기 위해 지나가던 문도령에게 물었지. 누군가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지. 문도령은 대답하기를 환성이 필요하단다. 그런 낱말한테 안하면 안된 하인한테 있습니다. 하인 자청비에 있었는데 정수남은 하인을 잡아가지 하인 말한거 하인 말을 안듣고서 자청비 오동사기라고 해서 마고 할미는 죽었다.

8. 새로운 이야기 꾸미기 <자청비>

책 소개하기

3학년 이름 [redacted]

◆ 지금까지 함께 공부했던 제주설화 '가은장아기, 자청비, 대별왕소별왕' 중 한 가지를 골라 친구에게 소개해주는 편지글 형식의 독서 감상문을 써 씁니다. 친구가 책을 읽을 마음이 생기도록 등장인물과 인상 깊은 장면, 재미있는 장면 등을 소개합니다.

([redacted])에게

안녕! 가은장아기의 줄거리를 알려줄게. 줄거리는 가은장아기가 얼마야바에게 잘못된 말을 해서 쫓겨났어. 그리고 언니들을 지내와 버섯으로 만들어 버리고 어떤 집에 머무르게 되었어. 그집에 있던 칸막이로 가길 남자와 한 번 만나고 예전에 마을에서 있던 곳에 가서 금을 찾고 금을 팔아서 학자가 되었어. 행복하게 살다 보니 그만 자신들을 귀찮게 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해 냈어. 나 서 거지 잔치(죽데)를 벌였어. (난이부 분이 재이있어) 그러다가 마지막에 줄이 거지가 왔어. 방도 죽 지 않고 기라웠다. 어머니 아버지 언니와 행복하게 오래 오래 살았어. 꼭 읽어봐!

([redacted])가 씀

9. 친구에게 소개하기 <가은장아기>

[그림 13] 활동 결과 학습지 5

2. 적용 결과 분석

본 연구는 제주설화를 활용한 초등국어과 통합 지도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적용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언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적용 결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 사후 설문을 통해 학습자들의 반응, 흥미도를 분석하고, 학습 결과인 학습지와 면담 일지를 분석하였다.

가. 설문지 분석

1) 사전 설문 내용

제주설화 중심의 통합 지도와 관련하여 학습자의 좋아하는 과목과 제주설화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 설문을 하였는데 설문 내용은 박희순(2003)의 설문지를 참고하였고 그 결과는 <표 18>, <표 19>와 같다.

<표 18> 사전 설문 내용 1

n=26

1.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국어	도덕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영어
3(11.5%)	0	4(15.4%)	0	2(7.7%)	13(50.0%)	0	4(15.4%)	0
2.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국어 영역은?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문학				
7 (26.8%)	3 (11.5%)	3 (11.5%)	10 (38.5%)	3 (11.5%)				
3. 제주설화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안다				모른다				
5 (19.2%)				21 (80.8%)				
3-1. 제주설화에 대해 안다면 언제 들어보았나요?								
언제				누구에게				
2학년 때-5명				2학년 담임교사 - 4명, 집에서 -1명				

4. 제주도에도 그리스로마신화처럼 많은 신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안다	모른다
5 (19.2%)	21 (80.8%)

5. 제주도에 신화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은가요?

예	아니오
21 (80.8%)	5 (19.2%)

6. 알고 있는 제주설화에 O표하기(중복 가능)

설화제목	삼성신화	설문대할망	대별왕소별왕	가문장아기	자청비
제목만	7 (26.9%)	12(46.2%)	6(23.1%)	2(7.7%)	4(15.4%)
내용말하기	0	14(53.8%)	0	1(3.8%)	0

7. 제주설화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 방법(택 1)

이야기 듣기	역할극 하기	캐릭터로 나타내기	뒷이야기 상상하기	손인형 극하기	독후감 쓰기	독서감상화로 나타내기	편지글 쓰기
8(30.9%)	6(23.1%)	3(11.5%)	3(11.5%)	1(3.8%)	2(7.7%)	2(7.7%)	1(3.8%)

사전 설문에서 국어를 제일 좋아한다는 응답은 3명(11.5%)이고, 50%가 체육을 좋아한다고 답하였고, 국어과 영역에서는 읽기 활동을 좋아한다는 응답이 38.5%였다. 제주설화가 어떤 것인지 말할 수 있는 경우는 5명만이 응답하였는데 그중 2학년 때에 교사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4명으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2학년 때에 학습한 ‘설문대할망’에 대해 53.4%가 내용을 말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다른 설화인 경우에는 제목만 들었던 경험이 있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다. 제주설화를 학습할 때에 선호하는 방법으로는 30.9%가 이야기기 듣기를 선호하여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2) 사후 설문 내용

제주설화를 활용한 통합 수업 후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은 정지영(2006)과

김효진(2009)의 반응 조사지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의도에 맞게 수정하여 제작하였고 반응 결과는 <표 20>, <표 21>과 같다.

<표 20> 사후 설문 내용 1

n=26

1.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이야기세상	도덕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영어
9(34.6%)	0	3(11.5%)	0	2(7.7%)	8(30.9%)	1(3.8%)	3(11.5%)	0
2.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국어 영역은?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문학				
10(38.5%)	1(3.8%)	2(7.7%)	7(26.9%)	6(23.1%)				
3. 공부 방법의 선호도는?								
읽기 시간				이야기세상(동아리부 활동)				
21 (80.8%)				5 (19.2%)				
4. 제주설화를 공부하면서 말하기, 듣기 활동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1(42.2%)	6(23.1%)	8(30.9%)	1(3.8%)	0				
5. 제주설화를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글쓰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6(23.1%)	6(23.1%)	12(46.1%)	2(7.7%)	0				
6. 제주설화를 공부하면서 수업에 대해 흥미가 생겼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7(26.9%)	12(46.2%)	6(23.1%)	1(3.8%)	0				
7. 제주설화를 공부하고 나서 제주설화에 흥미가 생겼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1(42.3%)	5(19.3%)	7(26.9%)	2(7.7%)	1(3.8%)				

8. 제주설화를 공부하고 나서 여러 수업활동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0(38.5%)	9(34.6%)	7(26.9%)	0	0			
9. 알고 있는 우리 제주설화(중복)							
설화제목	삼성신화(고을라 양을라 부을라	설문대할망	대별왕 소별왕	가문장아기	자청비		
내용 말하기	0	24(92.3%)	26(100%)	26(100%)	26(100%)		
10. 제주설화를 공부할 때 제일 재미있었던 방법(택 1가지)							
이야기 듣기	역할극 하기	캐릭터로 나타내기	뒷이야기 상상하기	몸동작으로 나타내기	독후감 쓰기	이야기 읽기	편지글 쓰기
11(42.3%)	1(3.8%)	1(3.8%)	9(34.7%)	0	1(3.8%)	3(11.6%)	0

사전 설문에서 국어를 제일 좋아한다는 응답은 3명이었지만 사후 설문에서는 9명(34.6%)이 응답하여 국어 관련 활동인 이야기세상의 선호도가 23.1% 향상하여 통합 지도 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좋아하는 국어 영역도 사전 조사에서는 읽기를 10명(38.5%)이 선택하였으나 통합 수업 후에는 듣기와 문학 활동을 선호한 경우가 38.5%, 23.1%로 각 11.5% 향상하였다. 말하기, 듣기 활동에 비해 글쓰기 활동은 선호도가 높지 않아 요즘 글쓰기 활동을 싫어하는 현상이 반영된 것 같다. 그리고 각 교실에서의 읽기시간에 배우는 문학작품보다 이야기세상에서 배우는 통합 지도 형식의 학습을 19명(73.1%)이 재미있다고 응답하여 통합 수업을 학습자들이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설화를 공부하면서 말하기, 듣기 활동에 집중하게 된 경우는 17명(65.4%)이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 글쓰기를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은 12명(46.2%)으로 나타났다.

제주설화를 공부하면서 수업에 흥미도가 높아진 경우는 19명(73.1%)이, 제주설화에 흥미가 생겼다는 응답은 16명(61.5%), 자신감이 생겼다는 응답은 19명(73.1%)로 통합 활동이 학습자의 정의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통합 지도의 방법 중에서는 이야기듣기와 뒷이야기 상상하기를 11명(42.3%)과 9명(34.6%)이 각각 제일 재미있는 방법으로 선택하여 연구자에게 몇 가지의 아이 디어를 제공하여 주었다.

첫째, 저학년뿐만 아니라 중학년에서도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상상력, 사고력, 창의력, 표현력, 언어 능력의 발달에 도움을 줌으로써 심미적 감상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책을 읽어주는 일은(박연순, 2009, p. 26) 어린이가 자연스럽게 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상상력, 사고력, 창의력, 표현력, 언어 능력의 발달에 도움을 줌으로써 심미적 감상력을 기를 수 있다. 교사가 책을 읽어주면서 상황에 따라 인물이 지녔을 감정들을 느껴보게 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살펴보게 하였던 점, 결정적인 장면에서 등장인물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 점,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고 적어 보게 한 점 등 교사가 그림책에 있는 그대로 읽어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책의 그림을 보며 등장인물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생각과 느낌을 지닐 여유와 기회를 준 점 등이 정서인식, 감정이입, 정서조절 영역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다.

둘째, 뒷이야기 상상하기는 연꽃기법 활용한 새로운 이야기 꾸미기처럼 어떤 제한 없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데 좋은 시사점을 주었다. 이것은 설화의 기능 중 하나인 구전되는 과정에서 화자에 따라 자유롭게 이야기가 변형되는 형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의적인 글쓰기 활동은 자신들의 독창적 표현 욕구를 이미 체험한 문학 경험과 결합하여 적극적인 문학 감상 활동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가치의 내면화를 확대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두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학습지 분석

1) 〈가문장아기〉 활동 결과

이야기의 줄거리와 등장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인드 맵 기법을 활용하여 책 내용 알기를 먼저 하였다. 이야기 내용이 길어서 애니메이션 작품을 여러 번 보고 들으면서 교사와 함께 활동하였다. 등장인물과 주요한 사건을 마인드 맵

으로 파악한 후 <가쁜장아기>의 줄거리를 만화로 표현하는 활동과 등장인물의 모습과 주인공이 한 일을 표현하는 활동을 했더니 학습자들이 쉽게 중요한 사건과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 나갔다. 등장인물 그리기에서는 거짓말을 하였다가 벌을 받는 은장아기, 늦장아기와 가쁜장아기를 내쫓았다가 거지가 되는 부모를 주로 표현하면서 설화속의 교훈소를 찾아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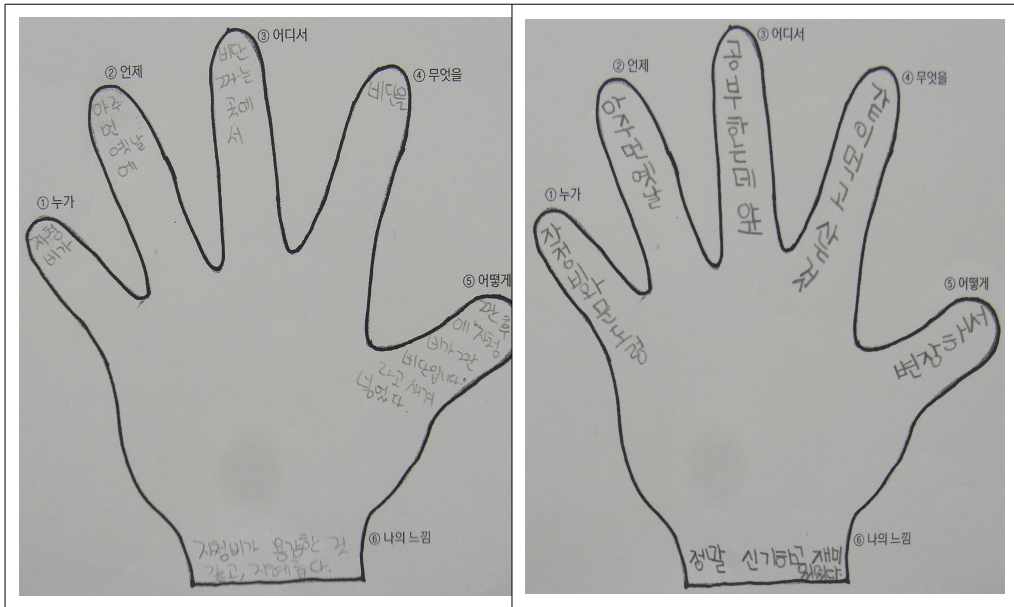
[그림 14] 주요 사건과 인물이 한 일 찾기

책 내용을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활동에서는 집에서 쫓겨 가는 가문장아기와 거지 잔치 후에 눈을 뜨는 장면을 가장 선호하였다. 미리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장면을 설정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면 다른 친구들은 인물의 인상적인 몸짓을 표현한 장면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맞히는 활동을 하였다.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표정과 몸동작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표현을 하도록 하였다. 모둠별로 가문장아기 이야기의 주요한 장면을 즉석 역할극으로 표현해보았는데 아쉬운 점은 제주어로 원고를 미리 준비해서 하지 못한 점이다. 제주어로 역할극을 해 보았다더라면 실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더욱 흥미로운 활동이 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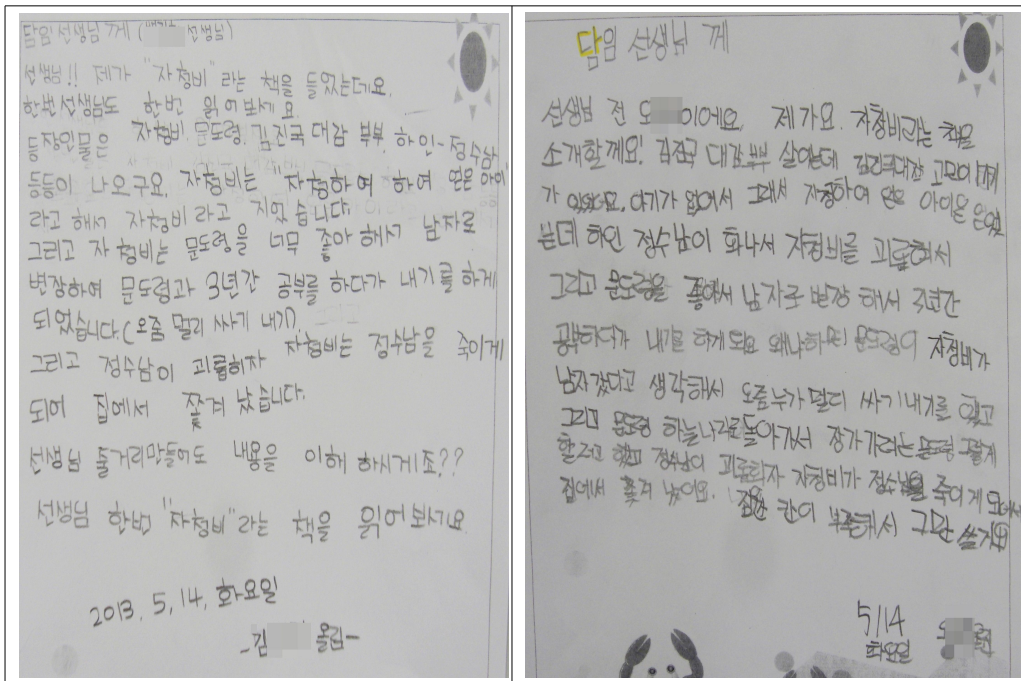
2) 〈자청비〉 활동 결과

구어체로 된 자청비 이야기를 선택하여 구전문학에 가까운 형식을 빌려 처음에는 교사가 읽어주고 다음에는 친구들이 앞에 나와 차례대로 돌려 읽기를 했는데 실감나게 읽어 주어서인지 집중이 잘 되고 서로가 여러 사람 앞에서 대표로 읽기를 자청하였다. 인물의 성격 찾기에서는 자청비의 성격으로 용감하다, 지혜롭다, 생각이 깊다, 욕심이 있다, 부지런하다 등을 찾아냈다. 문도령은 부지런하다, 솔직하다, 눈치가 없다, 비겁하다고 하였고 그 밖의 인물에 대해서도 성격 파악을 잘 하고 있었다. 인상 깊은 장면 찾기에서는 환생꽃으로 사람을 살리는 장면, 오줌 싸기 내기를 하는 장면, 문도령의 혼례복을 짜면서 자청비가 자기 이름을 넣은 장면 등을 선택하였다. 등장인물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지 그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면서 줄거리 간추려 말하기는 손가락 원고지 방법을 활용하였다(그림 15).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였기 때문에 막연하게 줄거리를 말할 때보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지만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권유하는 문장과 높임말을 사용하여 담임선생님께 자청비 이야기를 소개하는 편지글을 써 보았다. 편지글의 형식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재미있는 장면을 중심으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해 보았다(그림 16).

제주설화의 특징 중 하나의 여성들의 활약을 보면서 남자들에 의해 운명이 좌지우지 되지 않고 여자이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가는 모습을 찾아냈다.



[그림 15] 손가락 원고지로 표현하기



[그림 16] 소개하는 글쓰기

3) <대별왕 소별왕> 활동 결과

이 활동에서는 저널쓰기의 한 방법을 이용하여 뒷이야기 상상하여 글쓰기를 하였다. 이야기를 하이라이트 부분인 소별왕이 대별왕의 꽃을 바꾸기 전까지 들려주고 뒤에 이어질 이야기를 상상하도록 하였다. 이야기와 연결되기 위하여 등장인물과 즐거리를 먼저 파악하고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도록 하였더니 새로운 등장인물과 소재를 활용하여 앞의 이야기와 연결되면서도 사건을 다양화시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갔다.

대별왕이 잠자는 사이에 소별왕이 정원사랑 꽃을 키우는 사람을 데려와서 대별왕의 꽃을 더 키우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소별왕이 형 몰래 갖고 왔는데 실수하여 은 접시가 깨져서 결국 꽃이 죽어 버렸다. 그래서 대별왕이 내기에서 이겼다. 소별왕은 귀한 사람을 살리는 생물을 뿌려 꽃을 살렸다. 그리고는 언제나 자기를 이기는 대별왕을 몰래 죽이려고 했는데 천지왕에게 들통 나서 결국 소별왕이 항복을 해서 원래대로 저승세계를 다스리게 되었다.

-3학년 6반 이00-

소별왕은 꽃을 잘 가꾸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몰래 그 사람한테 가꾸게 하는 반칙을 썼어. 그러자 소별왕이 키우는 꽃이 무럭무럭 잘 자랐어. 대별왕이 깜짝 놀라서 물었지.

“어째서 갑자기 시들었던 꽃이 이렇게 풍성하게 가꾸었느냐?”

그러자 소별왕이 대답했지.

“다 내가 시들어 있을 때 열심히 가꾸었기 때문입니다.”

소별왕이 거짓말을 했어. 그래서 대별왕이 하던 이승 담당을 소별왕이 하게 되었지. 그러자 소별왕이 너무 미안해서 사실을 다 털어놨지. 그런데 마음씨가 착한 대별왕은 모두 이해해 주었어.

“괜찮아, 가끔은 욕심도 부릴 수 있지.”

그러자 소별왕은 반성을 하고 대별왕처럼 착하게 저승을 다스리면서 살았어.

-3학년 4반 임00-

소별왕이 자기가 키우고 있던 것과 형이 키우던 꽃을 바꿔치기하고 잠을 자는데 천지왕이 다 보고 있었지. 그래서 천지왕이 별로 꽃을 시들게 해버렸네! 그래서 소별왕은 내기에서 지게 되었지. 천지왕이 소별왕에게 왜 이승을 다스리고 싶냐고 물어봤지, 소별왕은 저승은 너무 어두워서 무섭워서 그랬다고 했지. 그랬더니 천지왕이 그럼 1주일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며 담당하라고 했어. 대별왕과 소별왕은 그 말에 둘다 흡족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래서 소별왕의 욕심도 사라지고 이승과 저승은 평화로워지게 되었지.

-3학년 2반 송00-

[그림 17] 대별왕 소별왕 뒷이야기 꾸미기

제주설화를 활용하여 생각확장하기 활동에서는 연꽃기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이야기 꾸미기와 제일 좋아하는 제주설화를 친구에게 소개하는 편지글 쓰기를 하였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낱말을 8개를 선택하고, 그 낱말을 사용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꾸며 나갔다. 들려준 제주설화가 구어체로 되어 있어 학생들의 글도 구어체의 글이 많았다. 한 학생은 자청비가 정수남의 치근덕대는 장면을 패러디하여 이야기를 꾸미기도 하고, '옛날 옛적에'라는 옛이야기의 형식을 빌려 글을 쓰기도 하였다(그림 18). 친구에게 책을 소개하는 글에서는 가장 재미있는 장면을 중심으로 권유하는 문장을 사용하여 글을 쓰고 있다(그림 19).

대별왕	소별왕	천지왕
해	내가 선택한 제주설화 (대별왕 소별왕)	달
활	은 그릇의 꽃	총명부인

내가 꾸민 이야기 제목: 마법의 해와 소별왕

옛날 옛적에 **대별왕**이 **총명부인**과 살았는데 어느 날, 대별왕이 친구 **소별왕**을 보았어. 소별왕은 대별왕과 함께 **해**와 **달**이 있는 것을 보고 **활**로 해를 쏘았어. 그러자 해는 없어져 버리고 매일 깜깜한 밤이 계속 되는 거야. 그래서 소별왕은 어쩔 수 없이 **천지왕**에게 어떻게 하면 해가 다시 뜰 수 있는지 방법을 물어보고 알아냈어.

소별왕은 **은 그릇에 꽃**을 가꾸었지. 꽃은 무럭무럭 잘 자랐어. 그러자 갑자기 꽃이 하나씩 뜰기면서 꽃잎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더니 어느새 해가 되었어. 원래 그 꽃은 해꽃이었던 거야. 대별왕과 소별왕은 깜짝 놀라 얼굴이 빨개졌어. 그래서 해가 지금도 빨강다고 해.

-3학년 1반 이00-

[그림 18] 새로운 이야기 꾸미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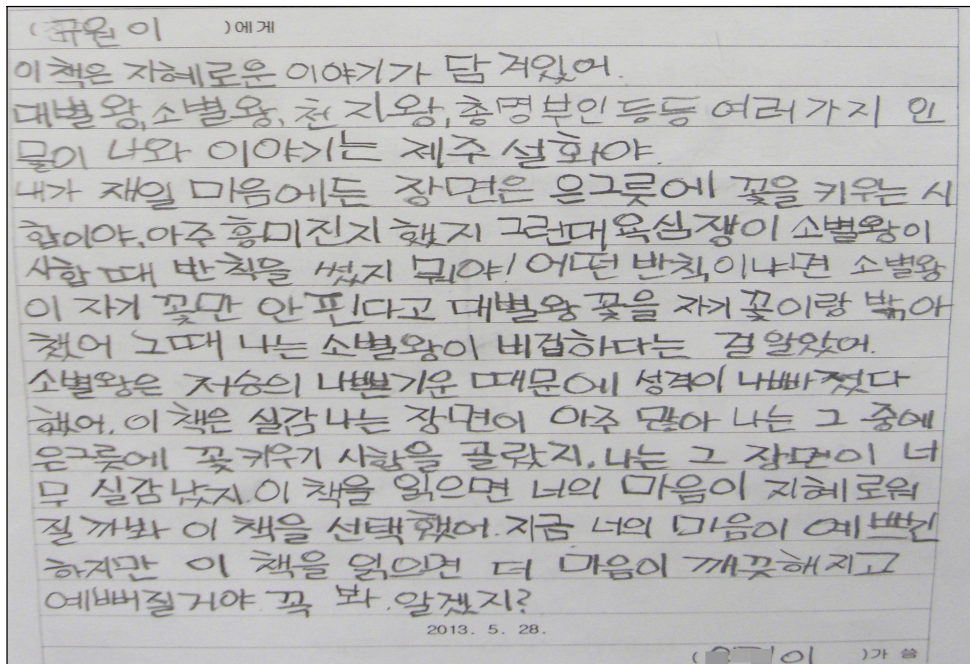
은그릇	꽃 키우기	수명장군
총명부인	내가 선택한 제주설화 (대별왕 소별왕)	저승
박 씨앗	천지왕	이승

내가 꾸민 이야기 제목: 천지왕과 총명부인의 결혼식

총명부인과 **천지왕**이 결혼을 하고 있는데 **수명장군**이 총명부인을 좋아해서 결혼식을 방해했어. 그래서 손님들은 도망을 가고, 천지왕은 화장실에 갇혀버렸어. 수명장군이 총명부인에게 결혼하자고 하니 총명부인은 돈 많은 남자가 좋다고 했지, 수명장군은 **은그릇**을 자랑해서 총명부인은 **꽃을 키우는** 남자가 좋다고 했어. 그래서 수명장군은 **박 씨앗**이라는 전설의 씨앗을 키워 부인에게 보여줬는데 이번엔 땅이 많은 남자가 좋다고 했어. 그런데, 어렵게 탈출한 천지왕이 그 장면을 엿보다가 **저승**을 찍은 사진을 수명장군에게 슬쩍 줬지. 그러자 저승세계가 너무 마음에 든 수명장군은 총명부인을 포기하고 저승세계로 떠나버리고 천지왕과 총명부인은 이승을 다스리면서 행복하게 살았다.

-3학년 4반 노00-

[그림 19] 새로운 이야기 꾸미기 2



[그림 20] 친구에게 소개하는 글쓰기

다. 면담 일지 분석

면담 일지 <부록 6>를 분석해 보면, 제주설화가 생소했던 학생들이라서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의 작품에 비해 참여도와 흥미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교사: 제주 옛이야기 중에서 ‘가문장아기’라는 내용을 가지고 8차시 동안 공부해 왔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던 이야기인가요?

전체: 아니에요.

교사: 그런데, 주인공이 왜 가문장아기라고 했나요?

현민: 검은 나무 그릇에 있는 음식을 먹고 자라서 가문장아기라고 했어요.

~

교사: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는 사랑과 농사의 여신 ‘자청비’를 공부했어요. 재미있었나요?

같이: 네!!

교사: 그럼, 누가 제일 재미있었던 내용 말해줄래요?

동훈: 자청비가 남자차림으로 문도령이랑 서서 오줌 멀리 싸는 내기가 제일 웃기고 재미있는데요.

유림: 저는 서천꽃밭에서 환생꽃을 얻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진짜 신기하던데요.

~

그림책이 단점이 등장인물이나 배경 등에 대해 이미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상상하는데 제약이 있는 반면, ‘가문장아기’ 플래시동화는 그림자극의 형태로 등장인물과 배경을 처리하고 있어서 등장인물 꾸미기 활동을 할 때에 학생들이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다.

교사: 제주 옛이야기 중에서 ‘가문장아기’라는 내용을 가지고 8차시 동안 공부해 왔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던 이야기인가요?

전체: 아니에요.

교사: 그런데, 주인공이 왜 가문장아기라고 했나요?

현민: 검은 나무 그릇에 있는 음식을 먹고 자라서 가문장아기라고 했어요.

~

그리고 그리스로마 신화 등에서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대부분 영웅인 남자가 중심인데 제주설화에선 두 편이나 여자 주인공이라서 여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두 주인공이 어려운 고비마다 노력하여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제주설화의 특징인 긍정적인 여성상을 찾아 내면서 남성에 지배당하지 않고 씩씩하게 자기의 삶을 개척하는 제주여인의 삶을 통해 자아 개념 형성에도 긍정적이었다.

~

연서: 저도 가문장아기처럼 내가 맘에 안 드는 친구는 변신시켰으면 좋겠어요.
석현이가 매일 놀려요!

유림: 집에서 쫓겨나서 고생하면서도 나중에 부자가 된 가문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교사: 가문장아기가 부지런히 노력해서 자기의 처지를 이겨내는 것은 정말 같은 여자지만 자랑스럽다. 가문장아기 핫이팅 한 번 해주자!

같이: 가문장아기 핫이팅!!!

~

~

채은: 저도 여자가 주인공이고 남자랑 오줌싸기 게임에서도 이기는 게 너무 통쾌해요.

교사: 채은이가 좋은 얘기 해주었네, 제주설화에 주인공은 대개 여자가 많단다. 총명부인, 백주또, 영등할망, 설문대 할망 등등 그래서 제주를 삼다라고 했을까?

동욱: 정수남이 죽고 부영이가 된 것도 신기해요.

민서: 자청비가 하늘에서 사는 대신 곡식 씨앗을 달라고 할 때엔 감동받았어요.
저라면 하늘나라에서 편하게 산다고 할 텐데요.

~

그리고 제주설화를 활용하여 학습하면서 우리 고장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졌고, 스스로 찾아 읽으려는 평생 독자의 태도가 형성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교사: '이야기세상'에서 제주설화를 공부하면서 좋았던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서현: 전 제주설화에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지 몰랐어요. 다음에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서 대출해야지!

지은: 친구들이랑 선생님이 책을 읽어 주니까 2학년때 수요일마다 '책 읽어주는엄마' 시간이 생각났어요. 혼자 읽는 거보다 더 재미있어요.

~

V. 결론

초등학교 국어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창의적 국어 능력 향상’이다. 이러한 국어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5차 국어과 교육과정 시행 후 언어 사용 기능 신장을 위해 교과서를 영역 별로 분책하여 가르쳐 왔으나 여러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통합적인 국어교육에 강조점을 두어, 학습자가 언어 상황에서 실제 사용하게 되는 다양한 담화와 글의 종류와 수준을 정해 주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매체 속에서 언어 경험을 중시하고 실제 통합적인 언어활동 상황의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방법의 교수·학습 계획에서 통합 지도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통합 지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언어의 통합적 성격을 살리고자 노력하나 현재의 분권화된 교과서 체제로 인해 수업상황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영역을 구별하고 있다.

문학을 중심으로 한 언어 지도의 경우, 학생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사용된 언어가 좀 더 높은 수준의 언어라고 볼 수 있으며, 문학을 중심으로 영역의 통합적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황을 구성하기가 쉽다.

문학작품 중에서 우리 고장의 정서와 문화를 배울 수 있고,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언어 영역을 통합할 수 있는 소재인 제주설화를 활용하여 언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학을 즐기는 평생 독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하고 실행하였다.

제Ⅱ장에서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우선 국어교육에서의 통합의 이론적 배경을 살핀 후, 통합 개념과 유형, 필요성과 지도방법을 밝혔다. 그런 후에 아동문학 중심의 통합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설화의 성격과 기능, 교육적 의의와 제주설화의 특징을 살피면서 국어과 통합 지도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아동문학중심의 통합 원리와 제주설화의 선정기준을 정한 후 3학년의 언어 기능 영역별 성취 기준을 분석하여 서로 연관성이 있어 통합 지도하는 것이 효율적인 성취기준을 추출한 후 제주설화를 중심으로 통합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안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제주설화 3편을 활용하여 총 20차시에 걸쳐 통합 지도 프로그램

을 적용한 후 사전, 사후 설문지 비교, 관련 학습지 분석, 면담일지 분석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영역 간 통합 활동을 실시한 후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설화 속 환경과 인물을 새롭게 설정하여 재구성한 자신과 친구들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며 학습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설화라는 장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둘째, 학생들이 짙막한 서사문학인 설화의 구성이나 뒷이야기 꾸며 쓰기, 연꽃기법을 활용한 이야기 다시 쓰기 활동을 해 봄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이끌어 낼 수 있어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은 제주설화를 활용한 통합 지도 프로그램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창의적으로 의미를 재구성하였으며 내면화된 의미를 독창적으로 표현해냈다.

넷째, 통합 지도를 통하여 학생들은 국어에 흥미를 가지게 되고, 설화작품을 읽으면서 쓰기를 하고 쓰기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읽으면서 문학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통합 활동이 학습자의 정의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나타낸다.

다섯째, 학생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제주 지역의 설화에 대하여 긍지와 흥미를 갖게 되었으며 설화의 내용 요소와 교훈 모티브를 바르게 파악하였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향토성 짙은 설화를 활용하여 통합 지도함으로써 언어 사용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화를 향유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설화의 여러 유형 중 신화에 한하여 통합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기에 민담이나 전설을 활용하는 연구가 폭 넓게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제주설화를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매체 언어로 표현될 필요가 있다. 동화책 형태의 글 위주의 제주설화는 다수 있으나 그림위주의 그림책형태의 제주설화는 없고, 애니메이션으로 표현된 제주설화는 4편으로 교재화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멀티미디어와 스마트교육이 대세인 지금에 이와 관련된 제주설화가 제작된다면 통합 지도 자료로 선정하기가 수월하여 현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강인애. (2003). **우리시대의 구성주의**. 서울: 문음사.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 (2011). **고려대 한국어대사전(ㄱ-ㅎ)**.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교육부. (2001). **초등학교 해설**. 교육부 고시 1997-15.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과학기술부. (2010).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고양: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_____. (2012). **초등학교 국어 3-1 교사용 지도서**. 서울: (주) 미래엔.
- _____. (2012). **초등학교 국어 3-2 교사용 지도서**. 서울: (주) 미래엔.
- 김기창. (1992). **한국구비문학 교육사**. 서울: 집문당.
- 김영돈, 현용준, 현길언. (1985). **제주설화집성(1)**. 제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김장성. (2007). **세상이 생겨난 이야기**. 서울: 사계절.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0). **제주도 무속**. 서울: 계문사.
- 선주원. (2013).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아동문학교육론**. 서울: 박이정.
- 신헌재, 권혁준, 광춘옥. (2007). **아동문학과 교육**. 서울: 박이정.
- 신헌재, 길형석, 이재승, 이경화, 김도남, 임천택. (2001). **학습자 중심의 국어과 수업 방안**. 서울: 박이정.
- 신헌재, 이재승. (1994). **학습자 중심의 국어교육-그 원리와 방법**. 서울: 서광학술자료사.
- 신헌재 외 10. (2005). **초등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서울: 박이정.
- 양영수. (2011). **세계 속의 제주신화**. 서울: 보고사.
- 이성은. (1994). **총체적 언어교육-교실 적용의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 _____. (2003). **아동문학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_____. (2005). **아동을 위한 총체적 언어교육-실체와 매체로서의 언어적 관점**.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장덕순, 조동일, 서대석, 조희웅. (1971). **구비문학개설**. 서울: 일조각.
- 전국초등국어교과모임. (2009). **교육연극으로 여는 국어수업**. 서울: 나라말.
- 정혜승, 전지영, 박나현, 지인옥, 하수민. (2006). **창의성 계발을 위한 국어과 교수-학습 전략**. 서울: 사회평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09). 2007년 개정교육과정 및 학교 자율화 조치에 따른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제주: 시민당인쇄사.
- _____. (2011). 제주특별자치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_____. (2012). 제주특별자치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제주: 온누리디앤피.
- 진성기. (2001). 그리스신화보다 그윽한 신화와 전설-제주도 전설집. 제주: 제주민속연구소.
- 최운식. (1991). 한국설화연구. 서울: 집문당.
- 최운식, 김기창. (1988). 전래동화 교육론. 서울: 집문당.
- 현길언. (1981). 제주도의 장수설화. 서울: 흥성사.
- 현동훈 엮음. (2010). 아빠가 들려주는 제주설화. 서울: 스토리하우스.
- 현용준. (1986). 제주도 무속 연구. 서울: 집문당.
- 현용준, 현승환 역주. (1996). 제주도무가.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황정현. (2001). 창의력 계발을 위한 동화교육 방법론-교육연극 방법 중심으로. 서울: 열린교육.
- 황정현, 우미라. (2007). 아동문학교육론-다중지능이론을 중심으로. 서울: 박이정.
- K. Goodman. (1993). 전체언어에서 전체란 무엇인가?(이화자 역). 서울: 한국문화사.
- N. N. Spivey. (2004). 구성주의와 읽기·쓰기(개정판)(신현재 외 역). 서울: 박이정.
- 제니퍼 메이슨. (2008). 질적 연구방법론(김두서 역). 파주: 나남출판.
- 존 스테위그, 캐롤 뷰에지. (2004). 총체적 언어교육을 위한 교육연극(황정현 역). 서울: 평민사.
- 키런 이건. (2008). 상상력을 활용하는 교수법(송영민 역). 서울: 울력.
- <학술지>
- 김병수. (2006). 학습자 중심 국어 수업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연구소 제3회 전국학술대회, 청주: 한국교원대학교.
- _____. (2012). 초등학교 국어 수업 전문성 신장 방안. 창의·인성모델학교 세미나

- 나 자료, 제주: 광양초등학교.
- 김상욱. (2008). 문학에 바탕을 둔 읽기/쓰기 통합의 방법과 의의. **한국초등국어교육**, 38, 463-496.
- 박인기. (2006). **미래 사회의 바람직한 인간상과 초등국어과 교과서의 성격**. 한국초등국어교육연구소 제3회 전국학술대회, 청주: 한국교원대학교.
- 박인기, 이수진. (2005). **국어과 통합 단원 개발의 원리와 실제**. 제24회 경인초등국어교육학회 하계연구발표, 인천: 경인교육대학교
- 이관규. (2011). 통합적 국어교육의 가치와 '독서와 문법'. **국어교과교육연구**, 18, 91-117.
- 이재승. (2006). 통합적 국어교육의 개념과 성격. **한국초등국어교육**, 31, 171-190.
- 임미성. (2002). 통합적 국어교육을 위한 교과서 구성 방안. **한국초등국어교육**, 21, 1-36.
- 임칠성. (2011). 국어과 교육과정의 현실과 지향. **국어교과교육연구**, 18, 7-37.
- 천경록. (2009). 읽기와 쓰기의 통합 단원 개발 방향. **한국초등국어교육**, 39, 536-557.
- 황정현. (2009). 21세기 사회와 초등국어교육의 방향. **한국초등국어교육**, 39, 562-584.

<인터넷사이트>

가쁜장아기. 예스24국내플래시동화.

(<http://www.yes24.com/ChYes/FlashViewer.aspx?gn=7221230&name>)

너는 특별하단다. 예스24플래시동화.

(<http://www.yes24.com/ChYes/FlashViewer.aspx?gn=248906&name>)

김정숙. (2012, 2013). 김정숙의 제주신화. [제주의 소리].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

천지왕과 창세기, 애니메이션 한국설화.

(<http://www.i-scream.co.kr/rest/movie.asp?page=3&menuCode=15659&bCode=15665&sCode>)

한국민속대백과사전(<http://folkency.nfm.go.kr/main/main.jsp>)

<논문집>

고정연. (2006). **설화의 통합적 교육방법 연구-아기장수 우투리를 중심으로**.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서울.

고희주. (2003). **제주설화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제주.

- 권익흠. (2009). 읽기·쓰기의 통합 단원 구성 방안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춘천.
- 길현주. (2012). '이야기판 체험'을 통한 설화교육 방안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인천교육대학교, 인천.
- 김미라. (2007). 읽기·쓰기를 통합한 설화 지도 방안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구.
- 김병수. (2010). 초등학교 국어과 통합적 수업 방안 연구.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청주.
- 김서영. (2002). 창의력 신장을 위한 설화 교육의 교수-학습 모형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김영주. (2009). 주제중심 통합학습에 대한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공주.
- 김효진. (2009). 아동문학 중심 통합 지도 방안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청주.
- 문해란. (2005). 초등학교 교과서 수록 설화의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경산.
- 박미정. (2008). 초등 국어과 생태학적 평가 방안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서울.
- 박순숙. (2011). 아동아동문학 중심 초등국어과 통합 지도 방안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청주.
- 박신영. (2008). 설화의 교과서 수록 변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용인.
- 박연순. (2010). 그림책을 활용한 국어과 통합교재 구성 방안.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부산.
- 박희순. (2003). 교육연극 방법을 통한 제주설화의 교재화 방안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제주교육대학교, 제주.
- 서상현. (2006). 설화 시 쓰기를 통한 중학교 설화 교육의 한 사례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용인.
- 양소영. (2006). 국어과 내적 통합에 관한 메타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청주.

- 오경숙. (2010). **문학중심 통합 단원 구성 방안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공주
교육대학교, 공주.
- 유현옥. (2004). **생태학적 관점의 읽기 평가 방안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한
국교원대학교, 청주.
- 이선영. (2010). **듣기·말하기 방식을 통한 고등학교 설화 교육방법 연구**. 미출
판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인천.
- 전수지. (2008). **상호 소통과 삶의 체험 대상으로서의 설화교육**. 미출판 석사학
위논문, 단국대학교, 용인.
- 정지영. (2006). **국어교과서의 통합적 구성에 관한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한
국교원대학교, 청주.
- 정혜실. (2011). **교과 통합적 국어교육 방안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인천대
학교, 인천.
- 조미경. (2011). **단편소설을 통한 반응중심 독서교육 방안**.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전
주대학교, 전주
- 추재훈. (2013). **설화모티프 시 교육방법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부산

Abstract

A Study on Integrated Teaching Methods for Elementary Korean Language using Jeju Legends

Kim, Gyeong Ae

**Major in elementary Korea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Lee, Ju Seop

The ultimate goal of elementary Korean education is an ‘improvement of creative Korean language ability.’ To achieve such goal, the textbook was taught by section to improve language use skill improvement after the 5th Korean language education curriculum, but it caused many problems. To solve such problem, 2007 revised Korean language education curriculum focused on the integrated education which set level and types of various narratives and writings which learners actually used in language situation. And by suggesting integrated instruction contents in the learning and teaching plan specifically, integrated instruction is stressed. As such, although the educational curriculum and textbook stress integrated character of language, the current divided textbook system classified listening, reading, speaking and writing separately.

As for language instruction focusing on juvenile literature, language is higher level attracting interests of students which makes it easier to construct situation for integrated activities. In the literature works, Jeju legends was used to improve language ability and to encourage literature for a life time while learning emotion and culture of our village.

Chapter II examin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integra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followed by integration concept, type and necessity and instruction method. Then, the necessity of integration focusing on juvenile literature was discussed and characteristics, function and educational meaning of folk tale and features of Jeju folk tale were examined to lay a theoretical foundation of the integrated Korean language education.

Chapter III set integrated principle of juvenile literature and selection criteria of Jeju legends. Then, it analyzed achievement standard by section to extract integrated instruction method for efficient standard. And the integrated instruction plan was devised based on Jeju legends.

Chapter IV applied the integrated unit and got the below results through pre and post questionnaire survey comparison, related home school materials and interview report.

Firstly, after the integrated activities between sections, students reconstructed environments and figures in the legends based on their experience and value for active incorporation with learning activities.

Secondly, students were engaged in re-writing activities with decorating writing and re-writing using lotus method as short narration literature to raise creativity and imagination with various ideas.

Thirdly, students reconstructed meanings of Jeju legends by active participation of the integrated instruction program and expressed internalized meaning uniquely.

Fourthly, students could improve interests in Korean language through integrated instruction, and could improve literary sense and creativity by means of reading and writing legends.

Fifthly, students could improve their pride on legends of Jeju and could figure out contents and educational motif of legends properly. And, students could learn an attitude to understand Jeju culture as well as language ability by means of integrated instruction using legends.

Key words: integrated instruction, Jeju legends, legends education,

부록

- 부록 1 설문지
- 부록 2 <대별왕 소별왕> 내용
- 부록 3 <가문장아기> 내용
- 부록 4 <자청비> 내용
- 부록 5 학생 학습 결과지
- 부록 6 면담일지

5. 제주도에 신화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은가요?

- ① 예 ② 아니요

6. 다음은 우리 제주의 유명한 설화들입니다. 내용을 알고 있는 것에 O표 해주
세요.

설화제목	삼성신화(고을라 양을라 부을라)	설문대할 망	대별왕 소별 왕이야기	가문장 아기	자청비와 문도령
제목만 들어 봤어요					
어떤 내용인 지 말할 수 있어요					

7. 제주설화에 대해 공부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싶은가요? 1가지만 골라주
세요.

이 야 기 들 기	역 할 극 하 기	캐릭터로 나타내기	뒷이야기 상상하기	손 인 형 극 하 기	독 후 감 쓰 기	독서감상화 로 나타내기	편 지 글 쓰 기

나. 통합 수업 후 학생 반응 조사 설문지

통합 수업 후 학생 반응 조사 설문지

3학년 ()반

※ 다음은 여러분이 제주설화를 어떻게 공부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O표나 답을 해주세요.

1.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이야기세상	도덕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영어

2.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국어 영역은?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독서 활동

3. 읽기 시간에 문학작품을 공부하는 것과 '이야기세상'에 제주설화를 공부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재미가 있나요?()

- ① 읽기 시간 ② 이야기세상(동아리부 활동)

4. 제주설화를 공부하면서 말하기, 듣기 활동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5. 제주설화를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글쓰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6. 제주설화를 공부하면서 수업에 대해 흥미가 생겼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7. 제주설화를 공부하고 나서 제주설화에 흥미가 생겼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8. 제주설화를 공부하고 나서 여러 수업활동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9. 다음은 우리 제주의 유명한 설화들입니다. 내용을 알고 있는 것에 O포 해주세요.

설화제목	삼성신화(고을라 양을라 부을라)	설문대 할망	대별왕 소별왕	가문장 아기	자청비와 문도령
어떤 내용인지 말할 수 있어요					

10. 제주설화를 공부할 때 제일 재미있었던 방법을 1가지만 골라주세요.

이야기 듣기	역할극 하기	캐릭터로 나타내기	뒷이야기 상상하기	몸동작으로 나타내기	독후감 쓰기	이야기 읽기	편지글 쓰기

<부록 2> [대별왕 소별왕] 내용

본디 세상에는 수명장자라는 힘이 센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 수명장자는 위세를 부리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에겐 사나운 짐승들, 즉 날쌔고 사나운 소, 말, 개가 각각 9마리나 되었다. 그리고 수명장자는 자신에게 대적하는 이들에게 이 짐승들을 풀어 공격하였다.

이러한 수명장자를 제어하기 위하여 옥황상제 천지왕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리고 수명장자와 대적하여 결국 무릎을 꿇게 만들고, 철테를 씌워 수명장자를 옥죄하자, 수명장자는 오히려 종을 불러 머리가 아프니 도끼로 머리를 베어라고 호통을 친다. 이를 본 천지왕은 다시 철테를 벗기고 백주할멈의 초가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백주할멈에게는 외동딸인 총명아가 있었다. 천지왕은 총명아기와 잠자리를 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대별과 소별이라는 이름을 붙이라는 말을 하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 이들은 커서 자신들이 아버지없는 자식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자 어머니인 총명부인에게 말을 하고, 총명부인은 사실을 말해주고 이들은 천지왕을 찾아간다.

천지왕이 이들이 자신의 아들들인지를 시험코자 무쇠로 된 활과 화살을 주자 형제는 먼저 동해바다로 가서 대별이 2개의 태양 중 하나의 태양을 쏘아 떨어뜨린다. 그리고 서해바다로 가서 소별이 2개의 달 중 하나를 쏘아 떨어뜨렸다. 이 태양과 달은 산산 조각나서 하늘의 별이 되고 이들이 천지왕에게 가자, 천지왕은 비로서 자신의 아들들임을 인정하고 또다시 과제를 준다.

바로 이승과 저승을 다스리라는 것으로서 그 판가름을 꽃을 가꾸는 것으로 한다. 대별의 꽃은 싱싱하게 잘 자라고, 소별의 꽃은 시들시들하게 잘 자라지 못하였다. 그러나 마지막 날 소별의 꽃이 생기가 넘치게 피고, 대별의 꽃은 누렇게 색이 바랬다. 대별은 소별이 서로의 꽃을 바꿨다는 것을 알지만 그냥 넘어가고 저승을 다스리게 된다. 대별은 대신 소별에게 비겁한 짓을 하였으니 이 세상에 최악이 퍼질 거라고 경고하며, 부디 자애롭게 세상을 돌보라고 한다.

소별은 이승으로 가서 수명장자를 찾아가 지상에서 횡포를 부리던 수명장자를 죽이자, 그의 몸에 있던 것들이 파리와 모기, 빈대, 벼룩 등이 되어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부록 3> [가쁜장아기] 내용

거지인 강이영성이서불과 흥운소천궁에궁전궁납이 결혼하여 딸 은장아기, 늦장아기, 가쁜장아기 세 명을 낳았다. 부부는 셋째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차츰 부자가 된다. 어느 날 아버지가 세 딸을 불러놓고 누구 덕에 먹고 사는가를 물으니 위의 두 딸은 부모 덕에 먹고 산다고 대답하지만 셋째 딸인 가쁜장아기는 자기의 배꼽 밑 선그릇줄 덕분에 먹고 산다고 대답한다.

화가 난 아버지가 셋째 딸을 내쫓으니 가쁜장아기는 검은 암소에 먹을 것을 싣고 길을 떠난다. 어머니는 쫓겨난 딸이 불쌍하여 마지막으로 식은 밥이라도 먹고 가게 하려고 위의 두 딸을 시켜 동생을 불러 오도록 한다. 그러나 언니들은 동생을 멀리 쫓아내려고 부모님이 때리러 온다고 거짓말을 한다.

거짓임을 알고 있는 가쁜장아기는 이를 껌씹하게 여겨 언니들을 청지네와 버섯으로 환생시킨다. 한편 부모는 딸들이 소식이 없자 문을 열고 나오다가 눈이 문 윗지방에 부딪쳐 장님이 되고, 이후 앉아서 먹고 입고 하다보니 재산이 탕진되어 다시 거지가 된다.

가쁜장아기는 길을 가다가 깊은 산 속에 있는 마통이 삼형제의 초가집에 도착한다. 일하고 돌아온 첫째 마통이는 집에 가쁜장아기가 있는 것을 보고, 우리 부모는 자기들이 애를 써 마를 파다가 배 불리게 해주니 지나가던 계집아이나 데려다 놓고 있다고 한다. 둘째 마통이도 똑같이 말한다. 그러나 셋째 마통이는 환히 웃으면서 우리 집에 검은 암소와 여자가 들어오니 하늘이 돕는 일이다 하면서 기뻐한다.

삼형제가 마를 삶아 첫째 마통이는 부모에게 먼저 태어나 많이 먹었으니 마의 목이나 드시라 하며 목을 주고 자기는 마 잔등을 먹는다. 둘째 마통이 역시 부모에게는 마 꼬리 부분을 준다. 셋째 마통이는 부모가 자기들을 낳아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으며,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면서 마 잔등을 부모에게 드린다.

또한 가쁜장아기가 흰 쌀밥을 하여 부모, 큰형, 둘째 형에게 순서대로 주었지만 모두 벌레 같다고 하며 안 먹는다. 하지만 셋째 마통이가 밥을 먹기 시작하자 형들이 동생에게 밥을 달라고 한다. 셋째 마통이는 그들에게 밥을 나누어 준다. 가쁜장아기가 가만히 보니 셋째 마통이가 쓸 만한 존재라 목욕을 시킨 후 함께 잠을

잔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가문장아기는 셋째 마통이에게 마를 캐는 곳에 구경을 가겠다고 하면서 함께 길을 나선다. 큰 마통이 있는 곳에는 똥만 가득하고, 둘째 마통이 있는 곳에는 지네·뱀 같은 미물만 가득하나 셋째 마통이 있는 곳에는 자갈이라고 흩어져 있는 것을 주워 흙을 터니 모두 금덩이와 은덩이가 된다. 셋째 마통이와 가문장아기는 이것을 검은 암소에 싣고 와 팔아서 큰 부자가 된다.

후에 가문장아기는 장님인 자기 부모가 거지가 되어 이리저리 돌아다닐 것을 생각하고 부모나 한번 찾아봐야겠다면서 백 일 동안 거지잔치를 벌인다. 석 달 열흘이 되던 날 자신의 부모가 결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자 가문장아기는 그들을 불러 그동안 살아온 말을 해 보라 한다. 부모가 지금까지 살아온 말을 마치자 가문장아기는 술잔을 권하며 자신이 가문장아기라고 말하니 부모는 그 순간 놀라서 술잔을 떨어뜨리고 눈도 뜨게 되었다.

<부록 4> [자청비] 내용

옛날 김진국대감과 자지국부인은 남부러울 것 없이 유복하게 살았지만 슬하에 자식이 없어서 걱정을 하며 지내다 백일까지 불공을 드리면 자식이 생길 것이라 스님의 말에 불공을 드리고 딸을 낳게 되었고 그 아이를 자청해서 낳았으므로 이름을 자청비라 했다.

자청비가 15세가 되자 아버지는 그녀에게 베틀을 만들어 준다. 여성으로서의 전형적인 일인 실을 곱게 잣고 조신한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일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어느 날 빨래를 하여 손이 고와졌다는 하녀의 말을 듣고 손빨래를 하러 나섰다가 공부하러 가는 하늘 옥황 문곡성의 아들 문왕성 문도령을 만나 사랑에 빠진다.

부모님에게 허락을 득한 자청비는 남장하여 자청비의 남동생인 것처럼 꾸며 문도령과 함께 글을 배우러 갔다. 몇 년 동안 한방을 쓰면서 공부를 하다가 문도령이 자청비가 여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자 이를 눈치 챈 자청비는 어느날 은대야에 물을 채우고 그 위에 은저, 놋저를 걸쳐두고 이렇게 해두고 자되 은저, 놋저가 떨어지지 않게 잠을 자야 공부가 잘된다고 하였다. 공부가 잘된다는 말에 문도령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젓가락들이 떨어질까 싶어 조심하다 보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공부 시간에 즐았고 그로 인해 점점 성적이 떨어졌다. 반면 자청비는 아무 걱정 없이 편히 자서 성적이 점점 올라 장원을 하였다.

문도령은 자청비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하루는 자청비에게 오줌 갈기기 시험을 하자고 하였다. 이에 자청비는 대나무 막대기 하나를 가랑이에 넣어두고 오줌을 누어 문도령을 이겼다.

그러던 어느날 문도령은 아버지에게서 글공부를 그만하고 돌아와서 서수왕의 딸아기에게 장가를 가라는 전갈을 받게 된다. 자청비는 서당을 떠나는 문도령에게 같이 왔으니 같이 가자고 하여 같이 서당을 떠나게 된다. 길을 가다가 자청비는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 각각 윗물통, 아랫물통에 가서 목욕을 하자고 하고는 버들잎에 자신이 여자임을 알아보지 못하는 문도령을 원망하는 글을 써놓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버린다. 이를 본 문도령은 자청비를 쫓아와 삼개월을 함께 보낸 후 하늘 옥황으로 올라간다.

어느 날 나무하러 간 정수남이 말과 소를 다 잡아먹고 문도령이 선녀들과 노는

것을 보느라고 그랬다며 핑계를 댈다. 이 말을 들은 자청비는 문도령을 만나려고 정수남이와 산으로 간다. 정수남이 자청비를 범하려 하자 자청비는 정수남을 죽여 버린다. 이 일로 집에 쫓겨난 자청비는 사라대왕의 딸과 거짓 혼인한 후 사람을 살리는 꽃을 구해 정수남이를 살려 두고 집을 떠난다.

베를 짜는 할머니와 살다가 쫓겨나는 등 온갖 고생을 겪다가 문도령을 만나게 된다. 문도령 부모는 자청비를 못마땅해 한다. 하지만 대국에 난이 나자 자청비가 서천꽃밭에서 가져온 싸움꽃과 수레멸망악십꽃을 뿌려 난을 평정을 하고, 남편 문도령을 사라대왕의 딸과 살게 한다.

난을 평정한 대가로 땅과 물을 내려주었으나 거절하고, 오곡의 씨앗을 받고 자청비는 문도령과 함께 칠월 보름날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 그래서 이 날에 백중제를 지내게 되었다.

자청비는 오곡의 씨앗을 뿌리다가 한 가지 가져오지 않은 것이 있어 급히 하늘에 다녀왔는데 다녀오고 보니 이미 파종 때가 지나있었다. 그래도 그 씨앗을 뿌리면 가을 때 같이 거둘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메밀씨이다. 이렇게 하여 문도령과 자청비는 농신(農神)인 세경이 되고, 정수남은 가축을 돌보는 우마신이 되어 칠월에 마불림제를 받아 먹게 되었다. 문도령을 상세경, 자청비를 중세경, 정수남을 하세경이라 부른다.

〈부록 5〉 학생의 학습 결과지

() 을 소개합니다.

4학년에는 어떤 것들이?

● 그 밖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 나의 감정: 행복하다
- 좋아하는 색: 파란색
- 가장 맘고 싶은 선물: 인형 (인형)

1. 자기 소개하기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

* 나는 소중한데요 3학년
이름: [Redacted]

오늘은 나에게 대해 생각해 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잘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해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그리고 내가 소중한 이유는 무엇일까?

~ 나는,
학교명: [Redacted]
학년반: [Redacted]
이름: [Redacted]

~ 내가 좋아하는 것은,
사람: 가족들
음식: 간편
장난: TV

~ 내가 소중한 이유는,
첫 번째: 살아있는 생명인 거서
두 번째: 이 세상에 없으면 안 되는
세 번째: 나 자신을 좋아하는 거서

~ 나의 자랑스러운 점,
첫 번째: 하나밖에 없는
두 번째: 피아노를 잘 친다
세 번째: 힘이 세다

~ 내가 잘하는 것은,
과목: 수학
놀이: 옥산당술
요리: 라면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합니다.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2. 자존감 키우기

(3) 단계 단계별 독서감상표현 학습지 (3)학년 (3)반

휴말선 400.4mm (휴대용 목포사)

책이름: 나는 특별하다 지은이·역언이: 민스크리도

표현 방법
 ■ 책을 읽고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 주인공 또는 나오는 인물이 무엇을 했나요?
 ■ 재미있거나 인상 깊은 부분을 내 장면으로 나누어 그려주세요.

3. '너는 특별하다'

4칸 독서만화 그리기

책이름: 가문 장아기 3학년 13 [Redacted]

글쓴이: [Redacted] [Redacted] 자기평가:

① 책을 자세하게 읽기
 ② 이야기를 4부분으로 나누기
 ③ 감명 깊은 장면 떠올리기
 ④ 앞주머니나 생각주머니의 내용을 생각하기
 ⑤ 이야기의 흐름이 잘 나타나게 4칸 만화로 나타내기

4칸 독서만화 그리기 순서

가문 장아기 그린 모습 가문 장아기가 뛰나가는 모습

1 2 모두
3 4

막내 아들과 가문 장아기 가문 장아기와 친구들

가문 장아기 가문 장아기

4. 줄거리 만화로 표현하기

〈부록 6〉 면담일지

가. ‘가문장아기’ 수업을 마치고나서(2013. 4. 23.)

교사: 제주 옛이야기 중에서 ‘가문장아기’라는 내용을 가지고 8차시 동안 공부해왔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던 이야기인가요?
전체: 아니에요.
교사: 그런데, 주인공이 왜 가문장아기라고 했나요?
현민: 검은 나무 그릇에 있는 음식을 먹고 자라서 가문장아기라고 했어요.
교사: 그래, 현민이가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네. 그럼 가문장아기가 왜 집에서 쫓겨났지?
유림: 엄마아빠가 누구 덕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냐고 물었을 때 언니들은 엄마아빠 덕
이라고 했는데, 가문장아기는 자기 덕이라고 해서 엄마아빠가 화나서 쫓아냈어요.
정훈: 그런데 가문장아기가 말하는 대로 언니들이 지내며 버섯으로 변하는게 신기해요!
연서: 저도 가문장아기처럼 내가 맘에 안 드는 친구는 변신시켰으면 좋겠어요. 석현이가
매일 놀려요!
유림: 집에서 쫓겨나서 고생하면서도 나중에 부자가 된 가문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교사: 가문장아기가 부지런히 노력해서 자기의 처지를 이겨내는 것은 정말 같은 여자지
만 자랑스럽다. 가문장아기 핫이팅 한 번 해주자!
같이: 가문장아기, 핫이팅!!!
교사: ‘가문장아기’ 플래시동화가 다른 거라 다른 부분은 뭐였지?
석희: 그림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 등장인물의 모습을 우리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어요.
교사: 그렇구나, 우리 등장인물을 캐릭터로 표현한 친구 작품을 한 번 살펴볼까?
희주: 웬지 가문장아기 엄마아빠는 표정이 사나울 거 같은데……
교사: 왜 그렇게 생각하니?
희주: 우리 엄마는 제가 여러 번 잘못해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라고 이뻐하시는데
말 한 번 잘못했다고 쫓겨내는 거 보니 마음이 나쁜 사람 같아요.
지혜: 막내아들은 착한 사람 같으니까 얼굴도 잘 생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랑 가
문장아기 말도 잘 들어요.
교사: 그럼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의 표정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동근: 눈을 가늘게 그리고 수염도 빼죽빼죽 그려요!
교사: 그것도 좋겠구나. 그럼 이 이야기로 공부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인지
동작으로 표현해볼까요? 지난 번 판토마임으로 했던 것처럼 하면 되요.
(5명 번갈아 가며 몸으로 표현하고 다른 친구들은 장면 알아맞히기를 하였다.)
교사: 친구들이 많이 표현한 장면이 뭘까요?
같이: 엄마아빠가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는 장면요!
지은: 전요 가문장아기가 쫓겨 가는 게 너무 슬펐어요.
교사: 선생님은 그래도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오늘 배운 이야
기를 집에 가서 가족에게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담주엔 오늘보다 더 재미있는 자칭
비 이야기로 공부할게요.

나. '자칭비' 수업을 마치고나서(2013. 5. 14.)

교사: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는 사랑과 농사의 여신 '자칭비'를 공부했어요. 재미있었나요?

같이: 네!!

교사: 그럼, 누가 제일 재미있었던 내용 말해줄래요?

동훈: 자칭비가 남자차림으로 문도령이랑 서서 오줌 멀리 싸는 내기가 제일 웃기고 재미있는데요.

유림: 저는 서천꽃밭에서 환생꽃을 얻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진짜 신기하던데요.

채은: 저도 여자가 주인공이고 남자랑 오줌싸기 게임에서도 이기는 게 너무 통쾌해요.

교사: 채은이가 좋은 얘기 해주었네. 제주설화에 주인공은 대개 여자가 많단다. 총명부인, 백주또, 영등할망, 설문대 할망 등등 그래서 제주를 삼다라고 했을까?

동욱: 정수남이 죽고 부엉이가 된 것도 신기해요.

민서: 자칭비가 하늘에서 사는 대신 곡식 씨앗을 달라고 할 때엔 감동받았어요. 저라면 하늘나라에서 편하게 산다고 할 텐데요.

교사: 그러게 말이다. 안 그랬음 우린 지금 밥을 먹지 못하고 있을 지도 몰라.

동근: 그럼 좋을 건데, 맨날 밥 대신 햄버거만 먹을 건데-

교사: 이런이런! 이 이야기를 공부할 때 현민이가 실감나게 책을 읽어 줘서 친구들이 듣는 활동을 잘 할 수 있었던 같아요. 우리 현민이에게 다시 한 번 칭찬의 박수 보내줍시다.

같이: 짹짹!!

유빈: 저도 동화구연 어릴 때 배워서 실감나게 책 읽을 수 있는데요!

교사: 그래? 그럼 다음에 '대별왕 소별왕' 이야기 공부할 땐 유빈이가 먼저 시작한다!

유빈: 앗싸!

교사: '이야기세상'에서 제주설화를 공부하면서 좋았던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서현: 전 제주설화에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지 몰랐어요. 다음에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서 대출해야지!

지은: 친구들이랑 선생님이 책을 읽어 주니까 2학년때 수요일마다 '책 읽어주는 엄마' 시간이 생각났어요. 혼자 읽는 거보다 더 재미있어요.

교사: 그래? 다행이네. 선생님도 동화구연 하는 거 더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실감나게 읽어줘야겠구나.

같이: 기대해요!

교사: 오늘 자칭비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번 주 과제는 학교도서관에서 자칭비 이야기를 찾아서 다시 한 번 읽어보도록 해요!

같이: 네!